

공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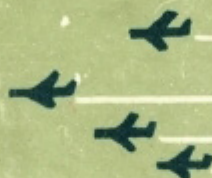
1963年 8月 25日 印刷
1963年 9月 1日 發行

9

第 78 號

特
輯

反共에의 意志와 行動





한미공군합동회의(韓美空軍合同會議) 개최

한미공군합동회의가 8월 23일 장(張)참모총장과「허치슨」주한미공군 사령관 및 한미고위참모 다수 참석리에 본부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동회의 석상에서 훈시하는 장(張)참모총장>

미5공군사령관내한(美5空軍司令官來韓)

신임 미5공군사령관「모리스·A·푸리스튼」중장은 신임인사차 8월14일 특별기편으로 내한하여 장(張)총장을 예방했다.



공군 제78호 차례

〈화보(畫報)〉	표지 2·3면 및 차례 뒷면
	표지 민철홍
차례컷	 김기창

특집 반공(反共)에의 의지와 행동

반공(反共)하는 마음	 김팔봉(金八峰) 3
-------------	----------------------

우리의 반공임무(反共任務)는 어떻게 수행되어야하나

북괴(北傀)를 압도하는 경제체제(經濟體制) 〈경제〉	 이동욱(李東旭) 7
올바른 민주주의의 자세로 〈사회〉	 오소백(吳蘇白) 10
반공(反共)을 생활의 기반으로 〈교육〉	 이희복(李熙福) 13

공산주의를 수술대에 올린다

공산주의의 독재성(獨裁性)과 착취성	 강영원 17
공산주의의 침략성(侵略性)과 파괴성	 백면진 21
공산주의의 허위성(虛僞性)과 비인간성(非人間性)	 박재후 28
동남아국제사회(東南亞國際社會)에 대한 우리의 외교정책	. 손병식(孫秉植) 34
망명객(亡命客)이 말하는 소련의 공포정치(恐怖政治) (완)	. . 그레고레프공군 130



군내현상논문당선작(軍內懸賞論文當選作)	박찬수 86
군정신(軍情神) 무장강화(武裝強化)의 기본방향	
두 번째 출동명령 (북한동포는 나를 살렸다) ⑧	이준수 120
명령으로 만들어진 소설	조정식 83
〈지상강좌〉	
민주주의 원리 ④	이극찬 56
공산주의 비판 ④	김창순 63
연재심포지움 한국의 자랑	
한국의 건축	김정기(金正基) 48
장병페이지	116
수필 · 단 이야기 쓴 이야기	
◇ 수금(收金)의 묘방(妙方)	김태길(金泰吉) 102
◇ 물물(物物)의 세대교체(世代交替)	김향안(金鄉岸) 104
◇ 우리 인생의 지옥과 천국	오영진(吳泳鎭) 107
◇ 시적(詩的)인 가(街)	정공변(鄭孔采) 111
〈연재〉 익명(匿名) (제2회) 임어당(林語堂) 하정옥(河正玉) 역	71
〈연재〉 요약 · 제3제국의 흥망(興亡)	
전쟁에의 길 (제3부)	샤이러 136
★후기	150



28엔진수명 860시간을 돌파
제1초훈전대에서는 8월 8일 평
균수명 409시간정도의 T-28훈
련기○진을 860시간이나 돌파
케한 세계적인 기록을 수립했다.



TTY통신망설치
8월 1일 군수국에 TTY통신망이 설
치됨으로써 보급행정의 기계화를
도모하고 후방지원의 신속 및 작전
능률향상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코메트, 미사일 統舎>

제 78 호

혁 명 공 약

1. 반공을 국시의 제 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 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1963

발 행 처 ·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겸편집인 · 공군대령 김영호(金榮浩)
 인 쇄 처 · 공군교재창
 인 쇄 인 · 공군대령 백춘득(白春得)

<특집>

반공(反共)에의 의지와 행동



우리는 625의 전란(戰亂)을 통해 공산괴뢰(共產愧儡)들의 야수적인 만행을 뼈저리게 느꼈다. 현재 휴전이라는 장막이 펼쳐있기 때문에 비록 직접적인 전투는 없다고 방심하다가 큰 야단이다. 그들은 직접, 간접수단으로써 앞으로 또 어떠한 행동을 취하여 우리를 괴롭힐지 알 수 없다. 우리는 국가 백년대계를 세워 보다 나은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도 우선 무엇보다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공산괴뢰들의 눈초리를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반공에의 의지와 행동」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자.

◇반공하는 마음

◇우리의 반공임무는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나

- 북괴를 압도하는 경제체제 <경제>-
- 올바른 민주주의와 자세로 <사회>-
- 반공을 생활의 기반으로 <교육>-

반공하는 마음

김팔봉(金八峰) <소설가>

우리는 어째서「반공」하는가?

이같은 질문에 대해서 나는 대답 대신으로 도리어 묻는 것이 있다.

14후퇴때 어째서 이 넓은 서울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거의 모두가 서울을 버리고 남쪽으로 피란을 갔었더냐? 나는 1월 3일날 밤에 한강의 빙판을 걸어서 건너 갔다마는, 우리 동네 근처에서는 떡장수 마누라거나 구루맛군이거나 모두가 나보다 먼저 피란가고 없어졌었으니, 그 사람들이 어째서 나보다 먼저 서울을 버리고 남쪽으로 갔었더냐고. 이같이 반문 하면 질문 하던 사람이 쉽게 깨닫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서울 시민들은 6월 28일부터 꼭 석달동안 공산주의 국가의 본상을 똑똑히 보았고, 또 석달동안을 저놈들의 질서 밑에서 겪어 봤기 때문에 저놈들이 싫고, 미웠고, 무서웠던 까닭이다. 왜 반공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공포없는 자유를 원하는 때문이다. 아주 간단한 이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란 가끔 건망증에 빠지는지 10년전의 일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무서워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던 공산주의와 타협해 보려 하고, 가까이 해 보려고 생각하는거 같다. 대학교수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고, 소위 구정치인 이라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으니 딱한 일이다. 나이가 17, 8세 밖에 안된 젊은 사람이라면 6.25때는 그가 철이 들기 전이니까「북조선 인민 공화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3개월동안 겪어 보았건만 알지를 못했을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5.16 직전에 우리의 젊은 학생들은「남북학생 문화 교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괴뢰들이 떠드는 대로의「평화 통일」이라는 것을 주장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젊은 학생과 건망증에 걸린 사람을 제 외 하고서는 모두가 13년전

의 6.25를 뼈아프게 기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년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우리나라의 대표가 퇴장해 버린 방안에서 유엔군대표와 괴뢰군 대표 사이에 조인되고 말아버린 저 억울한「휴전협정」까지도 분통이 터지게 기억하고 있다. 지금 5.16군사혁명이 저들의「간접 침략」을 분쇄해 버린지 2주년이 지나가고, 군정(軍政)이 민정(民政)으로 바뀌게 되어 구정치인들이「정권을 도루 뺏겠다」고 활발히 움직이니까, 이틈에 대한민국 국민을 선동하고 군·민을 이간시켜 혼란한 사태가 일어나도록 공작을 하고있는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처지를 반성해 보고, 반공하는 마음의 자세를 정돈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한다.

지금 세계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국가와의 관계는 미묘해져 가고 있다. 거꾸로 보기에는 소련과 중공이 각 각 구라파와 아세아에 자기들의 세력을 갈라 가지고 서로 이념을 달리하고서 피차에 겹고 트는 것 같이 보이며, 한편으론 종래에 오랫동안 소련이 미국·영국과 말썽만 부리고 끌어오던「핵실험 금지」문제를 어느 정도 종전 태도에서 양보를 하고서라도 협정을 이루는데 까지 나갈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소련은 중공과 사이가 나빠져버린채 서로 눈을 흘기면서 미국·영국과는 악수하고 사이가 좋아진 것 같이 보인다는 말이다. 그러나 흐루시초프는 그가 이번「핵실험 금지회담」의 첫날,「모스크바」에 있는「스피리도노브카」군전 회의실에서 미국대표「해리만」씨에게「무엇부터 시작할까요? 먼저 협정에 조인하는 것으로 시작합시다」고 농담을 걸고,「해리만」씨가 영국대표와 함께 그의 곁에 서서「이제 당신은 이상스런 환경에 서 있습니다」고 농담을 던지니까,「그렇습니다, 나는 제국주의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고 받아넘기면서「당신들이 미국으로 부터 영국인을 내 쫓았을 때 잘했습니다. 그들(미국인)은 지혜롭게 행동해서 당신들(영국대표를 보며)을 내 쫓았습니다」고 한 수를 더 뜨고, 미국·영국 대표가 착석하기 전에 머뭇거리니까 또「여러분이 내정간섭은 하지 않을 터이니 어디든지 좋은 곳에 앉으시죠」라고 의자를 권했던 것처럼, 능숙하고 훌륭스런 솜씨로 흥정을 할 것 같다. 핵실험을 피차에 안하기로 협정하는 동시에 소련이 요구하려고 하는 조건은 독일과의 강화조약 체결이요「북대서양 동맹 국가」와「와르샤와 조약 국가」간의 불가침조약체결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며, 미·영이 이같은 교환 조건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존방침임도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런고로 이번 회담 첫날에 농담으로 오고 간 수작에서도 미·영 대표보다 한 수를 더 뜬「흐루시초프」가 과연「핵실험 금지」를 전적으로 성취시킬

뱃심인지 아닌지는 아무리 중공을 견제하려는 저들의 표면적 사태 이긴 하지만, 두고봐야 할 일인것 같다. 왜냐 하면, 중공과의 이념분쟁이라는 것도 능글맞은 「호루시초프」의 지혜를 다한「자유진영 국가들의 방심(放心)을 노리는」고 등전략 인지도 모르는 까닭이다. 「모스크바」7월 15일 AP 전보가 보도하는 바에 의하면 소련, 중공의「이념회담」은 장기화 될 듯 하다 하고서『중공당 성명은 「이념 차이가 오늘 해결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내일까지 기다릴 수 있고, 내년까지라도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하였다』라고 보태어 말한 것을 보드라도, 공산진영내의 이념분쟁의 막 뒤에는 자유진영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아지는 까닭이다.

자유진영의 일부 인사들은, 천문학적 숫자의 엄청난게 많은 경비를 요하는 핵실험은 지금 양대 진영이 똑 같이 두통꺼리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소련도 이번엔 교환조건 없이 순순히 핵실험 금지에 조인을 할 것이라는 낙관을 갖기도 한다. 사실, 핵실험에 소용되는 돈을 다른 방면에 쓰기 위해서 소련이 미·영과 함께 실험금지를 내릴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 손치더라도 전쟁 아닌 방법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세계위에 넓히려는 나갈수 있다는「평화공존론」으로 중공을 누르려하는 소련의 궁극의 목적에다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강도 소련에 의해서 남북이 두동강 난채, 유엔에 의해서 세워진 세계적 국가다. 자유진영이 결속해 가지고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케 하여 세워진 것이 우리나라인 까닭에 우리는 자유진영이 세계에 보이는 한개의 표본국가인 동시, 소련과 중공을 육지로 영접하고 있는 자유진영의 최전방에 위치한 하나의 진지이다. 그러니까 이곳 진지가 약하면 그 만큼 자유진영 전체에 적지않은 손실을 가져올 것이요, 이 나라가 자유 민주주의로 충실하게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 만큼 표본 국가로서의 가치를 잃고 나아가서는 자유진영의 실패를 보이는 것이 된다. 이같이 우리의 처지가 세계 역사 가운데서 중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때 인만큼 우리들이 인류의 역사에 공헌할 의무와 책임은 크고 또 무겁다 아니 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며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라 함을 저 미치광이 같은 공산도당들 한테 짓밟혀 가며 생존하고 있는 1천만의 동포들 앞에 보여 줌으로서 이북땅의 노예상태로부터 그들을 구제해 내야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동시, 자유대한에 살고 있는동시, 2천4백만 동포의 안정과 번영을 튼튼히 수호해야 할 의무도 우리에게 있는 까닭이다. 155마일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바라다 보는 공산 적군이 또 어느때 불쑥 밀어닥쳐 올른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우리의 진지는 더욱 자유진영 전체의 중요한 보루(堡壘)가 되는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 라디오의 보도에 의하면「모스크바」핵실험금지 회담은 미·영·소 3개국간에 완전히 합의되어 초안을 끝냈다 한다. 과연 와르샤와 조약국과 북대서양동맹국이 각각 일방적으로 전쟁을 안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 한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 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쌍방이 일치 할른지 어떨른지는 다시 더 두고보기로 하려니와, 핵실험 금지 회담만은 이번에 원만히 끝낸 셈이다. 그러나 이 회담이 원만히 끝났다해서 자유진영 국가가 마음을 놓고 앞으론 전쟁이 없으리라고 믿을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우리는 항상 공산도당의 일거 일동에 경계를 해야만 하는 까닭이다. 저것들 공산도당은 선동과 선전과 조직적 음모와 시위와 폭행과 침투공작과 이간 중상의 모략을 정력적으로 수행하는 외에, 때로는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퇴각을 감행하기도 하는 까닭이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놓든지, 조금만 우리들 내부가 혼란 하든지, 조금만 우리들 내부에 빈공과 부패가 쌓이든지 하면, 그 틈을 타서 저놈들의 마수는 우리 사회에 침입하는 것이다.

제2차 대전 이후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두쪽으로 쪼개진 서부독일은, 소위「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어, 철의 장막 동부독일로부터 지금도 날마다 자유를 찾아 넘어오는 피란민을 받아들이기에 골몰한 형편인데, 이같이 된 이유는 다름아닌 서부 독일의 정치안정과, 과학적 기술과 경영 관리와 독일 국민의 근면, 내핍, 절약, 상호부조, 단결의 결과이다. 이같이 국민 전체가 단결해서 피차간 도움고 물자를 애끼면서 부지런히 일하고 소비를 절약하는 동시 훌륭한 기술을 생산하는데 기울여 합리적으로 경영을 관리 했음으로 오늘날 서부 독일의 국민 소득액은 세계에서 둘째 갈만큼 높은 지위에 있다. 뜻하지 않은 금년 여름의 수해로 인해서 우리는 시련을 겪게 되었는데, 이같은 시련을 우리 국민이 단결하고 협력해서 이기지 않고서는 경제의 안정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민주주의의 원리나 원칙만 외우지 말고, 복잡한 세계정국 가운데서 하루 속히 안정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정치환경을 개선 시키기에 노력해야겠다. 우리의 환경은 안정시키는 것과 국가를 번영시키는 길만이 우리의 반공을 보람있게 성공 시키는 거점(據點)이 되는 까닭이다.

〈편집자주·차(此)원고는 핵실험금지 협정체결이전에 집필한 것임〉

특집 반공(反共)에의 의지와 행동

〈경제〉북괴를 압도하는 경제체제

이동욱(李東旭)
〈동아일보 논설위원〉

반공의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의·식·주 즉 경제적인 실력을 쌓음으로써 자동적으로 승공의 길에 들어가 보자. 서독국민의 훌륭한 경제발전은 공산동독을 완전히 압도하여 마침내 그칠줄 모르는 동독인민의「자유에의 탈출」을 보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반공으로서의 경제체제를 어떻게 다듬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경제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말을 할 나위도 없거늘 또한 공산주의를 막고 이를 부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다를 여지가 없는 것이다. 아니 공산주의와의 싸움은 무력전(武力戰)보다도 경제전(經濟戰)의 양상을 더 짙게 하고 있음으로 경제건설전이야 말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열쇠라고해서 틀리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남한의 생활수준을 북한의 그것을 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끌어 올리기만 하면 남한의 공산화의 우려는 없어질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공산정권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예는 서독과 동독과의 사이에서 현재 구경하고 있는 사실로서 서독의 생활수준이 동독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음으로 동독에 사는 사람들이 서독으로 매일 천여명씩 넘어와서 서독의 노동인구를 늘려주어서「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하게 하였으나 동독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모두 서독으로 건너가고 노인들이나 불구자들만이 남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으니 동독은 국가로서 유지할 수 없게끔 된 것이다.

그럼으로 동독의 공산정권은 동·서독을 가로 지르고 있는 경계선을 철통같이 굳게 막아놓지 않고서는 동독이 국가로서 거들 나는데 막는 길이 없게 된 것이다. 특히 백림(伯林)에서 동백림과 서백림을 막는 장벽은 대단한 것이니 이를 구경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몸서리를 안칠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도 남한에서「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서 남한의 생활수준을 북한의 그것보다 압도적으로 올려놓기만 하면 북한은 동독과 같은 지경에 서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자유경제를 재인식하자

그러면 그러한 서독경제의 기적적 변형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일까? 혹자는 서독이 동독보다 자원이 풍부한 것을 서독이 동독보다 잘 사는 이유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서독에서 쓰고있는 공업 원료는 그 대부분을 외국서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서독이 동독보다 잘 살고 있는 이유가 자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니 서독에 기본 사람들은 누구든지 수궁하겠거니와 서독은 우리 남한만도 못한 자연자원을 가진 나라다. 그러니까 서독이 동독보다 자원이 앞선다는 것은 전혀 통하지 못할 소리다.

혹자는 전전(戰前)부터 서독은 공업이 발전해 있었고 동독은 농업이 주업이었다는 것을 들고 있다. 물론 사실이기도하나 서독 공업은 전쟁때 완전히 분쇄되었으므로 전후의 건설은 동독과 마찬가지로 공무(空無)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서독의 공업이 동독의 공업보다 전전(戰前)부터 앞서고 있었다는 것을 서독이 동독보다 월등히 잘 사는 이유로서 지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어디에 서독이 동독보다 앞서게 된 원인이 있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서독은 자유경제를 택했고 동독은 공산주의적 계획경제를 택한것이 그러한 차이를 조성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는 많은 것이다. 아니 한국에는 계획경제가 아니고서는 남한이 북한보다 뒤진다고 보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사실은 온전히 반성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최소한의 계획을

우리가 휴전후 10여년동안 경제건설을 한다고 하면서 건설다운 건설을 하지 못한것은 자유경제체제를 옳게 세우지 못한데 원인을 두고 있다는 것도 깊이 반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후자는 계획 경제체제를 세우지 못한 것에 못 사는 원인이 있다고 하나 기간산업(基幹産業)을 다 국영, 관영, 정부직할 기업체로서 하고 있으며 모든것이 계획에 의존하지 않는 것은 없을 것이다. 다만 계획이 서툴렀다는 것은 인정받을 수 없지만 계획경제가 아니었다고 함은 말이 안된다.

계획을 잘 했더라면 잘 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누구나 다 잘 하려고 한 노릇이 잘 안되었다는것 뿐이며 솔직히 말해서 누구를 갖다 놓아도 잘할 도리도 없으려니와 계획경제란 실패하기 마련이기에 말이다. 공산주의하에서도 실패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계획경제인데 자유를 인정하고서 계획경제를 성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노릇이었다.

서독이 자유경제를 대담하게 택했기 때문에 잘살고 있다는 사실과 동독이 계획경제를 택했기 때문에 서독보다 못 살고 있다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되었거니와 무엇보다도 실지로 입증된 것은 독일을 찾은 사람들은 다 같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다.

거듭 말한다면 계획경제는 동독처럼 공산주의정권하에서도 실패를 불면하였다면 남한과 같은데서 자유를 인정하면서 계획경제체제를 세워서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경제변영을 이룩한다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고기를 잡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아니, 서독서도 만일에「에르할트」교수의 말을 듣지 않고서 자유를 인정하면서 계획경제를 실시하였던들 동독을 압도하는 생활수준의 향상은 커녕 동독보다도 못한 생활수준을 이룩했을는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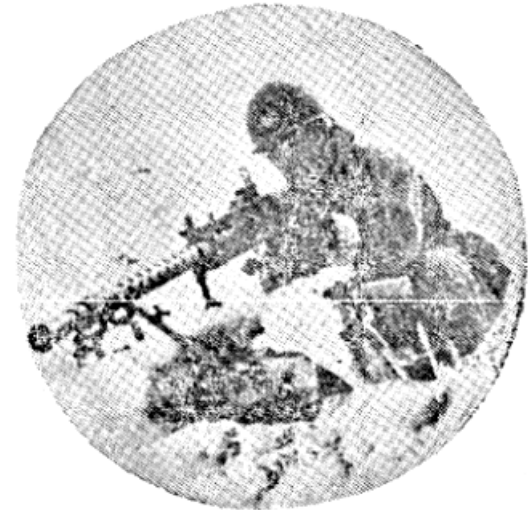
현정부는 자유경제를 주안(主案)으로 하되 계획경제를 가미한 경제체제를 택한다고 하였고 또한 이를 실천하고 있다. 자유경제치고서 계획이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니 계획이 없고 통제가 없는 자유경제는 자유경제가 아니라 방종(放縱)경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획과 통제는 최소한으로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길은 최소한의 계획을 엄수해서 자유경제의 폭을 최대한으로 넓혀주는 것일 것이다.

특집 반공(反共)에의 의지와 행동

〈사회〉 올바른 민주주의의 자세로

오소백(吳蘇白)

〈대한일보 편집부국장〉



〈오늘도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용사〉

어김없이 민주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결국 공산주의에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공산주의에 이기는 것이 곧 반공임무를 제대로 이룩한 것이라고 본다.

민주주의를 잘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반공임무도 이그러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에 있어서도 반공은 끊임없이 부르짖어 왔다. 허나 우리는 반공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짓밟는 일을 적지않게 보아왔다. 이는 엄밀히 따져 민주주의도 반공도 실패의 인상을 주게한 것이었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그 수단에 있는 것이다. 목적 뿐만 아니라, 수단도 민주주의적이어야 한다는데 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올바른 반공자세와 임무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밀고 나가는데만 있다.

민주주의의 무장이 철저하지 못한테 반공만을 아무리 내 세우고 나간다 할지라도 이는 자칫하면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치는 반공이 되고 말 것이다. 민주주의적 무장이 분명한데서만 반공태세는 강화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여기서 낱말이 지적하지 않아도 우리는 과거에 반공이라는 이름 밑에서 낡은 정치인들이 저지른 일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보다는 집권욕의 도구로서 반공을 빙자하기에 바빴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벌써 생각이 판데 있었던 것이 아닐까.

반공을 모독한 것이며 나아가서는 민주주의를 짓밟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아닐까. 다른 말은 그만두고 하나만 들어보자.

집권자들의 장기집권이 역세게 나오면 나올수록 사회의 부패는 심도를 더 했던 것이다.

부패는 부패로만 막을 수 밖에 없었다. 사회의 모든 부패가 싹트기 전에 이미 집권자들이 썩어 명들고 있었다.

부패정권의 현상유지는 역시 부패의 수단밖에 탄 길 이 없었다. 사회의 부패는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모든 분야의 부패는 퇴폐한 사회풍조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들은 내부의 부패를 감추기 위해서 형식적인 반공구호를 들고나왔던 것이다. 부패가 번지는 곳에 절망과 굶주림에 떠는 민생고가 있었던 것이다. 한말로 해서 정권이 부패하지 않고 사회가 부패하지 않았던들 우리는 몇번씩 변혁을 꾀지는 않았을 것이다.

부패와 굶주림 절망과 민생고가 엇갈린데서 어떻게 민주주의의 무장이 이룩될 수 있겠는가 말이다. 부패는 부패,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고, 반공은 반공이고, 이렇게 분리해서 계산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수단으로서의 반공은 먼저 내부태세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4월혁명때도 보았다. 반공회관이 학생들에 의해서 방화되었다. 이때 한쪽에서는「맥아더」장군 동상까지 부수었다고 각도를 돌렸다. 그러나 이런 데 마와는 반대로「맥아더」장군의 동상에는 꽃다발이 걸려 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회관을 방화한 그들은 반공회관 앞에서 공산주의 타도를 외쳤다. 서대문 이기봉씨 집에서는 미국 국기가 나왔다. 학생들은 다른건 모조리 불태우면서도 성조기만은 고이 미국사람들에게 돌려보냈다.

반공회관사건의 경우는 형식적인 반공과 실질적인 반공을 판가름한 측면적인 실례로 볼 수 있다. 이를 다른 말로 한다면 구호에만 그쳤던 반공의 탈을 벗긴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다시 부패에 대한 말로 돌아가자. 우리는 정치적 부패 사회적 부패가 결국은 우리를 망치게 한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이러한 부패는 나아가서는 반공태세에까지 금이 가게 했다는 것을 에누리 없이 간파해야 한다.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은 일종의 과잉반공밖에 안될 것이. 구호에만 그친 과거의 반공은 스스로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일하는 반공, 부패없는 반공, 민생고를 없이하는 반공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국토통일문제를 들고 보아도 할 말이 있다.

말로만 그치는 통일이어서는 안된다. 먼저 공산주의와 맞설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데 온갖 힘을 기우려야 할 것이 아닌가? 아니 한결을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에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반공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만 나아가야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나간다면 이는 위험속에 빠지게 된다.

반공은 밖에서 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번져나가야 한다. 내부의 무질서와 반민주(反民主) 부패로 부터 없이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반공의 길을 앞잡는 다는 것은 가장 큰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독재와 과대망상증

항향(香港)의「중국 뉴스분석」(China news analysis)의 편집인은 다음과 같이 모택동(毛澤東)을 분석하였다. 절대적 통치자가 자신의 권력과 영광의 황혼 속에서 정신을 잃어버리며 과대망상적 생각에 잠겨 불가능을 강요하며 그의 적과 적이라고 생각되는 자를 무자비하게 죽이며 다만 그 자신 과의 사만을 인정하게 되는데 모(毛)도 그 예에서 빠져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리장성을 자기의 기념비 처럼 생각했던 진시황과 흡사하다. 이것은 모(毛) 자신이 숭배하는 태평천국시대 (1850-64)의 홍수규(洪秀奎)도 그가 황제가 되고부터 정신적 무능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특집 반공(反共)에의 의지와 행동

〈교육〉반공(反共)을 생활의 기반으로

이희복(李熙福)
〈문교부 수석편수관〉

우리의 국시(國是)를 위한 길이며 온 국민의 윤리인「반공교육」은 현재 어떻게 실시되고 있나? 더구나 그의 성격은? 「반공교육」이 잘 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승공(勝共)의 방향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반공」을 그저 형식적인 구호나 또는 형식적인 교육에서 너무나 외쳐 보았다. 앞으로의 반공교육이란 종래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그 반공이념을 우리의 일상생활의 기반으로 튼튼히 자리를 잡고 마음에서 우러나고 생활에서 늘 반영되는 그러한 반공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반공 교육은 우리의 국시(國是)를 위한 길인 동시에 국민의 윤리(倫理)이다. 그 까닭은 묻지 않아도 6.25를 겪은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반공 교육은 이처럼 국민의 신념이 되고 국민 생활에 침투되어야 하겠기에 각급 학교의 교육 과정에도 반영시켜 청소년의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힘 쓰고 있다.

그러면 반공 교육의 본질에 입각한 교육 과정의 양상은 어떠한지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1. 반공 교육은 모든 교과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과가 중심이 된다.

반공 교육은 실천 교육을 중시하는 것이 교육적 특색이다. 국어나 산수와 같이 어떠한 고정된 내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전 생활을 통해서 사상(思想)과 행동(行動)을 연마하는 것이다. 동시에 반공적 행동이란

어떤 고정된 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생활의 장면에서 유동적(流動的)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미리 어떠한 사태를 예견하거나 대기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장면에 부딪혔을 때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전생활을 통한 교육으로 전생활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는 교과를 막론하고 전개되는 내용에 따라서 반공 교육을 실시한다. 그 뿐이 아니고 교육 과정의 또 하나의 코오스인 특별 활동에서도 민주 시민의 양성에 주력하는 동시에 반공 교육을 실시한다.

국민 학교와 중학교의 교육 과정의 전체 구조(構造)는 교과 활동과 반공, 도덕 생활과 특별 활동의 세 코오스로 되어 있다. 이는 단적으로 지적해도 반공, 도덕 생활의 무게를 교과 활동이나, 특별 활동과 동등한 무게로 본 것이다.

2. 반공, 도덕 교육을 위해서 교육 과정에도 교육 내용을 설정하였다.

종전에는 도덕 교육 지도 요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 왔고, 이에 대한 시간 배당도 독립한 바 없어서 사회과나 특별 활동 시간에서 충당하였다. 새 교육 과정에는 반공, 도덕의 지도 내용을 교육 과정에 설정하였다.

반공 교육이라 하여도 국민 학교나 중학교의 학생에게 공산주의 이론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심신 발달에 맞춰서 생활 지도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도 실천적인 문제가 중심으로 되어 있다.

국민학교에서는 예절생활, 개인생활, 사회생활, 국가 생활로 생활 장면을 설정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양성하고, 국토 방위와 공산침략, 공산당의 허위 선전, 간접 침략의 분쇄 등을 교육 내용으로 삼는다. 중학교에서는 다시 이를 높여서 공산 주의의 침략성, 공산주의 배경, 공산주의의 모순성, 자유 세계의 단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일반 사회가 중심이되어 국민 윤리나 정치, 경제에서 교육하기로 되어 있다. 공산주의 비판, 사회주의 사상, 국민 윤리의 확립, 국제 관계와 국제 정세등이 그 주요한 내용으로 되어있다.

모든 학교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처럼, 모든 생활에서 반공 교육을 실시하되, 국민 학교와 중학교에서도 1주에 1시간씩 시간 배당이 되어 있다. 이 시간은 실천 문제를 중심으로 지도하는 시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교재를 지도할 수도 있고 생활 지도를 위해서 충당하여도 좋다.

학교 교육은 국가의 목표에 따라 전인교육(全人教育)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교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생활

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모든 생활을 체제도 없이 막연히 지도하면 오히려 학생들은 무한한 문화를 수박 겉핥기 식으로 냄새만 맡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교과나 과목을 설정하여 중점적인 체계를 세워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반공 교육은 학적(學的)인 체계는 전문성을 띄게 되므로,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에 맡기고 중학교 이하에서는 실천지도를 중심으로 하게된다.

이처럼 우리가 반공 교육을 중시하고, 반공 생활을 국민 생활의 기반으로 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민주 대한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함으로 빛나는 앞날을 건설하기 위해서이다.

양대 진영의 대립도 있거니와 공산당과 이마를 마주대고 있는 자유 대한은 민주주의의 승리로만 북한의 동포를 구출할 수 있고, 숙원의 국토 통일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에 통일된 독립 국가가 그 국체를 옹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반공 교육에 비하여 우리의 반공 교육은 그 질에 있어서나 그 양상에 있어서나 빠져린 민족의 부르짖음이고 잃은 조국의 광복 운동과 상통하다는 점에 더욱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 중공(中共)의 대국사상(大國思想)

시카고대학 정치학교수「모젠소」씨는「아세아와 중공」이라는 글 속에서 중국의 대국사상과 모택동(毛澤東)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대국사상에 사로잡힌 모(毛)는 그 반면에 급도로 발전해가는 세계의 산업화에 매우 어두우며 스탈린주의를 뒤따르는 그의 위치는 권력적으로 과대망상가가 될 것이다. 그는 눈부시게 (그가 따르지 못한 정도로) 발전하는 세계사정에 대하여 부적당한 머리의 소유자가 될 것이며 해외경험이 거의 없는 독재자에 지배되는 중공은 필연적으로 소련과의 사이에 중대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다 같은 공산주의 국가라는 의미에서 소련의 동료들은 모(毛)를 환영하기 곤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 소련의 그의 동료들은 농민출신인 모(毛)가 원자탄을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호미로 무장하기를 원할 것이다. 모(毛)로 하여금 과대망상가를 만들게 되는 것은 스탈린의 그것과는 다르다. 모(毛)를 둘러싸고 있는 그의 부하들이 그렇게 만들고 말 것이다.



선량한 우리 동포들이 무자비하게 그들의 손아귀에서 희생되었다

수술대에 올린다

공산주의가 인류의 적이며 자유, 평화에 대한 불치의 암(癌)인 것은 새삼스러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특히 30대이상을 제외한 10대와 20대는 그들이 6·25라는 공산 생지옥을 직접 겪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추상적인 반공만 외치고 있다. 이제 여기서 공산주의는 왜 나쁘고 왜 우리가 배격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 차안(差眼)하여 그 모순점을 몇 가지 파헤쳐서 그 실 예를 더듬어 보자.

- ◇ 공산주의의 독재성(獨裁性)과 착취성(搾取性)
- ◇ 공산주의의 침략성(侵略性)과 파괴성(破壞性)
- ◇ 공산주의의 허위성(虛僞性)과 비인간성(非人間性)



〈6·25 당시 공산괴뢰들의 만행은 곳곳에서 일어났는데

공산주의를

공산주의의 독재성(獨裁性)과 착취성(搾取性)

강영원

〈육본 특전감실 (陸本 特戰監室)〉

가장 가혹하고도 조직적이며 대중적인 착취를 강화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의 필수적인 현상으로 되어 있다.

. 공산국가의 경제구조는 국가라는 권력기구에 의해서 소수 집권자가 국민대중을 무제한으로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는 가능성과 실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 이론의 정수를 이루고 있는「푸로레타리아」독재는 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전제적이며 독재적인 정치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있다.

공산국가의 정치 경제제도를 이론적으로 논의하기 보다는 공산주의의 독재성과 착취성은 공산세계 인민들의 생활현실이 더욱 웅변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그것은 공산세계 인민들이 특히「지상낙원」을 위한 공산주의건설을 40여년간이나 지속해온 소련을 비롯하여 동구라과 공산위성국가들과 중공 북부월맹 북한 내의 국민들

은 집권자들의 선전적인 구호와는 달리 빈곤과 굶주림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산위성국가가 탄생한 이후 자기의 고향과 부모처자 그리고 조국을 버리고 자유세계으로 탈출해 온 수천만명의 피난민들이 공산세계가 인간지옥이라는 것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공산국가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항구적인 집권야욕에 불타고 있는 공산독재자들에 의한 억압과 가혹한 착취에 기인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대중의 희생을 요구하는 착취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산독재가 필요했으며 잔인무도한 공산독재 없이는 인민들의 고향을 찢낼 수도 없었던 것이다.

공산세계에서 이와 같이 불가분의 연관성을 가지고 공산주의의 생리로 되어 있는 독재와 착취현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공산주의자들은 정권을 자기 수중에 장악하자「푸로레타리아」에 의한 독재정치를 표방하고 인민대중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과 개인생활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포악한 억압과 구속을 강화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대중에 대한 공산당의 독재와 개인 숭배를 조장하고 착취를 강화하기 위하여「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악랄한 수법으로 공산주의에 맹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정권야욕에 혈안이 된 권력다툼에서 반대세력들을 깡그리 숙청해버리고 있다.

평화적이며 합법적인 정당들의 경쟁적인 공존을 인정하지 않고 공산주의 이외의 모든 사상과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

그와함께 노동계급의 독재와 공산당의 이름을 빌어 영도자로 군림한 개인에게 온갖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

소련에서「스탈린」은 소위「인민의 태양」으로 등장하여 개인숭배의 후과를 남겨 놓았으며 자기의 동료와 상부로서 같은 공산주의 활동을 계속하여 오던「트로츠키」「부할린」「카메네프」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인민대중이 그의 한 눈이 깜박하면「빨티」해의 고기밥으로 되어버렸다.

「스탈린」격하운동으로써 새로운 권력자로 등장한「호루시초프」도 종파분자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 쏘련공산당의 원로라고하는「불가닌」「모로토프」「말렌코프」등 반대파들을 숙청해버렸다.

중공에서「맑스」주의의 정통파로 자부하고 있는 모택동(毛澤東)은 인민협상회의(국회와 같음)의 해산과 소집, 헌법의 폐기와 개혁도 할 수 있는 특권을 손아귀에 틀어쥐고 있다.

모택동(毛澤東)이가「오늘의 동방의 태양」으로서 중공인민들의 폭군으로 등장하기 까지에는 피비린내나는 경력이 필요했다.

모택동이는 공산주의운동을 전개하면서 진덕수 이립삼등 자기의 강적을 물리치고 정권을 장악한 후「청산운동」을 통하여 중공대륙을 인간도살장으로 전변시켰다.

최근에 이르러서도 한 때 북한괴뢰의 남침을 도와서 참전 했던 중공군의 총사령관「팽덕회」를 그가 수여받은 공로표창장의 먹도 마르기전에 동북지구 당서기로 있었던「고강」과 함께 숙청해 버린 사실이 잘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공산독재를 위한 정치적 폭압과 숙청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권력다툼은 어느 공산국가에서나 동일한 것이지만은 북한 공산괴뢰들의 소치는 더욱 극악한 것이다.

김일성(金日成) 일당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수많은 애국자들을 처단했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집권 17년사는 그야말로 붉은 피의 역사인 것이다.

김일성일당은 집권초기에 오기십 주영하등을 지방할거주의자로 내쫓은데 이어 1953년에는 박헌영 이승엽 임화 이태준 등 남로당계열을 비로 쓸듯이 숙청하였다. 휴전후에는 북구건설을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극도로 영락된 생활고에 대한 북한동포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또다시「반종과 반혁명투쟁」이라는 미명하에 일찍이 공산주의운동에서 찾아볼 수 없던 대규모적이며 조직적인 숙청을 감행 하였다.

1957년부터 1959년에 이르는 3년간에 걸쳐 진행된 이「반종과 반혁명투쟁」에는 15세이상의 남녀노소가 비판대에 올라야 했고 공산당의 권한에 의해서 어떠한 법적 근거와 조치도 없이 가혹한 처형을 받았다.

수백만을 헤아리는 북한동포들이 사형을 비롯하여 각종형벌을 받았으며 강제 이주 유형 강직과 철직등 가지가지 책벌들을 받았다.

어제의 동지도 오늘은 적으로 되고 아무리 뜻을 같이하는 공산주의자들이라 할지라도 수령에게 무조건 복종하지 않는 자라면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같은 동료라 할지라도 그의 공로와 권위가 높아지면 서슴지 않고 목을 자르고 있다.

이리하여 공산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유를 박탈하고 소수 공산독재자들에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전대미문의 폭압적인 공포정치를 산생케하고 있다.

「푸로테타리아」독재는 국가권력기관을 장악한 후 인민대중을 경제적으로 예속시켰으며 무제한으로 대중을: 착취하기 시작했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위성국가들에서의 경제구조의 변혁과 착취제도의 수립 과정에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크게 두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의 첫단계는 일체 생산수단의 개인소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유재산을 국가권력으로서 강제로 몰수하여 국유화하는 과정이며 둘째단계는 모든 생활수단을 빼앗기고 빈 두 주먹만을 가지고 완전히 공산당의 노예로 전락된 인민대중의 값싼 노동력을 무제한으로 착취하는 과정이다.

모든 공산국가들에서는 첫단계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실로 강도적인 약탈행위를 감행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국유화 또는 협동화에 관한 법령하나로써 개인소유로 되어 있던 일체의 기업소 광산 발전소 철도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기관등을 전부 무상으로 몰수하였으며 협동화라는 미명하에 개인소유의 토지 임야 과수원 가축은 물론 농기구에 이르기까지 깡그리 빼앗아 갔다.

이 과정에는 정치적인 탄압과 함께 공산독재의 전횡과 폭행이 서슴없이 감행되었다.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수 없게 된 인민대중은 공산주의자들의 충실한 노예로서 강제노동에 끌려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공산국가들에서 인민대중이 노예노동에 시달리고 빈곤과 기아를 노동의 대가로 받아야하는 참상이 바로 둘째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떠한 생활수단도 가지지 못하는 인민대중의 고혈을 보다 많이 짜내기 위해서 가혹한 노동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소련의「공산주의 브리гада운동」이나 중공의「대약진 운동」이나 북한의「천리마운동」은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인간능력의 극한에 달하는 노예노동을 강요함으로써 최대의 이윤을 착취하자는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 모든 권력을 장악한 공산주의자들은 역사상 초유의「신계급」으로 일찌기 없었던 특권귀족으로 등장하였고「스탈린」이나 모택동「호르시초프」김일성의 예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은 전제적 폭군은 없었던 것이다.

공산독재와 착취는 신계급으로 등장한 공산주의들의 치부와 지배를, 인민대중의 예속과 빈곤을 산생케 하였다.

정치적 무권리와 경제적 빈곤속에서 헤메고 있는 인민대중은 인간의 존재 가치와 자유를 상실하고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도 없는 노예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의 침략성(侵略性)과 파괴성(破壞性)



백면진 (白冕珍)
〈공보부 해외과(公報部 海外課)〉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침략적인 팽창주의 본성을 음폐하고 평화적인 것으로 자랑하기 위하여 항상「침략이란 것은 자본주의 제국(諸國)의 모순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경우 제국주의제국의 기본적인 대외 정책」이라고 강변(強辯)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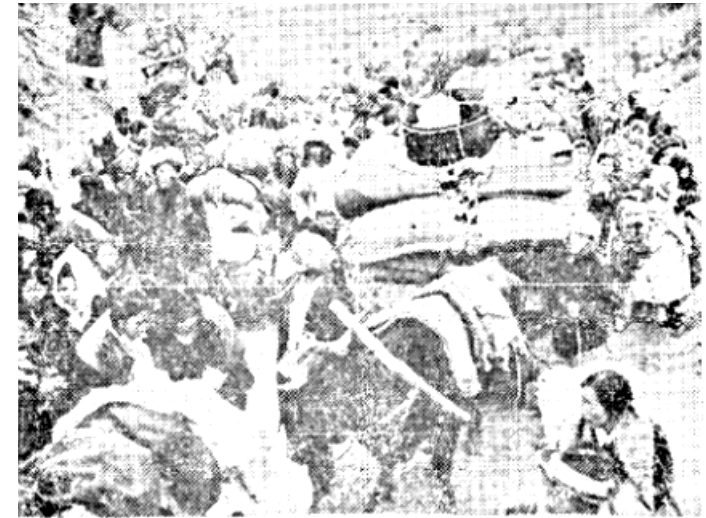
한마디로 말해서 공산주의의 역사 내지 공산주의의 발달사는 음모와 숙청과 침략과 파괴의 역사요 그의 기록이다.

침략과 파괴와 음모, 숙청은 공산주의의 본질적인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사실상 공산주의 국가가 성립하고 유지되는 것도 이 파괴성, 음모, 숙청, 침략성의 덕분인 것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한 이 세상에서 침략이란 말은 결코 소멸하지 않을 것이며 파괴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공산주의의 침략성과 파괴성의 발자취를 살펴보자.



〈공산괴뢰들의 무자비한 학살을 피해 자유를 찾아 남으로 내려가는 피난민들〉

침략성

소련의 국가목표는 궁극적으로 세계를 적화시키는데 있다.

그 외 공산국가들도 그들이 공산국가 내부관계에 있어서 맡은 바 역할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시 그들의 국가목표도 세계공산혁명을 완수하는데 두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공산주의는 세계평화달성이라는 전세계인민의 열망된 공통염원에 는 외면하고 세계적화를 원대한 기본목표로 삼고 있기때문에 대외적 국가활동이 필연적으로 침략적 제국주의적 성격을 띠우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의 침략성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와 비유할 수 있다.

즉 쥐라는 동물은 이빨이 하두 잘 자라서 조금만 이를 사용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이빨이 자라 인두(咽頭)를 뚫고 나가 쥐가 죽는다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쥐는 노상 무엇을 쫓지 않으면 그저 무엇을 씹는다.

이빨로 무엇을 자꾸 쫓고 깎아야만 쥐라는 놈은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다. 쥐가 무엇을 자꾸 씹어 이를

자라지 못하게 해야 살 수 있듯이 공산국가는 침략행동을 저질러서 긴장상태를 조성해야만 살아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누군가가 말했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침략행동을 조성시킨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대내적인 불안상태, 자체모순, 국민들의 불만들을 침략행위란 긴장상태를 조성시키지 않으면 이를 배출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침략행동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2차대전후 오늘날까지 침략을 자극 또는 국제공산주의의 가장 큰 사업으로 삼아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제2차대전후 그들의 본성인 침략성을 여실히 들어낸 아주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만을 골라 살펴보겠다.

한국침략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괴뢰는 북한에다 소련의 무력의 뒷받침으로 괴뢰정권을 수립한 뒤로 줄곧 남침준비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회를 엿보던 차에 1950년 6월 25일 새벽을 기해서 천추에 찢지 못할 민족적 대역을 범했다.

이는 2차대전후 공산주의의 침략성을 여실히 폭로한 최초의 역사적「케이스」다.

북괴는 아직도 625 남침이 자기네가 한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먼저 북침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공격명령서 제1호 1950년 6월 18일 평양에서 (1949년판 1:50,000지도 첨부)」와 「전투명령서 제1호 1950년 6월 22일 옥계리에서 (1949년판 1:50,000지도 첨부)」는 북괴의 침략계획과 그들의 우격다짐을 백일하에 폭로시키는 좋은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당시 주한「유엔」위원단은 자기 보고서에 625남침은 북한괴뢰에 의하여 신중히 계획되고 준비된 침략행위라고 낙인을 찍었던 것이다.

한국전쟁을 통하여 북한괴뢰는 수십만의 무고한 대한민국주민들을 학살했으며 수십억불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괴하였다.

한국에 대한 공산침략은 그들의 본성을 노증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공산주의의 비인간성과 잔인성 그리고

기만성을 적나라하게 만천하에 폭로시켰다.

한국에 있어서 공산주의의 침략행동은 1953년 휴전이 성립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휴전이 성립된 이래 금년 6월 30일까지 북한괴뢰집단이 2,275회의 휴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것만 보아도 충분히 이를 증명할 수가 있다.

「베트남」침략

공산주의자들은「호지명」을 괴수로 하는「베트남」공산주의자들을 사수하여 1946년「인도 지나」반도에서 반란을 유발시켰는데 1950년부터는 중공이 이들을 적극 지지하였다.

중공은 1949년 중국대륙을 장악한 후 월맹게릴라들에 대한 군사원조를 실시하여「화남」에「속맹」게릴라들에 대한 훈련과 보급을 위하여 기지를 제공해주었으며 여기에서 훈련된 군대가 결국「인도지나」에서 불란서군을 격파하여 1956년「제네바」협정으로 이끌어 간 것이다.

이리하여「베트남」은 북위 17도선으로 분단되어 이북은 공산지인「월맹」이 되고 이남은 자유월남이 되었다.

그러나 공산「월맹」은「제네바」협정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아 끊임없이 자유월남에 대한 침략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인도 침략

중공이 1959년「티베트」를 무력으로 병합하여 공산주의의 영토확장을 위한 침략성을 드러내더니 작년 9월 중공은 인도국경을 침범하고 인도의 영토를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하여 또다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적 근성을 보여주었다.

금반 중공에 의한「인도」침략은 1954년 6월 28일「네루」와「주은래」간에 이루어진 평화 5개원칙의 환상에 사로잡혀있던 인도지도자들과 공산주의에 대한 한가닥의 동정마저 가졌던 수많은 인도인들을 그릇된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였다.

중남미 침략

공산주의자들의 대중남미(對中南美) 침투공작은 근자에 와서 더욱 치열해졌다. 대표적인 것이「큐바」에 있어서의 침략행위다.

소련이「큐바」에서 침략행동을 실천에 옮긴 때는 1961년초부터다.

소련은「카스트로」혁명정권에 유혹의 손을 뻗쳐 발판을 닦아오더니 1961년 1월 미국이「큐바」와 외교관계를 단절하자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큐바」를 유도탄기지화하여 미국을 위협하게끔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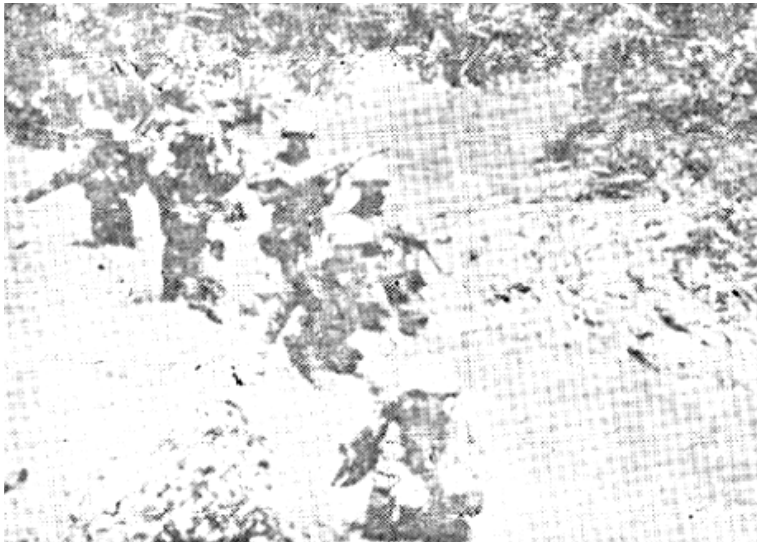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자 1962년 10월「케네디」대통령은「큐바」에 대한 해상봉쇄를 단행하는 등 미국의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소련은 미국의 힘의 정책에 놀려「큐바」로부터 원자무기를 철수시켜 소련의 약세를 전 세계에 노출시켰다.

기타지역에 대한 침략

동남아시아의「버마」,「라오스」,「캄보디아」서남아의「이라크」,「시리아」또「아프리카」의 아랍연방「가나」,「수단」,「리베리아」,「알제리아」그리고 중남미지역의「알젠틴」,「치리」,「부라질」,「멕시코」등지에 대한 공산침략행동은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

파괴성

전술한 바와 같이 파괴성은 침략성과 음모와 그리고



〈게리라 소탕작전(掃蕩作戰)에서 분투하고 있는 용사들〉

숙청과 더불어 공산주의의 본질을 이루는 것으로서 공산정권의 존립에 불가결의 요소로 된다.

공산주의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파괴가 그림자같이 따르게 마련이다.

공산주의의 이론자체가 벌써 파괴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공산주의의 이론의 3대구성요소의 하나인「푸로레타리아」혁명론에 의하면 사회주의(공산주의를 말함)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폭력이 불가결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1848년 2월 공산당선언에서 비롯하여「레닌」의「권력의 탈취」에서 재확인된 이래 오늘날까지 공산주의자들의 부동의 신조로 되어있다.

폭력이란 말에는 합법적 수속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합법적인 파괴행위란 말이 깃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이론 그 자체내에 벌써 파괴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파괴성이 공산주의의 본질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파괴는 건설의 기초」라고 역설까지 내세워 가지고 파괴행동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세계적화라는 그들의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침략이라는 것과 파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자유국가는 침략과 파괴를 악으로 간주하는데 반해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바와같이 공산주의자들은 국가를 성립케하고 유지케 하는데도 침략과 더불어 파괴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국가는 자유국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의사와 법에 의하여 성립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음모와 테로 파괴를 그 내용으로 하는 폭력으로 성립되고 유지되기 때문이다.

1917년 3월혁명과 1919년 11월 혁명때 소련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 농민들을 선동하여 공동 건물 기타 국가재산과 지주, 자본가재산을 마구 파괴토록 하였는데 이것을 효시로 공산주의하면 파괴주의로 통하게끔 되었다.

한국전쟁시기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의 파괴성을 똑똑히 목격하였다.

또한 북한괴뢰들의 대남방송에서 쉽게 공산주의 파괴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북한괴뢰는 4.19와 5.16을 전후해서 광적인 대남선전공세를 취하였는데 그 당시 평양방송은『학생들이여



교내를 박차고 거리로 나와 최고회의와 중앙청을 때려부시라』니 뭐니 하면서 덮어놓고 때려부시라고 선동했다.

이것은 공산주의의 파괴성을 잘 표현한 문구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극히 개관적이나마 공산주의의 침략성과 파괴성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우리는 침략성과 파괴성은 공산정권을 유지하는 데와 세계를 적화하는데 필수불가결의 요소란 것을 보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산주의자들은 세계도처에서 침략 행동을 도발하고 있으며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파괴행동이 쉬지않고 계속되고 있다.

공산주의가 존재하는 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침략행위와 파괴행위는 그치지 않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공산주의가 사라지는 날에야 비로소 우리의 생활주변에는 파괴, 음모, 숙청, 침략이란 말과 더불어 음모, 숙청, 파괴, 침략행위도 자취를 감출 것이다.

공산주의의 허위성(虛僞性)과 비인간성(非人間性)

-세계적화(世界赤化)를 노리는 그들의 속심을 파헤쳐 본다-



박재후(朴在厚)

〈육본 특전감실(陸本 特戰監室)〉

1.

공산주의는 그 외모에 있어서 민주주의인 것처럼 가장(假裝)하지만 기실(其實)에 있어서는 소위 유물주의사상(唯物主義思想)을 앞장세워 단계의식(階級意識)을 조장하고 무자비한 투쟁을 강행하여 결과적으로 전세계 인류를 적색노예(赤色奴隸)로 만들려는 마물(魔物)인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사회가 몰락하여 공산주의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한다고 광신(狂信)하면서 권력의 독점을 꾀하는 세계적 음모운동이며 정치적으로는 공포와 대중기만(大衆欺瞞)에 의거하고 경제적으로는 집산주의(集産主義)이며 사회적으로는 전체주의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다. 공산주의가 공포와 대중기만에 의거하여 권력의 독점을 꾀하는 세계적 음모운동이라는 것은 공산주의의 시조(始祖)인「칼·맑스」와 그의 후계자들의 입을 통하여 세상에 밝혀진지 이미 오래다. 「맑스」는 공산당 선언에서「우리들의 목적은 다만 현존하는 사회조건을 폭력으로 전복(顛覆)함으로써만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레닌」은「합법적인 일은 비합법적인 일과 결합되어야 한다……「부르조아」의 회의 법령에 대항하여 조직적이고 전면적인 비합법적

운동을 하지않는 당(黨)은 반동분자(反動分子)와 무뢰한(無賴漢)의 당이다』라고 말하였다. 또「스타린」은 그의 저서『레닌주의의 기초』라는 책에서『혁명주의자들은 개량을 용납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합법적 운동에 비합법적 운동을 연결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대중의 혁명적식을 강화하는 비합법적 운동의 음폐물(陰蔽物)로 사용하기 위하여서다. ……「부르조아」국가의 의회활동이나 선거는 모두 희극배우와 같은 공론가가 하는 일이다. 공산계급의 독재를 실현케 할때 중요한 정치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선거가 아니라 내란(內亂)이라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공산주의가 그 외모에 있어서 민주주의인것처럼 가장(假裝)하고 있지만 기실(其實)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찬 선전과 무자비한 투쟁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궁극의 목표인 세계적화(世界赤化)를 실현시키려는 마물(魔物)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말이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 자신이 주장하는 공산주의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인바 현대는 자본계급과 노동계급의 투쟁시대이다.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는 노동자들의 잉여노동을 착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가들의 부는 점점 독점 집중되고

노동자들의 빈곤은 더욱 심해 간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몰락은 필연적이나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폭력혁명으로써 이것을 타도하고 계급도 없고 사유재산도 착취도 없으며 나아가서는 국가조차 없는 공산세계를 실현해야 한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올바른 길이며 따라서 이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정당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공산주의자들은「맑스-레닌」주의만이 옳고 다른 모든 사상이나 주의는 모두 잘못이라고 배척한다. 그러나 실제 역사를 통해서「맑스-레닌」주의의 불합리성과 비과학성 그리고 허위성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2.

「맑스」가 공산당선언에서 자본주의사회가 몰락하고 공산주의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한다고 말한지 백십여년이 지났지만 자본주의사회는「맑스」의 예견대로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회곡절(迂曲折)은 있을망정 새로운 부강(富強)의 길을 전진하고 있다.「맑스」의 학설에 의하면 사회주의혁명은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하고 노동자가 가장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련, 중국, 북한, 기타 공산위성국들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가장 후진적이고 노동자가 아니라 농민이 압박적인 국가들에서 특히 전쟁후의 혼란을 틈타서 강압적으로 공산혁명이 수행되었다.

그리고「레닌」은 그가 쓴「제국주의론」에서 자본주의제국은 식민지를 착취하고 그곳에서 흡수되는 초과이윤(超過利潤)으로서 국민경제의 조건을 향상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노동자계급의 상태가 좋아졌다.

다시말해서「자본주의제국은 식민지를 착취하는 기반위에서 자본주의가 이루어지고 노동자들이 매수되는 조건으로 잘 살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레닌」의 이러한 논법대로 한다면 식민지를 가지지 않는 자본주의국가는 발전할 수 없으며 또 제2차대전 이후 식민지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한 자본주의제국이 어떻게 하여 국민들의 생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더 잘 살게 만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게 만들었다. 가령 북구라파제국(北歐羅巴諸國)을 보면 식민지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해오고 있고 또 독일은 제1차대전으로 인해서 식민지를 상실하고 제2차대전으로 큰 타격을 받았지만 자본주의는 날이 갈수록 번영해오고 있고 노동자들은 그들의 생활수준을 더욱 높게 향상시키고 있다.

뿐만아니라 가까운 예로서 일본을 보더라도 이것이 증명되고 있다. 일본은 제2차대전이후 국민소득이 날이갈수록 점가(漸加)하고 노동계급의 생활수준은 식민지를 상실하기 이전보다도 훨씬 더 향상되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을 매겨(枚擧)하자면 한이 없지만「맑스-레닌」주의는 이처럼 현실을 통해서 부정되고 실증(實證)이 따르지 못하는 가설(假說)이 되고 있다.

한편「맑스」는 공산주의사회가 도래하면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공급을 받으며 인간에 의한 수탈이나 압박은 영영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소련을 비롯한 모든 공산권내의 사회실정은 이와 정반대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단일기업주의 행세를 하는 공산당간부들은 호의호식(好衣好食)과 사치를 위해서 많은 돈도 쓰며 그들의 자제(子弟)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도 마련하며 훌륭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일반근 로대중인 노동자 계급은 헐벗고 굶주리며 자유없는 그날그날을 허덕이며 살고 있다.

지금 공산치하의 노동계급은 능력에 따르는 일과 수요에 따르는 공급을 받기는 고사하고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일절의 재산과 생산수단을 공산당에 빼앗기고 노예노동자로서 그날그날을 보내고 있는 북한동포의 생활실정이 잘 증명하고 있다.

일찍이 「맑스」는 자본가를 공격하면서 그들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3대방법을 노동시간의 연장, 노동강도의 강화, 임금의 저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김일성 일당은 그들의 교조(敎祖)인 「맑스」의 말 그대로 북한동포들을 착취하는데 역용(逆用)하고 있다. 요컨대 북한에는 농민과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지주(地主)와 자본가가 없어진 대신 김일성 일당을 기업주로 하는 독점자본가가 나타나서 유례없는 혹심(酷甚)한 착취가 전면적으로 감행되고 있다.

따라서 「맑스」가 공산주의사회가 도래하면 특권도 계급도 빈부의 차이도 소멸될뿐만 아니라 능력에 따르는 노동과 필요에 따르는 공급이 실현된다던 예언은 완전히 공론(空論)으로 돌아갔다. 「맑스-레닌」주의는 이제 현실을 통해서 부정된 일개 박물관적 고전에 불과한 것이다.

3.

실제 역사를 통해서 「맑스-레닌」주의가 한개의 공론주의이며 기만주의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은 그것만이 영원히 진리이고 그 이외의 것은 모두 말살되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맑스-레닌」주의만이 옳고 다른 모든 생각이나 주의를 모두 잘못이라고 배격하는 것은 그들이 공산주의를 광신(狂信)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에 대한 광신은 반인간성과 직결된다. 공산주의사회에서는 참다운 의미의 산 인간이란 있을 수 없다. 여기에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당원(黨員)과 비당원(非黨員)이라는 것이 도매금(都賣金)으로 계량되고 있을 뿐이다. 공산주의사회에서 비당원이 구실을 못하는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당원중에서도 최고급당원들은 공산사회 특유의 새로운 신계급으로서의

미증유(未曾有)의 특별귀족 노릇을 한다. 그러나 일반당원과 비당원은 오직 당의 명령에 따라 죽도록 일만 해야 하는 노동기계에 지나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는 자유주의와 함께 「휴머니즘」을 당정신에 방해되는 것이라하여 배격한다.

공산주의사회에서는 당적 통제와 정치권력의 만능이 경제면에서 뿐만 아니라 일절 사회생활 분야는 물론 개인의 모든 거동을 비롯해서 심지어 뇌리활동의 구석구석까지 놓치지 않는다.

그들이 소위 「당앞에 제기된 과업」이라고 부르짖는 이른바 사상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매개인에게 공산주의적 세계관과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을 주입시킴으로써 모든사람을 「새로운 형(型)의 인간」으로 개조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새로운 형의 인간」이란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즉 공산주의외에는 생각하지 말고 공산주의외에는 배우지 말고 공산당이 명령하는대로 일만할 줄 아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오늘날 김일성 일당은 사상사업이니 혹은 집중지도라는 명목으로 개성이 없이 단일화되고 규격화되고 통제된 붉은 사람을 만들려고 광분(狂奔)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형의 숨쉬는 기계인 것이다.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북한농민들〉

공산주의자들의 정체가 바로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공산주의의 흥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국을 팔고

민족을 반역하고 자기동포들을 살상하기 조차를 꺼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에 김일성 일당은 6.25전란을 감히 도발하고도 그 죄상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라는 것이 사술(詐術)과 기만(欺瞞) 그리고 불법행위와 진실의 엄폐(掩蔽)등의 수단으로 세계를 적화하고 세계인류를 공산노예로 만들려는 마물(魔物)이라고 다시한번 규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공산주의의 기만적인 허위성과 그 비인간성을 똑똑히 알고 공산주의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겠다.

◇ 위대한 간결주의자

캐나다의 신문기자「윌리엄·스티븐슨」은 그의 저서「황풍(黃風)」(1959년 출판)에서 토팩동을 다음과 같이 풍자했다.『현세계의 과학적 지식이 없는 모(毛)는 그의 단편적 지식을 기초로 일체를 단순화 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때문에 그는「위대한 간결주의자」(Simplifier) 이다』

〈P55에서〉

안국사(安國寺) 범어사(梵魚寺) 쌍계사(雙溪寺)등의 대웅전(大雄殿)등이 있으며 화엄사(華嚴寺) 각황전(覺皇殿)은 그 규모의 거대함으로 유명하다. 또 법주사(法住寺) 팔상전(捌相殿)은 5층, 금산사(金山寺) 미륵전(彌勒殿), 쌍봉사(雙峰寺) 대웅전(大雄殿)은 3층 건물로 우리나라 목조탑을 고찰하는데 중요한 유구(遺構)이다.

이밖에 사고(史庫)·객사(客舍)·건축과 유교의 융창(隆昌)에 따라 서원(書院), 문묘(文廟)건축등이 있으며 우리나라 건축사에 중요한 자료가 되어있다.

석조건축에는 극히 소수의 석탑이 있고 그중 원각사(圓覺寺) 다층석탑(현재 파고다공원소재)은 경천사(敬天寺) 다층석탑을 충실히 모방한 것으로 둔중(鈍重)한 느낌이 없지 않으나 당대의 최고우작이다.

결론

이상 우리나라 건축에 대해 약설(略說)하였으며 근세로 부터 현대까지의 건축에는 완전한 한국건축이라 할 만한 작품을 보지 못하고 특히 최근의 의장(意匠)은 한국건축속에 흐르는 일관된 정수(精髓)를 파악 못한 외국의 모방이 대부분임을 슬퍼하며 이 고(稿)를 끝이겠다.

동남아세아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외교정책 (상)

-과거의 대동남아 외정(外政)을 중심으로-



손병식(孫秉植)
〈아세아반공연맹 섭외부장〉

동남아세아 국제사회의 주요구성원의 하나인 한국이 동남아 인방제국(隣邦諸國)에 대하여 정치적 고려와 이의 뒷받침이 되는 경제유대 그리고 문화교류를 위한 문화외교를 실효적으로 전개하면서 적극 접촉하여야 된다는 것은 국가적 상황판단면에서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목 차

1. 동남아세아의 정치노선
2. 정치적지위와 식민지민족주의
3. 불란서의 동남아세아정책
4. 전후 영국의 동남아세아정책
5. 미국의 동남아세아정책
6. 한국의 대동남아정책

과거에 있어서 적극반공을 국가의 기본목표로 하고 있었던 한국의 정치상황으로서 반공정체(反共政體)의 몇몇 우방을 제외한 여타 동남아 중립주의제국과의 접촉이 몹시 불안하고 또 용이치 아니 하였음은 수궁이 간다. 그러나 우리들의 동남아발전책이 국가적 이익과 국민생활의 번영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장애를 제거할 외교노력이 웅당 강구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전후 일본만 하더라도 남진주의(南進主義)를 강력히 제창하고 전후 재흥(再興) 동남아세아에 경제적 침투를 목표로 하여 일부지역에 있어서의 전후배상 문제의 자진변상이라든가 합병형태에 의한 기술협력 경제개발계획 투자 등등 각양의 형태로서 움직임을 보였는가 하면 정치적으로는 남진외교정책의 회흥(恢興)을 적극 꾀하였던 것이다.

타방 특이한 아세아적인 제도방식에 대한 이해상의「해디캐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대전후 동남아의 세계정치에 있어서의 비중성과 동남아세아가 가진 전략적 경제적 역할의 중요성을 발견한 미국을 비롯한 구라파제국의 대 동남아접근정책도 경제 군사적 원조를 위시하여 이념적인 원조등 각가지 지원형태로써 원조경쟁에 광분(狂奔)하였다.

이러한 국제 정치분위기속에서 한국의 대동남아 외교활동은 전 이(李)대통령의 외교전단(外交專斷)으로 반일(反日) 향미(向美) 일변도의 외교와 국련가입 문제만에 몰념하여 대동남아정책에 있어서는 적극적이고 종합화된 그리고 아무런 결정적인 정식화된 정책구상이 없는 모 순된 현상을 나타내게 하여 일 반은 장래의 불급지환(不及之患)이 우려되는 바 없지 않았다.

필자는 수년간 복무한 이 지역에 있어서의 견식을 토대로 해서 동남아의 내적 외적 발전의 경과를 분석하고 지리적인 여건 공통되는



허다한 이해관계를 가진 동남아정책에 대한 지난날의 구정권의 그릇된 방관적 소극정책과 동남아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방치정책을 평가하여 앞으로의 반성의 색재(索材)를 마련코져 한다.

516혁명후 현정부가 외교정책의 지도적인 원칙을 치밀히 재평가하고 동남아제국을 중심으로한 다각적인 외교정책을 책립하여 동남아제국과의 교린(交隣)에 있어서도 재래의 고립외교정책을 근저(根底)로부터 수정하여 국제적고립을 면하는데 실효를 거두게 된 것은 실로 다행이라 하겠다.

물론 앞으로도 대동남아외교정책의 책정에 앞서 우선 동남아세아의 독자적인 길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1. 동남아세아의 정치노선

동남아세아는 면적상으로는 아세아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그리고 인구에 있어서는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의 자원분포와 정정(政情)의 추이는 아세아의 장래, 더 나아가서는 금후의 세계대세를 좌우하는 입장에 있고 더욱이 대전후의 아세아의 정세가 계속 동요하고 자유, 공산, 중립의 3세력이 서로가 지도권장악을 다투고 각기의 세력범위에 소장(消長)을 가져오면 가져 올수록 동남아세아의 귀속은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판단된다.

제2차세계대전후 국제정치의 무대에 있어서의 동남아세아의 정치사정은 혼란과 분규상태에 놓였다. 미소(美蘇) 양「뿔력」의 압력과 유혹 등등.

동남아세아에는 아랍연맹에 있어서와 같은 종교적 응집성도 또한「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와 같은 문화적 일률성도 발견할 수가 없다. 동남아세아의 최대공약수는 수세기에 걸 친 서양에의 정치적 경제적종속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동남아세아의 제민족은 이러한 종속관계를 떠나서 주권적 지위를 대상으로 하지않고 민족적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제관계수립을 회구(希求)하고 있다.

동남아세아 제국이 미국과 소련 양「뿔력」의 어느 한 쪽에 이끌리는 그 정도와 속도에 따라 허다한 미결의 문제 즉 아세아적 제문제는 좌우된다고 하겠다. 만일 동남아세아가 중립주의 인도를 그 범례로 하여 본다면 인도가 서방「뿔력」과의 제휴를 계속한다고 하면 그반대급부로서 수혜원조액과 양도 자연 이에 따라서 증가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은 반면 반공공동전선의 결성이 선행되고 민족독립의 달성과 경제개혁의 완수가 결국 2차적인 것이 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 그리고 또 내전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 이유로는 서방과 결속되는 집단은 민족의 이익을 서방열강의 이기적 이해(利害)의 희생이 될 것이라는 시의심(猜疑心)을

갖게 될 것이므로, 그렇다면 가사(假使) 동남아세아가 소련의 궤도(軌度)에 따르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필경(畢境)에는 급격한 국내경제의 개혁이 단행될 것은 틀림 없을 것이므로 이것 또한 내란유발의 불안이 있다.

동남아세아에 있어서의 현재의 독립투쟁의 중핵체(中核體)로서 지도적입장에 있는 민족주의자 내지 사회주의자의 제정부는 다만 반대자가 불통일(不統一)을 계속하는데 존립의 희망을 걸고 있는 데 불과하다. 우익에는 영국, 불란서 그리고 화란 등의 열강외국 및 국내자본가와 이외에 봉건귀족이 있고 좌익에는「스타린」주의와「토록키」주의자가 있다. 이들은 민족주의자 내지 사회주의자의 정부와 그리고 소위 그들이 말하는 제국주의자에 반항하는 점에 있어서 그들의 적수를 타도하는 시기와 방법등에 각기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동남아세아의 노선이 미국 소련 양「뿔럭」의 어느 쪽을 좇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재적조건으로나 외제적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인민의 대다수는 문맹이고 정치적으로도 그다지 깨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며 거기에는 그들의 대부분은 다만 그날의 일상생활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수의 지식층에 있어서 까지도 인물이라는 것이 적대파의 강령의 차이보다도 중시되고 있는 형편에 있다. 실제 인도만 하더라도 자주적으로는 정신적 문화적 지도이상의 것은 기대할 수 없고 보면 결국은 동남아세아는 미국 또는 소련「뿔럭」의 어느 한 편에 의지하지 않으면 아니되며 이는 더욱이 자본의 결핍과 빈약한 기술은 외부원조의 획득이 불가피한 것이다. 눈뜬자들의 염원은 민족주권과 민족통일에 있으며 이 두가지 교망(翹望) 가운데서도 민족독립이 가장 열렬한 것이며 제1차세계대전과 2차대전간의 중간기에는 민족운동이 동남아 전역에 파급되었고 그 이상은 바로 민족독립이었으며 말하자면 헌법과 폭력의 어느것에 의할 것인가에 의견의 다른 점이 있었을 뿐이었다. 민족통일의 요구와 필요성이 급격히 전면화된 것은 역시 2차대전이후에 있어서이다. 더욱이 민족독립과 민족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방법 이외에는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일본이 강복한 뒤 식민지에 대한 본국의 행동에 의해서 일층 굳게 되었다.

전후 동남아세아의 공산당은 주권의 경제면을 중시하고 영국이「버마」나 인도에 부여한 것과 같은 독립은 제국주의의 함정이며 기만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외쳤으며 식민지에 대한 정치적으로도 단순히 그의 일시적 약화로 인한 부득이한 후퇴이며 그 실 경제적 군사적 구축을 유지하려는 저의의 위장에 지나지 못한 것이라

고 어데까지나 악의적인 선전을 자행하고 있다. 그리고 민족통일 문제만 하더라도 표면적으로는 아세아문제로서 고려되고 있으나 그 중요면에 있어서는 특히 동양인 소수민족문제로서 취급되고 있는 듯 하다. 이 소수민족문제의 현실이야말로 말로 강렬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비난의 초점은 말하자면 저렴한 노동력의 필요로서 이 지역에 대량적으로 중국인과 인도인들을 이입하여 그 후에는 강력한 공세적인 민족주의자에 대한 균형세력으로서 각인종적 소수민족을 지지케한 데 있다는 것이다. 즉 금일의 버마정부에 대한「가렌」족의 반란 그리고 또 미래(馬來)에 있어서의 중국인대 마라인사이의 불화의 배후에는 분할통치라는 구식의 식민지 지배원칙이 역추되고 있다. 그 구체 예로서는 불란서의 교趾지나공화국(交趾支那共和國) 신설과 화란의 인도지나(印度支那)의 자치주화(自治州化) 사주(使族) 등이 있다. 이 분리주의야말로 제국주의자의 책모라고 보고 있다.

2. 정치적지위와 식민지민족주의

종전을 시점으로 하여 동남아세아에 전개된 민족해방투쟁이 분할통치 간접 지배 복합사회 그리고 단일생산을 비롯한 동화주의등의 대원칙아래 수세기에 걸쳐 마음껏 누리고 오던 불란서를 비롯하여 영국 화란 등 서구열강의 철저한 식민지 지배에 대격동을 이르고 급기야 동남아세아의 식민지체제의 완전 붕괴를 가져오게 하였다.

동남아세아전역에 걸쳐 집중적으로 지배된 서구열강의 식민지통치에 일찌기 중국의 혁명가 손문(孫文)씨는『동남아인은 한 나라의 식민지가 아니고 여러 나라의 식민지이며 우리들은 단지 한나라만의 노예가 아니고 여러 나라의 노예이다』라고 술회한 것을 보더라도 그 참식(蚕食)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동남아세아에 있어서의 서구식 특유의 식민지정책은 현주민과 통치자 즉 토민과 식민지주자간에 엄연하고 확연한 선을 긋고는 토착문화의 발전과 민족향상을 방해하고 자주적 민족의식을 철저히 억압하였다.

한편 제2차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외교정책을 전구(前驅)로 군사정책을 중건 경제정책을 후진으로한 동아대륙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은 남진주의정책에 박차를 가하여 소위 대동아 공영권이란 미명아래 동남아제민족의 반식민지적주의를 극력 선동하므로써 그 외적자극으로 동남아세아로부터 서구열강의 식민지세력을 구축하여 영도권장악(領導權掌握)을 획득하였던 것이다. 당시의 일본의 이같은 책략은 귀일컨데 현주민들의 진실한 민족행복을 위한 것도 결코 아니요 기속(羈束)으로부터 해방시킬려는 것도 아닌 고쳐말해서



〈국민의 환영을 받는 자유월남의 반공 전사들〉

같은 유색인종이라는 종족적조건을 이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존심과 신뢰감을 갖게하여 풍요한 천연자원 탈취를 위한 한 방편에 불과한 선의보다도 공리(功利)가 앞선 침략적 야망에서이다.

현행의 한일회담처럼 장기에 걸친 협상이 있는 후(1956년에 시작) 59년 5월에 야 비로소 그 성립을 보게된 월일배상협정체결(越日賠償協定締結)에 있어 오(吳)대통령이 모국(某國) 외교사절에게 그 소감을 말한 가운데서 2차대전중 일본군벌은 서구제국의 식민지배행위이상의 탈취와 만행을 인지(印支)각처에서 자행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는 증오에 찬 대일감정을 토로한바 있는데 이와 같이 일국의 원수가 특히 신중을 기하기로 이름난 그가 자국주재외교관에게 제3국의 소행을 이처럼 노골적인 언사로서 비난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아세아의 대합작이란 구호아래 동남아세아 제민족의 해방을 절규하면서 제국주의적 팽창에 광분한 일본의 동아대륙점령 정책의 폭학(暴虐)에 함음(啣音)한 동남아제국민은 같은 유색의 아세아민족에게 제어되고 박해되었다는 데에서 더 한층 분노와 굴욕감을 품고 있다.

그런가하면 반면에 비율빈(比律賓) 인도지나(印度支那) 마래(馬來)「세레베스」신가파(新嘉坡)「자바」「수마트라」그리고「버마」등지를 점종적(接種)으로 순식간에 점령하고는 별시(暫時)동안이었으나 서구열강의 식민지세력을 동남아 전역으로부터 구축하고는 대신 그들의 위세를 당당히 과시하였으니 서구민의 제어에 억압되어오던 동남아의 일부 우둔한 K민족주의자들은 자주를 위한 수단으로 일본에 협력하고 그들의 진출을 환영하여 전쟁수행의 성공을 기대까지한 자들도 있었다. 이러한 친일배들 중에는 현공산월맹의 호志明(胡志明) 인도네시아의「스카루노」그리고「하타」가 영도(領導)하는 민족주의자들이었다.

일본의 동남아진출남하정책은 군사점령의 가혹한 통어(統御)와 가랄(苛辣)한 약탈로 민심수렴(民心收攬)은 완전 실패로 돌아가고 현주민의 증오감이 극도에 달하였으나 한편 태평양전쟁을 통하여 선악의는 고사하고 동남아세아의 제민족에 새로운 길을 열게 한것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좀더 부연(敷衍)해서 일본의 남진으로 강렬한 반제국주의 반식민지주의사상의 부식(扶植)과 자주독립달성에 큰 자극이 되어 서구열강의 식민지체제는 그 복고의 기회를 되찾을 수 없게 되었다.

제2차대전이 끝났을 때 동남아세아의 정치상황은 진공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 공백을 메운 것은 주로 전시중의 여러 항일단체들이며 이들 가운데에는 민족주의단체도 있었고 공산주의단체도 섞여 있었다. 특히 주목할만 한 것은 이 단체중에는 항일단체뿐만 아니라 친일적민족주의자로 일본에 적극협력한 집단체도 있었다.

요컨대 동남아세아의 민족해방운동자는 그 근거를 항일조직에 두고는 이 조직을 그대로 연장하여 식민지주의의 복귀에 대한 저항운동을 전개하였을 뿐 아니라 서구식민지주의자들의 무력행사에 대항하는데 있어서도 이 조직체로 하여금 저항케하고 독립획득으로 지향하였던 것이다.

3. 불란서의 동남아세아정착

완강한 저항운동을 거쳐 자주의 기초를 확립한 것이 인도지나(印度支那)이다. 종전과 더불어 인민민주주의의 호志明(胡志明)정권이 조직되어 소위 Viet-Nam 민주공화국의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불란서는 이 정권을 승인하지 않고 1949년 7월에 Bao Dai 政 권을 옹립하여「라오스」와「캄보디아」를 합쳐 불란서연합을 결성하였으므로 북Viet-Nam[월맹(越盟)]은 불란서로 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버렸다. 이래서 월맹은 불란서의 권력과 투쟁하기 위하여 대규모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게릴라부대를 조직하였던 것이다. 불란서정책은 그의 보호하에 독립적인 Viet-Nam인의 권위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으므로 Viet-Nam에는 오랫동안 공산주의가 아닌 실질적인 민족주의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중국내란에서 공산주의자가 승리하여 인도지나의 국경에까지 그 세력이 뻗치게 되지 못하였더라면 불란서는 Viet-Nam 북부와 남부에 있어서 대성공을 거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가서는 Viet-Nam을 파쇄함에 성공하였을 것으로 본다. Viet-Nam에 있어서의 호志明(胡志明)의 결정적인 승리는 공산진영에 불란서로 하여금 인도지나의 일부를 양도케한 결과가 되어버리고 40만이라는 적지않은 전투원의

투입까지 한 불란서의 식민지 지배에 치명상을 입혔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 오게한 원인은 불란서가 2차세계대전후의 격동기에 있어 현실주의적 외교술 책을 강구한 영국과 같은 명석한 통찰력이 결여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동화주의와 분할통치 이 양대원칙을 기조로한 식민지정책에 수정을 가하지 않고 줄곧 식민지지배에 맹목적으로 집념을 가진 나머지 당시 팽배히 태동된 민족운동을 경시한 외경차질에서이다.

불란서는 호(胡)정권을 승인하지 않고 Bao Dai, 라오스, 캄보디아로 된 불란서 연합결성으로서 인지(印支)에서 불란서 권력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우둔한 책동을 기도(企圖)하였으나 결국은 불인전쟁(佛印戰爭)에서의 참패에 따른「제네바」정치회의의 결과로서 체결된 불명예의 휴전협정의 소산인 17도선을 경계로한 월남북의 분할선만을 남겨 놓았다.

「베트남」인민민주주의정권의 호志明(胡志明)에 대항하기 위해서 불란서가 그의 적극적인 지원으로서 웅립한 Bao Dai 정권의 뒤를 이어 수립된 월남공화국 오(吳)정권이 불란서의 구라파식 분할통치정책 아집에 완강히 항거하여 극반불주의(極反佛主義)의 기치를 올리게 되 었으니 인도지나에 있어서의 불란서의 지위는 완전히 붕괴되고 그의 권위는 여지없이 땅에 떨어졌다. 말하자면 소위 인민민주주의정권의 호志明과 자유공화세력의 오(吳)정권 이 양 지 도세력에 항배된 불란서는 인도지나에서 쫓겨난 셈이 된다.

솔직히 말해서 불란서는 지난 날의 식민주주의에의 복귀에 대한 집착심보다 즉 오히려 경제적인 목적 이외의 정치적 군사전략적인 의미에서 특히 국제정치면에 있어서의 동남아세아의 가치성에 탐을 내고는 그의 새로운 형태의 지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대월남공화국 재정금융청산문제라든가 기타 양국간의 분쟁중인 처리문제에 관한 외교교섭면에 있어서 거의 최대한의 양보를 하는등 온갖 성의와 열의를 보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전후 동남아세아의 신래자라고도 불리울 수 있는 미국의 인지진출로 대인지 적극지원 원조정책에 불란서는 적지않은 질투심으로 광범한 경합적인 기술원조 차 관 그리고 경제개발과 기술협력계획을 위한 증여 또는 농지특별증여 등등의 각가지 지원형태에 의한 원조 공여로서 과거 오랫동안의 중주국으로서의 체모(體貌)를 계속 보지(保持)하려는 고심이 역연하다.

4. 전후 영국의 동남아세아정책

제2차세계대전후의 영국의 아세아정책은 동남아세아에 있어서의 그의 퇴조를 찰지하고 외교방법도 실리주의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주의

적인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과거 23세기에 걸친 그의 영토적 침식에 대한 아세아제국의 민족적 반감을 씻어버리기 위하여 아세아제국 자체의 정책 혹은 태도에 될 수 있는 한 부응함으로써 대영제국의 일방의 혈로를 이곳에 찾아 보려고 하였던 것이다.

불란서가 동화주의와 분할통치의 2대원칙을 기조로한 식민지정책을 전후에도 아무런 수정함이 없이 공연히 국제간에 흥정에만 전정력을 기울이고 인지(印支)에서 불란서권력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려던 우둔한 착각으로 처처에서 비등된 민족운동열을 경시하고는 그가 남긴 모든 권익이 토봉화해된 불란서정책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 하겠다.

영국은 2차대전까지 그가 영유하였던 일부의 식민지를 비롯하여 반식민지적 지배하에 있던 태국 등이 대전에 의하여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는 극도로 격한 민족해방투쟁의 정치현상에 부닥치자 그의 제국주의적 식민지지배의 지속이 불능함과 또 자리(自利)에 부합되지 않음을 깨닫고 이들 예측제국을 부득이 형식적이거나 독립시킴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자국 세력권에 머물게 하여 소위 Common wealth적 체제의 규범내의 독립을 허용하는 실리주의적인 구체책을 마련한 그의 노회(老獪)하고도 명민한 영국 독특한 유의(流儀)의 정책구상은 그 중점과 방향이 일정하고 일관적으로 전개되어 결국에 가서는 동남아세아에 있어서의 영국의 새로운 발판을 구축하는데 적지 않은 비익(裨益)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영국의 동남아세아정책은 본질적으로는 경제전진지에 입각된 방위적이라 할 것이다. 왕년의 제국주의적식민지지배에 의하여 축적한 특수기득권의 손실을 최소한도로 이를 방지할려는 교육의 책이라고 할까 여하튼 노대국다운 간접적 효과를 노린 선견지명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영국의 동남아정책에는 미묘한 대미주모(對美籌謀)가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도 묵과할 수 없다. 제2차세계대전중과 전후를 통하여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그의 관심을 중점적으로 집중하게된 미국의 진출에 대한 견제책이 바로 그것이다.

구영령(舊英領)을 포함한 기타 지역에 대한 미국의 비약적인 경제개발 특히 원조공세가 노대국 영국의 크나큰 불안감과 고뇌가 아니될 수 없다. 기왕의 식민주의국가들에 대한 악평에 편승하여 미국이 대신 등장하여 자리잡고 세력확장에 이르게된 현실을 체시하고 영국은 그의 종속제국들의 극도로 고조된 주권의식에 직면하자 식민지지배를 이상 더 지속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는 그의 궁계로서 모든 영유국으로 부터 자발적으로 일단 후퇴하여

자치와 독립을 허여(許與)한 연후 다시금 이를 배후로부터 결집시켜 연방체제로 재편성함으로써 미국의 대동남아세아 진출정책에 대처하여보자는 것이 그의 숨은 의도이다. 예증으로서 영국은 1950년에「코롬보」계획을 발안하고 동 계획에 의하여 Common wealth의 재편성을 획책하였다.

이「코롬보」계획의 주된 목적은 원칙상으로는 아세아저개발제국의 경제개발 촉진을 위한 국제종합 원조조직체로서 그 기능을 규정할 수 있으나 그의 궁극적 동기는 원조협력이상의 고답적(高踏的) 정책면에서 구상된 것이라 하겠다. 첫째로는 전후에 있어서 Common wealth 체제의 재편에 의한 그의 유산의 방위로서 구영령(舊英領)에 있어서의 영국의 입장을 부활하려는 것이 그의 솔직한 심산이며 둘째는 미국의 진출에 대한 억제이며 영국은 미국의 적극적인 원조정책에 극도로 질투하고 있다. 끝으로는 일본을 비롯한 기타제국이 그가 가진 실력이상으로의 경쟁력을 경계하고 그 진출을 견제하려는 등 제점(諸點)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이면적인 동기와는 달리「코롬보」계획 참가제국의 경제개발에 의하여 이들 제국을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비호하고 광구하려는 의도도 다분히 고려되어 있으나 영국이 동남아세아에 있어 공산진영에 대항하여 이를 제압함을 그 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는 미국처럼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신경과민적인 공포감이라든가 극단의 증오감을 갖고 있지않고 현실주의에 입각하여 경제적 실리만을 추구하고 국제정치에 적응하려는 영국의 정치적현실로 이루어 볼때 이는 어디까지나 차원적인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

굴신성(屈伸性)에 찬 그리고 일견 진보적인 영국의 동남아진출정책은 확실히 고답적(高踏的)인 거조(舉措)라 하겠다.

자본주의적 수탈유지와 식민지 지배에 맹목적으로 아집한 나머지 오히려 자국의 모든 기득권을 완전히 상실케한 결과를 가져 오게한 인도지나에 있어서의 불란서에 대비하여 영국은 정반대로 정치적총명으로 식민지주의의 청산을 비교적 과감히 함으로서 그 대신 연방제국의조세협력을 획득함에 성공하였다는 사실은 오로지 선견적인 조치에 대한 필연적인 소산이라고도 하겠다.

제국주의적 식민지주의국가와 식민지종속국간의 반목이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지배민족으로서의 격해졌던 반영감정은 오늘날 거의 가라앉고 오히려 그가 남긴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향상에 대하여 옛종주국의 위대성을 존중(尊崇)하고 있는 현상으로 연계는 더욱 긴밀히 맺어지고 있으며「코롬보」클럽으로서의 대영 공동동작의 태도는 금후 영국의 동남아세아경제세력 신장에 엄연한 기반을

이루게 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년전에 필자가 인도-태평양수산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세이론·코롬보」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마침 기시(其時)「세이론」국립대학졸업식이 있어 각국 대표들과 함께 초대되어 식전에 참여하였다. 동식전에서 문교상(文教相)이나 대학당국자나 기타 각계 지명인사들은 거의가 다 극친영적인 내용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들이 자치령화된 오늘날 이나라의 지도층이며 지난날의 열렬한 민족독립운동가들이었던 만큼 관심깊게 듣고 있던 각국 대표 특히 서구대표들에게는 기이한 인상을 주었다.

5. 미국의 동남아세아정책

전후 동남아세아의 국제적지위는 급작스럽게 높아지고 동남아세아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는 전략적 가치에 있어서 차기 세계의 큰 역할을 하게된 입장에 놓이게 되었으니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동남아세아정책에 대하여 관계각국은 서로가 다른 방식과 수준을 두고 있다. 그것은 필경에는 대전후 동남아세아에 있어서의 국제정치적의의의 변화 특히 동남아를 위요(圍繞)한 자유, 공산 양 진영의 새로운 정책의 전개등으로 결정적인 의의를 갖게 된 것이다. 더우기 제2차세계대전의 여파를 받은 역사상의 우발사건에 의하여 동남아세아의 대부분의 지역에 절대적인 위망(威望)을 가진 지위에 놓이게 된 미국은 동남아세아에 직면하고 있는 제문제를 어느때 보다도 가장 신중한 관심과 고려로서 광범위한 동남아세아정책의 전개와 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은 동남아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전후의「신래자(新來者)」라고 할 수 있으며 동남아세아에 대한 관심은 희박하였고 따라서 그들이 처해온 정치



적태도는 정관적(靜觀的)이었으며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였다. 「인도네시아」 독립운동 억압을 위한 군사행동을 화란(和蘭)으로 하여금 단념케 하는 등사가 그 전례라고 하겠다.

미국의 대동남아정책의 기초는 첫째로 공산주의에 대항 또는 이를 제압함에 그 것은 단적으로는 군사력에 의한 대항 또는 제압을 그 목표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가 동남아정책에 대하여 갑자기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인도지나문제를 전기(轉機)로 한 반공군사원조 즉 SEATO의 성립이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원조정책수행에는 동남아세아의 정치분위기가 너무나 미묘하였던 것이며 그 예증으로 동남아세아제국의 대다수가 이 기구의 참가를 유보하고 겨우 3개국의 현지국가만이 가맹하였을 뿐 특히 「네루」가 제창한 『평화지역주의』를 지지하고 그의 독자적인 입장을 취한 인도, 「버마」, 「세이론」 그리고 인도지나 등 「코롬보」 계획제국은 기구결성에 소극적이었고 오히려 국외에 남아 이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었으며 결국 「파키스탄」, 태국 그리고 비울빈(比律賓) 등의 동남아 3개국에 미, 영, 불, 호(濠), 「뉴질랜드」 등 8개 국만으로서 1954년 9월에 성립을 보았다.

이러한 결과 「코롬보」클럽간의 원칙적인 대립을 보게되어 SEATO 와 「코롬보」 계획과의 불일치의 조정공작책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아시아 마살」 원조의 제창이다. 사실 이와 같은 군사원조가 직접적으로 동남아세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여국(與國)의 수와 군사력을 증대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도 아니요 또 이러한 원조에 의하여 미국자본을 위한 매력적인 투자의 기회를 증대케 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주로 미국이 적진영에 휩쓸리는 것을 방지함에 불과하다는 극히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원조인 까닭에 미국의 일부층에 있어서도 이러한 우회적인 원조에 대하여 이(異)를 많이 달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동남아세아사태의 귀추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이 방위책상 종합적원조계획을 추진하지 않으면 아니되었고 그들이 공여한 개발원조 기술 원조도 방위계획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지원방식도 거의가 군사적 성격을 갖게 된 것이다.

특히 호志明(胡志明)정권이 반항전쟁을 전개하였을때 더욱 강화되었으며 1946년 인도지나전쟁이 발발함에 이르러 미국은 그의 반공적입장에서 그의 대항세력으로서 BAO DAI 정권 을 지지해서 불란서측에 적극 가담 하여 결국 「캄보디아」, 「라오스」에 이르기까지 그의 원조범위를 확대하였던 것이다.

사실 미국은 일찍이 저개발지역으로서의 동남아세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자신의 거대한 자본을 조종하여 동남아세아에 있어서의 영국의 퇴세의 기(機)에 편승하여 경제원조방식등으로 접근하여 구체제의 식민주의가 아닌 새로운 방책에 의한 진출계획을 모색하였던 것인데 이것이 바로 1949년 초두에 「트루만」대통령이 발표한 후진지역의 개발을 표방하는 원조정책인 이른바 「포인트포아」계획의 구상이다.

이러한 원조계획도 필경은 동남아세아제국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이 지역을 중공의 영향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중공봉쇄라인의 결성을 도모하려는 정치적으로려에 준한 것이다. 당시 미국의 전략목표는 냉전으로부터 예방전쟁의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 원조정책이 경제원조로부터 군사원조로 전환하여 가는 시기이었던 만큼 이 「포인트포아」계획을 내세운 것은 후진국 동남아세아에 대하여 미국이 구라파에 있어서의 「마살」계획과 같은 성격을 가진 대규모적인 원조를 고려함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개발원조계획은 그 발표 당초에 있어 동남아세아제국이 기대하였던 정도의 효과적인 원조로서 실현되지 못한 결과로서 그들의 대미 기대는 냉각되고 일부 제국은 대미 불신감마저 갖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미국은 또한 대동남아정책수행에 있어 영국의 견제책에 직면하였다. 즉 영국의 대동남아정책의 이면에는 제2차세계대전을 통하여 비약적으로 흥륭(興隆)된 미국이 식민지국가의 불평 에 편승하여 그의 경제세력신장을 꺾이고 있는 현실을 통찰하고는 그 대응책으로서 연방체제를 재편성함으로써 이를 배경으로 미국의 동남아진출기도를 조지(阻止) 하려는 비밀의 계략이 있는 것이다.

요컨대 「코롬보」회의구상의 목표와 조치도 표면상으로는 미국의 후진국경제 개발계획에 대응한 경합적인 영국의 동남아세아개발계획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근본적인 동인(動因)은 어디까지나 대미견제책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영국은 미국의 세력신장을 억제하고 타방으로는 미국의 원조자금을 자기의 통제하에 둌으로써 연방체제의 재편성을 대규모로 그리고 원활히 추진하여 동남아세아에 있어서의 영국 세력의 부활을 도모할 목적에 있었다.

사실 미국이 종전직후에 그가 고창한 반식민주의의 입장이 그 광저(筐底)에 있어서 반드시 피압박제민족의 민족해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동남아세아에 있어서의 자가세력의 확대와 그 반면에 대공정책을 확립하려는데 있었으며 그들의 원조방식에 있어서도 구호 부흥의 형태에 의한 경제원조는 2차적이고 정비된 군사적

성격을 다분히 갖고 있는데서 동남아세아제국의 영합적인 것이 못하고 원조 실시방법에 있어서도 단적으로 말해서 동남아세아제민족이 염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결함을 수원제국(受援諸國)은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동남아세아제국에 대한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고려에서 출발된 미국의 경제원조나 방위지원원조에 대한 제국의 반응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늘 불만과 신랄한 비판의 초점이 되고 있다. 미국이 공여한 원조무기는 결과적으로 공산주의타도에 원용되었다기 보다「캄보디아」,「인도네시아」그리고「라오스」분쟁등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오히려 공산주의자조성에 이바지한 결과가 되었다고까지 보고 있으며 이는 서구에 있어서의「마셜」계획과는 그 사정을 전연 달리하고 있는 동남아의 현지실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그들이 공여한 원조의 효과를 안역하게 추단한 결과가 배미적(排美的)인 역효과를 자아내게 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다음호에 계속〉

◇「울부리히트」의 희극

「울부리히트」는「베르린」한 복판에 성을 쌓고 서독으로 탈출하는 동독 시민을 철저히 감시 하였다. 성을 쌓은 후 1년 동안에 만삼천명이 탈출하였는데 그 중 만명은 탈출을 감시하기 위하여 배치한 동독 경찰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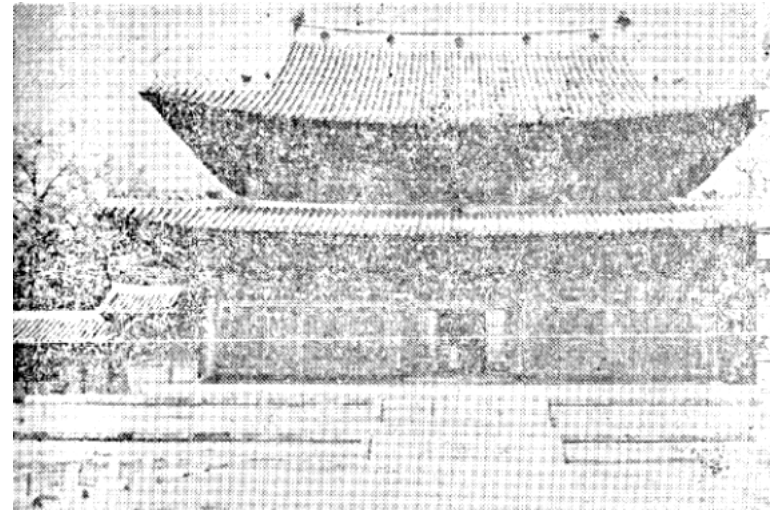
◇코웃음 산 시(詩)

중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학문을 존중한다. 이것을 알고있는 중공 간부들은 모택동이 고전문학에도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을 증명하고 선전하기 위하여 1957년 1월에 모(毛)의 자작시 18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시는 식자들의 코 웃음을 샀다고 주경문(周鯨文)은 그 저서「항폭 10년(抗暴十年)」에서 지적 하였다. 주경문은 중공정권초기에 있었던 소수당 중국민주 연맹의 전 서기장보였으며 1958년 항항(香港)으로 탈출한 망명정객이다.

◇중공의 식량문제

「케네디」대통령의 정책입안자의 한 사람인「로스토우」교수는 그의 저서「중공의 장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공의 인구증가는 매년 천이백만에서 삼천만으로 추산된다. 이에 비해 중공의 신개척 가능한 토지는 만주의 일부와 몽고의 일부뿐이다. 농경은 극히 원시적이며 이것이 개척된다고 하더라도 인구증가의 최저추산인 1200만에 비하면 거의 문제가 안된다.- 일거에 몇십만, 몇백만이 죽는 자연 조절(기근, 한발, 질병등)이 있다 하더라도 중공은 「영구기근의 지옥」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우아한 한국의 고전미를 풍겨주는 창덕궁의 인정전〉

연재심포지움·한국의 자랑 ⑧

한국의 건축

김정기(金正基) (국립박물관)

우리나라 건축이 비약적인 발전을 보게 된 것은 4세기말 중국대륙으로부터 불교와 같이 발달된 불교문화와 진보된 건축 기술이 도입되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중국대륙으로부터 도입된 선진 문화는 신라, 고려시대를 통해 점차 한국 독자적 인문화로 진보 발달되어 때로는 중국의 그것보다도 훨씬 우수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서론

우리나라의 건축은 동양의 다른 지역의 건축과 같이 목재를 주요 구조체로 하여 발달된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지리적 입지조건이 온대지방에 속한 비교적 다습한 환경에 있어 양질의 목재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에 기인된 것이다. 그러나 어느 지역의 민족을 막론하고 그들이 가진 최초의 건축이란 그것이 소위 말하는 건축이란 개념에 속하건 속하지 않든 간에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몸을 보전하기 위한 주거로부터 시작되었다. 원시 채집경제시대의 주거는 이동성이 많은 가설적인 것이었으나 인류가 일정지역에 정착하여 농경을 주업으로 삼게 된 시대에서는 반영구적인 구조 형태가 요구되었고 또한 수확물을 저장할 시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건축은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 여러가지 특수한 기능을 가진 건축으로 분화되었으며 같은 기능을 가진 주거에 있어서도 그 사회내의 계급 또는 계층의 문화에 따라 즉 지배자와 피지배자 또는 빈부의 차에 의하여 차이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거건축에 관해서는 원시시대의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선사시대 즉 삼국시대 이전의 상태는 중국에 전해진 문헌이나 고고학적 조사에 의하여 밝혀져가고 있으며 당시의 주거로서는 동굴주거와 수혈(竈穴)주거가 있었고 그 밖에 종교적·원시종교·건축 및 저장용의 창고등이 있었고 사회적 지위의 차이에 의한 건축의 질적인 차이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축의 비약적인 발달을 보게 된 것은 4세기말 중국대륙으로부터 불교와 같이 발달된 불교문화와 진보된 건축기술이 도입되어서 부터이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건축의 양상은 일변되었을 것이며 이때까지의 소규모의 원시적인 건축을 벗어나 일약 복잡한 구조양식을 가진 규모가 큰 사찰건축과 이에 준한 기법으로 이루어진 궁궐 저택건축들이 도처에 건설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중국대륙으로부터 도입된 선진문화는 신라 고려시대를 통해 불교 문화를 위주하여 점차 한국 독자적인 문화로서 진보 발달되어 때로는 중국의 그것보다 훨씬 우수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조시대에 들어 유교를 정치 교육의 근본이념으로 삼게 되자 불교는 치명적인 탄압을 받게 되어 불교문화는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나 건축문화는 여전히 중국대륙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고유한 양식을 완성하여 각부문에 걸쳐 발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려시대 이전의 화려하였던 문화는 빈번히 일어난 내란과 외적의 침략에 의하여 그 대부분이 파괴 소실되고 현재까지 남은 목조건축유구는 고려말의 약간의 유구(遺構)

이외에는 거의 유존(遺存)하지 않고 당시의 건축은 석조건축 또는 건축적 요소를 나타낸 공예품이나 문헌에 의해서 추찰(推察)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한(恨)하지 않을 수 없다.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에 4세기말경에 그리고 5세기에 신라에 불교가 도입되면서 부터 각국은 이를 깊이 신앙하며 보호하였기에 각지에 대가람(大伽藍)이 창건되었으며 고구려 청암사지(淸岩寺址)의 팔각목조탑의 기단지(基壇址)를 보면 직경이 30미터나 되는 거대한 것이고 당시의 와당(瓦當)들에서 웅대하고 장중한 느낌의 건축이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이 시대의 고분 벽화나 또는 그 구조에 나타난 건축양식을 보면 기둥위에 주두(柱頭)를 올리고 공포(貢包)를 짜올리고 있어 근본적으로는 이조건축과 비슷한 발달된 수법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백제에는 서기 384년에 진(晉)으로 부터 불교가 도입되어 불교문화의 발달은 고구려를 능가할 정도였던 것 같다. 지금 그 시대의 건축적 유구(遺構)로서 남아있는 것은 정림사지(定林寺址) 5층 석탑(甍백제탑)과 익산미륵사지석탑(益山彌勒寺址石塔)이 있고 그 밖에 건축에 관련된 유물로서는 청동제소탑(靑銅製小塔) 또는 당시의 건물에 사용되었던 와전류(瓦塼類)가 있다. 특히 미륵사석탑은 완존(完存)하지는 않으나 석재란 극히 가공에 많은 제약을 받는 재료를 사용하여 목조건축이 가지는 양식과 분위기를 조성한 유구로서 기둥의 앤터시스의 표현이나 경쾌한 처마의 취급은 목조건축이 가지는 감각 그대로를 나타내고 있다. 이 탑은 우리나라 석탑중 최대규모의 것이며 이 사지(寺址) 역시 그 광대함에 있어 중국에 있어서도 그 예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금동소탑(金銅小塔)으로 그 세부수법의 발달을 능히 짐작할 수 있고 사찰건축에 사용된 우려한 문양전이나 간결하고 단정한 와당등으로 당시의 불교문화의 융창(隆昌)을 알 수 있다.

신라는 삼국중 가장 늦게 불교가 도입되었으나 삼국시대말부터의 비상한 불교의 융성은 삼국중 제1위를 차지한 것이며 많은 사찰이 건립되었고 궁궐왕성의 제도가 완성되었던 것이다. 특히 경주 황룡사(皇龍寺)는 고려 고종 25년(서기 1238년) 몽고의 침입으로 소실될 때까지 우리나라 최대의 사찰로 웅대한 모습을 자랑했던 것이며 현재 유존하고 있는 건물지로서 당시의 규모를 알 수 있다. 즉 금당(金堂)의 크기는 정면 9칸 44.5미터여 측면 4칸 20미터여의 대법당이며 신라 삼보의 하나였던 목조9층탑은 초층 탑신이 1번 7칸 52미터여의 방형이며 철반위(상륜부)가 13미터(42척) 그 밑이 55미터여란 경이적인 높이를 가진 것으로 목조건축의 가능한 최대한의 높이였다고 생각되며 당시의 건축기술의 진보를 말하고 있다. 한편 석조건축으로 지금까지 그 위용을 남기고 있는 것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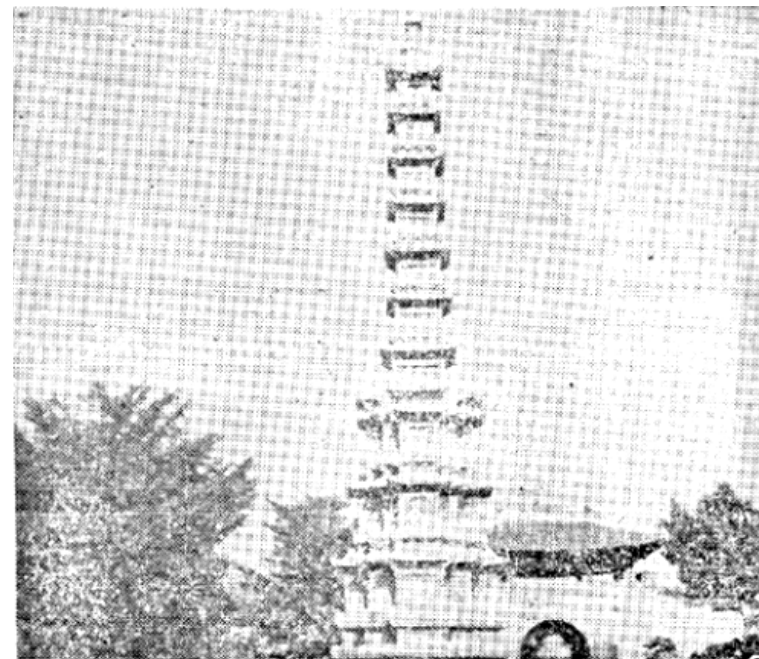
〈경주 감은사(感恩寺) 서탑(西塔)〉

에 많은 사찰을 창건하였으며 그 가운데 유명한 것에는 천사왕사(天四王寺)·봉성사(奉聖寺)·망덕사(望德寺)·감은사(感恩寺) 및 봉덕사(奉德寺) 등이 있고 그 밖에 불국사(佛國寺)·해인사(海印寺)·화엄사(華嚴寺)·법주사(法住寺) 및 동화사(桐華寺) 등 오늘날까지 법등을 이어온 사찰도 적지 않다. 그러나

분황사지(芬皇寺址) 모전(模傳)석탑과 첨성대(瞻星臺)가 있다. 이 첨성대는 당시의 천문기상을 관측하기 위한 상부가 좁아진 중공(中空)의 원통형 건물이며 동양 최고의 관상대이다. 최근에 있었던 상세한 조사에 의하여 그 계획이 매우 과학적이며 세밀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어느 외국의 고명한 학자는「첨성대야 말로 신라문화의 우수성과 위대함을 증명하는 최고의 유구」라고 까지 말하고 있어 내외에 당시의 매우 발달된 과학문화를 증명하는 한국의 자랑의 하나다.

통일신라시대

신라는 당과 합세하여 태종무열왕 때에 백제를 통합하고 문무왕대에 북방의 대국 고구려를 멸망시켜 반도통일의 대위업을 완료하였다. 당시 중국대륙에는 공전의 찬란한 문화와 강대한 국력을 가진 당(唐)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으며 신라는 이와 긴밀한 교류를 계속하면서 선진문화를 도입하여 불교문화를 비롯하여 건축 조각등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보았다. 당초에는 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중후하고 웅대한 기풍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점차 신라고유의 감각에서 이루어진 섬세하고 우아한 기풍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 시대에 들어서 왕성(王城)을 당의 제도에 따라 정비하였고 평대(宏大)한 궁궐을 경영하였다. 또 경주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



〈경천사탑(敬天寺塔)의 용자(勇姿)〉

이 시대에 창건된 많은 목조건물중 현재까지 유존된 것이 전무하고 다만 당시의 궁전 또는 사찰의 유적에 의하여 그 규모와 배치등을 알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유적에서 알게된 놀라운 만한 사실은 1969년에 있었던 감은사지(感恩寺址)의 발굴사조에서 알게된 금당기단 내부에 문무왕의 화룡전설을 입증한 용(龍)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거석을 짜올려 만든것이며 이와같은 타에 그 예를 못보는 교묘하고 독창적인 계획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의 건축유구로서 오늘날까지 남은 것은 석조 또는 전축(轉築)의 유구로서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석굴암(石窟庵)과 불국사(佛國寺)의 석축 및 석계단 그리고 다보탑(多寶塔)이다. 그 밖에 백제식 석탑을 벗어나 석재가 가진 감각을 최대한 살리며 그 재질에 알맞는 독특한 형태를 가진 석탑 또는 모전석탑 전탑등이 다수 유존하고 있다.

석굴암은 경덕왕조에 중국에서 성행된 석굴사(石窟寺)를 본받아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는 방법으로 석굴을 구축하던 것으로 평면이 원형으로된 굴의 중앙에 거대한 석조 석가여래좌상을 안치하여 주벽에 13구의 보살 십라한 및 천부립상 그 위에는 후부에 원광형의 연변(蓮瓣)을 중심하여 그 좌우에 각5개의 소석감(小石龕)을 두고 보살좌상을 안치하며 천정은 장방형석재로서 궁륭천정을 만든 중심에는 우아한 연화를 조각한 석재로서 끝마쳤다. 석굴 앞에는 장방형의 전실이다

있어 이와 석굴사이의 벽에는 인왕·팔부신장 및 사천왕상의 조각이 있어 석굴전체를 구성하고 있다. 전실에는 원래 옥개(屋蓋)가 있었을 것이나 일제의 경술한 수리로 그 흔적을 잃었으나 현재 진행중인 수리공사에서 굴내의 조각을 보호하고 창건당시의 형태와 근사하게 하기위하여 옥개가 부가될 것이다. 이 석굴암은 내부의 조각과 아울러 그 가구기법의 합리성과 우수성이 신라시대 불교문화의 한 정점을 이루는 것으로 당문화에서 출발하여 그를 능가한 신라문화를 확증하는 것이다.

불국사에 있어서는 목조건물은 이조(李朝)말의 것이나 대웅전·무설전·자하문 및 회랑의 기단과 대웅전 앞의 석등 그 좌우의 다보·석가의 양 탑 그리고 자하문에 오르는 백운 청운교를 비롯한 그 일대의 석축등은 모두 당시의 세련된 석조예술의 정수들이다. 특히 석계단과 석축에 나타난 수실하고 아름다운 구성미는 가공에 제약이 많은 석재를 자재로 다루어 그 의도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던 기술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보탑에서 더욱 잘 알 수 있다. 탑은 평면이 방형인 2층기단·이론(異論)이 있기는 하나 위에 평면 8각인 3층탑신을 올린 것으로 하층기단 4면에 석계를 두고 상층기단은 면석을 결하고 우주(隅柱)와 중앙에 심주(心柱)를 두고 탑신부는 초2층에 옥개를 결한 특이한 형태로 된 것이다. 석탑 각층에는 난간 또는 죽절형소주(竹節形小柱) 연화(蓮花)등의 복잡한 세부양식을 가지면서도 번잡한 느낌이 없고 전체적인 균형을 잃지 않는 조형미는 당시의 조형감각의 세련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밖에 소위 우리나라 석탑의 기본형탑 그리고 약간의 특수형의 석탑과 전탑(塼塔)이 있다. 기본형의 석탑이란 2층기단상의 3층석탑이며 의성 탑리 3층석탑을 형식완성의 과도적 양식으로 하여 고선사지 3층석탑, 감은사지 동서탑, 불국사 석가탑 등이 그 대표적인 석탑이다. 이 기본형 석탑은 점차 세부양식이 변경되면서 고려·이조시대까지 그대로 지속되며 5층 7층의 탑도 이에 준한 양식으로 병행되었다. 특수형식의 탑에는 기본형석탑에서 변안된 화엄사 3층사사석탑이 있고, 전혀 기본형을 벗어난 것에는 앞에 말한 다보탑 이외에 정혜사 13층석탑 등이 있고 백제시대의 탑양식을 가진 왕궁리 5층석탑등이 있다. 이들 석탑은 타에 그 예를 보지 못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석조건축이며 그 수법의 우수함과 안정된 균형 등 우리나라 고대건축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밖에 중국전탑을 본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 되는 전축탑은 안동의 신세동 칠층탑·동부동 5층탑·조탑동 5층탑을 비롯하여 송림사 5층탑 등이 있다.

이 밖에 정도(淨土)라는 불사리 또는 승려의 유골을 넣은 일종의 탑이 있는데 그 양식은 8각원당형과 석등형의 두가지가 있다.

이것은 다분히 공예적인 요소를 가졌으나 그 세부에 건축양식을 나타내고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은 쌍봉사 철감선사부도(澈鑑禪師浮屠)이며 탑신부에는 원주와 주두 등을 세밀히 모각하고 옥개에 부양 추녀끝엔 박새기와까지 남기고 화려한 조각과 아울러 당대의 부도 중의 최고작품이다.

고려시대

신라말 지방호족의 반란으로 마침내 국권은 왕건에게 넘어 갔다(서기918년). 태조 왕건은 국호를 고려라 정하고 국도를 송악(松岳)에 옮겨 도성·궁궐을 정비하며 불교를 보호장려하여 스스로 도내에 십대사를 창건하며 각지에 많은 사찰을 경영하여 일대불교왕국을 이루었다. 역대왕 역시 사찰의 창건 중창을 계속하며 권신귀족의 사찰도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불교가 당초의 적극적인 국가안태를 기원하던 사상은 없어지고 개인의 추복을 위한 소극적인 신앙으로 타락하여 문화역시 침체 과식의 폐를 나타나게 되었다.

그 문화는 신라문화를 계승하며 시종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 독자적인 발달을 보였고 말기에 와서는 몽고의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되어 오늘 날까지 그 영향을 남기고 있다.

고려시대 궁궐은 현존하는 것이 없으나 개성 만월대에 그 유지를 남기고 있고 서경(徐京)의 건문록인 고려도경에 의하여 당시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다. 그에 의하면 규모는 송경(宋京)에 비해 손색없는 장대하고 화려한 것으로 송인으로 하여금 감탄케 할 만한 것이었다.

사찰건축은 태조의 범왕·왕륜·자운 흥국사 등 십대사를 비롯하여 대흥사·일월사 등 많은 창건이 있었고 특히 문종창건의 흥왕사의 금탑은 표면에 금이 면에 은을 사용한 화려한 것이었고 연복사의 금당은 장대함에 왕궁보다 더하였고 5층목탑은 높이가 60미터를 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건물은 유존하는 것이 없고 다만 고려말엽에 만들어진 것이 약간 남아 있을 뿐이다.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은 부석사 무량수전이며 13세기경의 건립으로 보고있다.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3칸의 8작집으로 기둥은 굵고 고려중기에 도입된 새로운 건축양식인 주심포(柱心包) 양식의 초기적인 요소를 많이 나타내고 있고 장중하고 힘찬 기풍을 가진 우리나라 목조건물의 가장 우수한 건물의 하나다. 이외에 고려말의 사찰건축으로는 부석사 조사전·봉정사 극악전·수덕사 대웅전·정수사 법당이 있으며 관음사 대웅전·석왕사 응심전·심원사 보광전·성불사 극악전·응진전 등이 북한에 소재한다.

석조건축은 역시 신라시대의 계속으로 석탑부도 등이 많이

유존하고 있으며 나대(羅代)의 그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세부수법이 점차 퇴화하기 시작하나 고려 고유의 양식을 보이는 6각 8각의 다층탑이나 원(元)나라 양식을 현저하게 나타 낸 경천사 다층석탑이 있다. 이 탑은 세부양식에 충실히 목조건물양식을 나타내고 우러난 모습은 동서양을 막론하여 그 예를 보지 못한다. 이 밖에 금산사 6각다층석탑·월정사 8각9층석탑 등의 우수한 유구가 남아 있다. 부도(浮屠) 역시 점차 신라양식을 벗어난 고유한 형태를 나타내게 되고 말기에는 방처(邦處)양식의 영향을 가진 석종형(石鐘形)의 부도를 보게 되었다. 특기(特記) 할 만한 것에는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으로 이것은 유일한 특이양식의 부도로서 평면이 4각으로 된 2층기단상에 2층의 신부를 올린 부도로 유존상태도 완전하며 세부조각이 우아하고 전체균형이 안정된 수작으로 이름높다.

이조시대

이조시대에 들어서는 전조(前朝)에 많은 토지와 강한 권세를 가져 폐단이 많았던 사원세력을 압박하여 이에 대신하며 유교를 정치교육의 근본이념으로 삼게 되자 나려(羅麗) 이조에 걸쳐 극도로 발달되었던 불교문화는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건축은 태조 이성계가 국도를 한양(현서울)에 옮겨 도성궁궐을 완비하고 사직종묘를 세우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게 되었다. 그 양식은 당초는 신라양식으로 부터 고려 고유의 양식을 완성시킨듯 하나 이조에서는 여말에 중국에서 도입된 주심포집 양식과 원의 영향으로된 다포집 양식의 두가지로서 규모가 큰 외형이 중요시되는 건물에는 다포집 양식이 많이 채용되었다.

성곽건축에는 태조때 건립한 서울남대문 개성남대문이 있으며 평양의 보통문, 대동문 등은 초기의 것이다. 특히 서울남대문은 가장 웅장하고 수실(堅實)한 것으로 대표적인 건축이다.

궁궐로는 경복궁·창덕궁·창경궁(창경원)등이 있으나 창경궁의 명정전·명정문 및 흥화문은 초기의 유구로서 귀중한 것이며 경복궁은 대원군에 의하여 왜란으로 소실된 것을 재건하여 원래의 모습을 찾게 한 것이다. 정전(正殿)인 근정전은 인정전을 본받아 궁궐건축의 최고를 가는 호화장대한 것이다.

사찰건축은 격심했던 불교탄압에도 불구하고 민간신앙의 중심이 되어 그 유구도 많다. 청평사 극락전, 신륵사 조사당, 관룡사 약사전, 무위사 극락전 등은 전기의 수작이며 송광사의 국사·조사·용화전과 백운·청운·하사전들은 이 시기의 것이다. 후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통도사,

〈33면에 계속〉

민주주의 원리 ④



민주주의의 현실형태

이극찬(李克燦) <연세대 교수>

(1)

「의사의 자율성」과 「행위의 자기(自己)결정성」을 근본적인 속성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원리는 그 논리의 당연한 귀결로서「국민의 자치」(self-government)를 본질로 삼는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정치형태란-순수히 이념적으로 말하면-결국 일체적인 국민이 동시에 치자(治者)이며 피치자(被治者)인 국가형태(주1) 즉 국가권력은 모든 성원의 다수의사의 동의에 의해서 비로소 행사될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순수이념이 그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운 일이어서 그것이 일단 현실화될 때에는 사회적인 현실과 기술적인 요청으로 말미암아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여기에 민주주의의 현실형태의 문제가 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민주주의는 그 원리상 국민의 「직접통치」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근대국가가 가지는 여러가지 제약, 이를테면 인구의 과다와 영토의 광대 및 집회장소의 문제 등과 같은「물리적 제약」과 또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회합에서 는 도리어 토의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체감된다는 이른 바 가치체감의 법칙이란「정신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불가불 국민의 대표자들로써-즉 자기가 직접 출석(Present)하지 못하는 고로 자기 대신에 출석(Represent)하는 사람들로써-구성되는 의회를 통한「대의정치」(Representative government)에로 나갈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여기에「지배자와 피지배자와의 동일성」이라는 민주주의의 요청은

(가) 지배자로서의 대중이 바로 자기네들의 이름으로 통치자(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나) 그리고 이와같이 선출된 통치자는 대중의 진정한 대표자로 됨으로써…… 비로소 해결될 것이라고 보게 되었다.

이와같이 하여 민주주의는 그 현실형태의 하나로서

의회제도를 취하지 않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민의(民意)를 기초로 하여 국가정치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국민의 여론을 배경으로 하여 국가정치의 나아갈 길을 지시할 수 있으려면 민의와 여론은 무엇보다도 먼저「組織化」되어야 한다. 조직화되지 않은 민의와 여론은 하등의 통일성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은 단지「민중의 소리」즉「부동적(浮動的)인 국민의 희망」으로 끝쳐 강력하게 정치에 반영될 수가 없다. 따라서 민의와 여론이 진정으로 통용의 기회를 가지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충분히 발견되어질 상태로 구체화되며 조직화되어야 한다. 여기에 여론정치인 민주정치하에서는「여론의 조직화」의 역할을 담당하는 정당이 필요하게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통합하여 이를 국정에 반영시키는 기능에 있어서는 정당은 의회의 기능과 동일하다. 그러나 의회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의 종합대표의 국가기관 즉 원리적인 국가의사(법률)의 결정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기 위한 국가기관인데 대하여 정당은 역사적으로 보면 결코 직접적인 국가기관은 아니고「국민의 정치세력의 결집」또는「정치적 임의단체」이며, 한편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포용함으로써 이 국가기관을 운영해나가는 극단적인 기초 즉「동력」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당의 활동은 비단 의회안에서 뿐만 아니라 의회 밖에서도 또한 입법 이외의 국정분야에 있어서도 활발히 전개되는 등 그 활동범위는 참으로 광범하다. 따라서 정당이야말로 오늘날에 와서는 의회정치 운영에 따라서 민주정치 운영의 생명적인 원리가 될 뿐만 아니라「현대정치의 생명선」이 되고 있다. 민주정치가 곧 정당정치라고 불리어 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와같이 하여 민주주의는 현실형태의 하나로서 정당제도를 또한 취하지 않을 수 밖에 없게 된다.

물론 민주주의의 현실형태로서는 그 밖에도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제한된 지면관계로 여기에서는 이상과 같은 두가지 만을 간략하게 고찰해 보려고 한다.

(2)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전형적인 자유 민주주의는 의회제적 민주주의의 형태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그러면 민주주의하에서의 의회의 정치적 기능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는 국민들 사이에 있는 여러가지 이해관계와 의견의 충돌을 통합하여 조정하는 기능이고 둘째는 의회의 심의과정을 통하여 국가의 제정책(諸政策)과 문제점을 국민에게 분명히 가르쳐 줌으로써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공공사(公共事)에의 관심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기능이다.

전자는 국민→국회라는 상승과정을 통한 일종의「통합적 기능」이고 후자는 국회→국민이라는 하강과정을 통한 일종의「교육적 기능」이다. 이와같은 두 과정이 원활하게 순환되어질 때 비로소 의회정치는 그 원래의 기능을 다 할 수가 있게 된다. (주2)

이와같이 생각해 볼 때 의회는 우선 국민의사의 대표 기관이며 토의의 장소이다. 즉 국민의 잡다한 의사를 공개리에 진지하게 토의하여 보다 나은 국민의사의 최대공약수를 찾아 내는 장소이다. 의론할 수 있는 사회는 싸울 필요가 없는 사회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역할을 하는 의회는 독재의 출현의 여지를 없게 한다.

물론 의회가 없이도 정치는 훌륭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의회는 만사에 완만하고 능률이 오르지 않는 이야기만 지껄리는 기관으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스피이드」와 능률은 만일 그것이 정의에 입각하지 못한다면 정치의 유일한 필요조건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민주주의 체제를 채용하는 한 그 명칭은 어떻게 되어 있건 간에 의회 없이는 민주정치를 운영해갈 수가 없을 것이다.

(3)

의회제 민주정치를 원활하게 운영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방대한 수의 유권자 대중에 대해서 과연 그 중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며 또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찬부(贊否)를 물을 것인가를 명백히 지시하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주체는 오직 정부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이다. 즉 의회제 민주정치는 반대파에게 언론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부여하여 자유로운 토의를 통해서 자치를 행하려고 하는 제도임으로 일반 유권자들에 대하여 총선거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그 찬부를 구하는 주체는 반드시 두개 이상의 정당이어야 할 것이다. 두개 이상의 정당이 존재하여 일반 유권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의회제 민주주의의 필수조건이다.

우리는 대표제 민주정치하에서 정당이 과연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이 사실은 보다 더 명확해지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대표제 민주정치하에서의 정당의 기능으로서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것에 관해서는「지그문트·노이만」교수의 견해가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한다. 교수는 대표제민주정치하에서의 정당의 기능으로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점을 들고 있다. (주3)

첫째는 혼돈되어 있는 여론을 조직화하는 기능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표제 민주주의의 근원적인 전제는 여론이라는 것은 여러가지로 상위(相違)하며 분열되어 있으며 또한 그것이 자유로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만일 이와같이 판이하고 분열되어 있는 여론을 일정한 정강과 정책을 제시하여 각각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 대로 조직하지 않는다면 그 혼란과 대립은 더욱 심해질 것이요 따라서 그러한 의견이 정치에 강력하게 반영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당은 일찌기「브라이스」경이 말한 대로「선거민 대중의 혼돈 속에서 질서를 가져온다」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다.

둘째는 개인을 정치사회의 일원으로 만드는 기능이다.

정당은 각기 독자적인 정강과 정책을 국민 앞에 제시하여 당원과 지지자를 포함하는 모든 유권자·대중의 정치의식을 양양(昂揚)시킨다. 말하자면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각개인으로서 하여금「알리스토텔레스」의 이른바 정치적 동물로 만들게 하는 작용은 정당이 행하고 있는 셈이다.

셋째는 정당이 선거에 있어서 표명된 민의를 통해서 정부를 조직하는 기능이다.

이와같이 정부를 조직하는 기능이란 말하자면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정부 기구와를 결부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여론과 정부와를 결부시키는 정당의 기능에 관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다. 그것은 다수당이 조직하는 정부는「전체로 서의 국민을 대표한다는 일면」과 더불어 또한「국민의 다수를 대표하는 정당의 입장을 대리하고 있는 일면」이 있다는 것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와같은 양면이 있기 때문에 정당내각에는 일정한 기간이 있게 되며 영구집권이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 여론이란 언제나 변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다수의 의견인가 하는 것은 때때로 선거를 통해서 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명실 공히 여론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다수당을 찾아내어 그 위에 정부를 조직해 가는 것이 대표제 민주체제의 원칙이다.

넷째는 정치지도자를 선택하는 기능이다.

민주정치하에서는 민주적인 정치지도가 요청된다. 민주적인 정치지도자는 국민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와같은 인물은 결국 여론을 조직하며

지도해 나가는 정당을 통해서 밖에 될 수 없다고 한다.

이상 네가지 정당의 기능은 결국 선거라는 것과 표리일체의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민주정치하에서 선거의 의의가 중대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4)

이상과 같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구는 결국 의회정치와 정당 정치의 형태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고 보는「켈젠」의 소론(所論)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주4) 「켈젠」은 물론 의회정치와 민주주의가 동일물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사회에서는 의회정치이외의 방법으로서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형태는 없다고 보았다. 즉 그는 대표 민주주의의 형태로서 의회제도를 들어「그것은 인민에 의해서 보통 평등 선거권의 기초 위에 따라서 민주주의적으로 선거된 회의기관에 의해서 다수결원리에 따라 규범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해 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켈젠」은 민주주의가 정당없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기만과 위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에게 있어서는 정당과 국가가 실질적으로 대립된다고 하는 것은 곧「민주주의의 적대」를 의미하는 것이며 정당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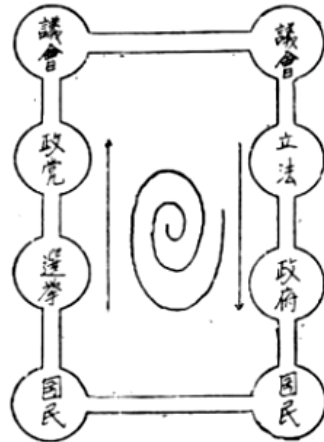


을 배척하는 것은, 즉 민주주의를 배척하는 일이다. 정당이란 오로지 각자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민전체의 이익에 배반되는 단체가 아니냐의 물음에 대해서는「켈젠」은 정당이라든가, 그 반의 여러단체의 이익을 초월하는 전체적 이익이라는 것은 형이상적인 아니「초정치적」인 하나의 환영에 불과하다고 대답한다. 전체적인 이익과 의이란 원래 여러 정당과 단체의 대립 속에서 그 타협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주1) 일체적인 국민이 동시에 치자(治者)이며 피치자(被治者)인 국가 형태라는것은「권력의 순환」을 보여 주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써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주2) 이와같은 원리는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 보다 더 뚜렷하게 들어난다. 즉「권력의 순환」은 인체의「혈액의 순환」과 조금도 다를바가 없다.



정당이란 바로 그것을 위한 조직적 조건이다. 그러므로 이와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당을 유기적인 전체의사를 위해서 부정하는 것은 의식적 이거나 무의식적이거나 간에-오직 하나의 단체의 전제(專制)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와같이 생각해 볼 때 민주정치의 성패는 의회정치와 정당정치의 운영여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피치자 대중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어떤 정당을 선택한다. 그 정당이 다수당이 되면 또 는 다수당이 없을 때에는 몇개의 정당이 연합하여 권력을 잡게 된다. 즉 집권당이 된다. 이 정당을 입법을 통해서 정부를 조직하여 국민에게 공약한 정책을 실현한다. 이와같이 민주정치하에서의「권력의 흐름」은「아래로부터 위로」흘러 올라갔다. 다시「위로 부터 아래로」흘러 내려온다. 따라서 이와같은 정치체제하에서는 다스림을 받는 자는 동시에 다스리는 자가 된다.

「혈액의 순환」이 잘 되어야 인체는 건강을 유지해갈 수 있는 것 처럼 이와 같은「권력의 순환」이 잘 되어야 민주정치는 건전하게 운영될 수가 있는 것이다. 꼭 사람이 동맥경화증에 걸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죽든가 병신이 되는 것 처럼 정치에서도 일련의 정치동 맥경화증에 걸려 권력의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민주정치는 종말을 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병들어 위기에 빠지게 된다. 우리의 4.19도, 3.15 부정선거로서 민의의 상승과정의「파이프」가 일련의 동맥경화증에 걸린데서 일어난 것이었다.

(주3) Sigmund Neumann (ed.) Modern Political Parties, 1956 PP. 396-397
현대정당론「지그문트·노이만」편 712-714면 참조 (수도문화사 간)

(주4) Hans Kelsen Vom Wesen und Wert der Demokraties. 2. Aufl. 1929.
민주주의의 본질과 가치「한스·켈젠」저 한태연역 (법문사 간) 참조

◇ 흐루시초프와 모택동(毛澤東)

중공 초기정권에 참여하였다가 우익으로 몰려 향항(香港)으로 망명한 주경문(周鯨文)「항폭10年」이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흐루시초프의 자격에 관해서 모(毛)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호」가「스타린」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흐루시초프 자신도 한 때는 스탈린을「위대한 스탈린」이라고 극력 찬양한 사람이다. 그러나 흐루시초프가 모(毛)를 극구 칭찬하지 않는것을 괴씸한 일이라고 모(毛)는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다.

◇ 두 사람의 범인

중공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유니온 연구소(Union Research Institute)장은 다음과 같이 흐루시초프와 모(毛)를 대조하였다.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을 부패하였고 권력과 허영에 의하여 미쳤던 의심쟁이라고 욕했다. 괴이하게도 모(毛)도 그의 개인 숭배 사상 때문에 그를 미치게 하고 있다. 모(毛)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의심은 의심이 아니고 사실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 까지 합치면 모(毛)는 스탈린 주의자이다.

공산주의 비판 ④

공산주의의 자본주의관

김창순(金昌順) <평론가>

◇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사멸하는가?

「맑스」는「푸로레타리아」계급이 자본주의 사회를 매장(埋葬)하여야 할「위대한 역사적 사명」을 지닌다고 말하고, 그 까닭은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을 무자비한 계급적 처지-기아와 빈궁속에 몰아 넣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것 역시 선진공업 국가의 수정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되어졌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발달된 사회에서「노동자들을 무자비한 계급적 처지-기아와 빈궁속에 몰아 넣는다」는 가정(假定)은 현실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기아와 빈궁속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은「맑스」가 말하는 자본주의가 더욱 발달된 사회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자본주의가 발달되지 못한 전(前) 자본주의 단계에 처해있는 후진국가 사회에 더 많은 것이다.

이 사실은「맑스」의 명제(命題) -즉,「자본주의가 발달 할수록 노동자들을 무자비한 기아와 빈궁속에 몰아 넣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자본주의를 매장해야 할 위대한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게 된다」는 가정(假定)은, 하나의 추상적인 정치적 선동으로는 가치가 있을는지 모 르나, 실제로 전개되는 사회, 경제적 조건에 토대한 사회사상 일수가 없다.

과연 자본주의의 발전은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노동자들을 만들어내며, 또 노동자들은 오랜 시일을 두고 하나의 사회적 계급으로 성장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과 더불어「맑스」가 말하듯이 노동자들이 점점 더 혹심한 기아와 빈궁속에 몰려들어가는것이 아니다. 반대로 옛날과 지금과는 노동자들의 생활과 사회적 지위가 엄청나게 바뀌었다.

일본(日本)의 오랜 사회주의가「다카하시」(高橋)교수는 그의「구라파 여행 보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그의 견해를 피력(披瀝)하였다.

『50년전과도 달라서 지금은 실업(失業)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노동자들이 많아졌다. 이것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지금만이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불안(不安)이 있을상 싫지 않은 상태로 점점 개변(改變)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산업의 국유화(國有化), 또는

사회화(社會化)라는 말을 입밖에 하는 사람들이 적어졌다.』

이것은 대단히 흥미있는 지적(指摘)이다. 50년전의 「구라파」와 오늘의「구라파」가 다르다는 것은,「맑스」가 백년전 사람이라면,「레-닌」은 50년전 사람인데, 그때와 오늘이 다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맑스」시대의 자본주의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레-닌」시대의 자본주의도 현저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서구(西歐)자본주의 국가의 사회주의 정당들은 그 경제정책에 있어 한결같이 산업국유화(産業國有化)를 강령적(綱領的)인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었던 것인데, 오늘에 와서는, 그 강령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산업 국유화 정책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험하였기 때문이다. 영국의 노동자들은 영국 노동당의 산업국유화 정책이 자기들의 소득을 높여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체득(體得)하고 있다.

그와는 반대로 보수당(保守黨)의 사자본(私資本)경제정책이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여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1950년대 후반(後半)에 이르러 영국 노동당은 그 강령을 바꾸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산업 국유화 정책을 내 걸고서는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영국 노동당은 스스로의 손으로『반듯이 산업 국유화되어야 한다는 철칙(鐵則)은 없다』고 선언(宣言)하기에 이르렀다. 또 서독(西獨)사회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구라파」에서 사회주의 정당으로서의 가장 세력이 강했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서독 사민당(社民黨)은 산업 국유화 정책만이 옳다는 주장을 스스로 수정(修正)하고 말았다. 이것은 전후(戰後)의 서독 경제가 사자본(私資本)경제 체계를 통하여 기적적인 발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회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점차로 서구(西歐)의 사민당(社民黨)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견 역시 일본경제의 자본주의적 발전에 의한「이 데올로기」적 수정인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에 관한「맑스」학설은 지금으로서는 하나의 고전(古典)일지언정 조선노동당(북한 공산당)의「정치 경제학 독본」이 말하듯이,『「맑스」주의는 세계의 그 어느 자본주의 사회에 적용(適用)하여도 잘못이 없는 완벽(完璧)의 진리이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릇된 주장이거나 또는 현대의 자본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지나치게 무식한 소치(所致)가 아닐 수 없다.

자본주의는「맑스」가 지적한대로는 사멸하지 않았고 또 사멸 할것 같지도 않다. 다만 간과(看過)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전(前)자본주의 단계에 처해있는 후진 지역의 국가, 사회에서 자본주의에 관한「맑스」학설이 여하히 이용되고있는가 하는 점이다. 다음 항목에서 이에 대한 해명(解明)을 하여 보자.

「맑스」주의와「레-닌」의 역행(逆行)

「맑스」와 그의 보조자인「엔겔스」는 사회주의 혁명의 필연적 도래(必然的 到來)를 창도(唱導)함에 있어서『자본주의가 고도(高度)로 발달하면, 생산력(生産力)과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소유관계에 있어서 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되어, 그 모순때문에 자본주의는 불가피적으로 사멸(死滅)하고, 사회주의가 이에 대체(代替)한다』고 주장하였다.

「맑스」와「엔겔스」는 이와같은 주장을 내세움에 있어서, 그들의 유물변증법(唯物辯證法)이론을 적용(適用)시켰으니 즉,『낡은 것은 죽어가고 새것이 이에 대체(代替)된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過程)에 있어서 사회주의를 배태(胚胎)하게 되는바, 이 경우에 있어서 자본주의는 낡은 것이요, 사회주의는 새것이다. 그리하여 낡은 것으로서의 자본주의는 불가피적으로 사멸하고

새것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승리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그대로 내버려두어도 죽어가는 것이요, 사회주의는 실현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이것을 자연 상태에 방임해 둘것이 아니라, 인위적(人爲的)으로 촉구하기 위하여「프로레타리아」혁명이 필요한 것이다』고 말한다.

그러나「맑스」와「엔겔스」의 이와같은 이론과 주장이 맞아들지가 않았다는 고증(考證)을 지금까지의 이 강좌를 통하여 밝혀왔다고 독자 여러분도 분명히 납득하듯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 노자간(勞資間)의 모순에 의하여 자본주의가 사멸하고 사회주의가 이 에 대체 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상에 있지가 않았다.

또 사회주의는 새것이고 자본주의는 낡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하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이론도 맞지가 않았다. 실례를 들어 1차대전후의 「항가리」혁명과 독일의 사회주의 정권은 어찌하여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는가? 또 이보다 훨씬 이전인 1871년「파리-코뮌」은 세계 최초의「프로레타리아」혁명정권이라면서 어찌하여 이것은 무너지고 말았던가? 또 1930년대의「스페인」의 소위 인민전선 정권은 3년간의 국내전쟁끝에 멸망하고 말았으니, 이것은 또 어찌된 셈인가? 물론 이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여러가지 조건을 들어 그 패인(敗因)을 변호하고 있지만,「사회주의는 새것이기 때문에 일단 승리하기만하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한 명제(命題)를 변호하지는 못한다.

또『자본주의는 그대로 내버려두어도 사멸할 것이지만, 그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각성한「프로레타리아」계급의 폭력혁명이 필요하다』고 한것도 맞지가 않는다. 왜냐면 강성한 「프로레타리아」계급이란 것은 선진 공업 사회의 노동계급을 말함인데, 그들 스스로가 폭력 혁명에 나서서 기성(既成)의 모든 문명을

때려 눕혔다는 사실이 없다. 그와는 반대로 범 물의 허용하는 범주내(範疇內)에서 자기들의 경제 정치, 사회적 권익을 찾고, 지키는 합법적 투쟁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또 「맑스」와 「엔겔스」는 혁명관(革命觀)에 있어서「한 나라안에서만」의 혁명은 성공할 수 없다. 이상적으로는 온 세계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동시적(同時的)으로 일어나거나, 그렇지 못하면 적어도 한 지역안에서 몇개의 국가가 동시적으로 혁명을 일으킬때, 그 혁명은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전개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이론은 하나의 허황스러운 가설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가고 말았다. 세계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혁명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거나, 또는 한 지역에서 몇개의 나라들이 동시적으로 혁명을 일으킨 일도 없거니와, 또 그러한 일이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바로 이 모든 점에 착안(着眼)한「레닌」은, 「맑스」의 이론대로는 도저히 공산주의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첫째로 세계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또는 한 지역의 여러나라가 동시에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은 꿈 같은 일로 생각되었다.

둘째로 자본주의가 더 많이 발달한 사회에서「푸로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킨다는것도 바랄것이 못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셋째로 자본주의는 그대로 내버려두어도 사멸(死滅)하기 마련이라는 것은, 저으기나 믿을 수 없는 일로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지자 「레닌」은 「맑스」학설이 제시한 것과는 달리 그와는 역행적(逆行的)인「코스」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할 수 있는 전략전술 문제를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이 바로「레닌」주의 이다.

「레닌」은 자본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가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농업이 전반적으로 지배적인 후진지역의 국가사회라야만, 「푸로레타리아」의 폭력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 하였다. 그의 근거로서는 첫째로 자본주의가 발달한 선진공업국가는 문명한 사회이기 때문에, 문명한 사회에서는 폭력혁명을 일으킬 수 없다는 점을 들어야 할 것이다.

문명한 사회에서는 대중교육이 보편화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급 노동자라 할지라도 일정한 교육과 교양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의식(自意識)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것을 헤아릴 수 있는 가치평가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폭동에 의한 유혈혁명을 부정(否定)하게 되는 것이다. 「레닌」은 이 점을 알아 채렀던 것이다. 둘째로 자본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해소(解消)시키고 있기 때문에 노자간(勞資間)의 계급전쟁을 일으킬 구실이 넉넉지 않다는 점을 들어야 할 것이다. 서구(西歐) 자본주의국가들은 입법(立法)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처우(處遇)를 개선 시킨것이 사실이다. 또 이러한 사회의 노동자들은 합법적인 투쟁을 통하여 자신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다는 각성과 자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노동계급의 혁명이란 도대체가 무의미한 일이 아닐수 없다.

「레닌」이「러시아」에서 폭력혁명을 일으킨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17년 11월 혁명 당시의「러시아」의 사회경제적 조건은 결코 자본주의가 발달한 공업사회가 아니다. 농업이 압도적으로 지배적인 후진국가였었다. 「러시아」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농민은「맑스」가「푸로레타리아」에게 부여하고 있는「사회주의 혁명의 위대한 역사적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가, 조차도 알고 있지 못하였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대부분이 글자를 읽지 못하는 문맹인구(文盲人口)였다.

그 당시의「러시아」노동자들은 인구의 근소(僅少)한 「프-센테지」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도 지식 수준에 있어서 농민과 다를것이 없었다. 이리하여「레닌」이 혁명을 일으키던 당시의「러시아」인구는 과다(過多)한 문맹인구(文盲人口)였었다. 실로 이러한 곳에서「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했으니 이것은 어떻게 설명 되어야 옳으냐.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맑스」의 기본명제(基本命題)를 가지고 고서는 풀이가 되지 않는다.

「맑스」에 의하면, 사회주의 혁명은 「푸로레타리아」혁명이라 하였고, 「푸로레타리아」는 자본주의의 산물(產物)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고서는 「푸로레타리아」의 계급형성이 되지 않으며, 계급이 형성되지

않고서는「계급적 사상의식」이란것도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맑스」에 의하면, 사회주의 혁명은「프로레타리아」독재이기 때문에 독재 정권을 쟁취(爭取)하고 영위(營爲)하자면, 그만한 교육과 교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맑스」가 말하는 그러한 자격의 「프로레타리아」란 것은 그 당시「러시아」보다는 영국이나 불란서 또는 독일에 있었다고 할것이다.

그러므로「맑스」의 명제(命題)와 전망(展望)대로 되자면, 계급적 사상의식이 높은「프로레타리아」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영국이나 불란서 또는 독일 같은 선진 공업사회에서, 아니 그러한 어느 한 나라에서가 아니라, 구라파의 모든 선진 공업국가에서 한꺼번에 사회주의 혁명이 개가(凱歌)를 올렸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진행(進行)은 그렇게 되어지지를 않았다. 오히려 후진 사회인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했으니, 이것은「맑스」의 명제(命題)에 역행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1917년 11월 7일「러시아」사회주의 혁명은 어떠한 것이나?

이 혁명은 소위 계급적으로 각성한「프로레타리아」자신이 주체(主體)가 된 것이 아니고 (될수도 없었지만) 극렬적(極烈的)인「인테리」분자들이 주동(主動)이 되어, 미숙(未熟)한 노동자들과 농민을 선전선동(宣傳煽動)하여 폭력수단으로서 정권을 탈취한 혁명이다.

그러한 혁명이고 보니, 이것은「맑스」의 사회주의 혁명론과는 다르다. 그러면 어째서 「러시아」사회주의 혁명은 그와같이 되어졌던가?

이미 제2「인터내셔널」(국제 공산당)의 주도적(主導的) 정당이었던 독일 사회민주당의 이론적 지도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분석에 관한「맑스」의 이론에 수정을 가하고, 자본주의는「맑스」가 지적한 대로는 쉽사리 사멸(死滅)되지 않으리라는 것과, 자본주의 사회가 사회 주의 사회로 전환하는데는 반듯이 혁명을 거쳐야 한다는 철칙(鐵則)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론적 규명(究明)을 가하였던 것이다. 그것은「베른슈타인」의「수정(修正)「맑스」주의」,「필바딩」의「조직된 자본주의론」등등, 요컨대 자본주의의 영속론(永續論)을 말하는 이론이 제2「인터내셔널」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수정「맑스」주의는 바꿔 말하면 서구(西歐)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는데, 이에 의하면, 사회주의란 것은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행정(歷史行程)에 있어서, 적절한 상태에 도달했을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급진적

혁명수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독일 사회민주당의「랏셀」노선은 그의 대표적인 것이다.

이와같은 이론은 의회정치(議會政治)의 방식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사회제도의 평화적 변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과연 영국노동당은 집권당(執權黨)으로서 산업국유화(產業國有化)정책을 실시한 일이 있다. 이 당(黨)은「부루쥬아지」의 지지를 얻어 집권당이 된것은 아니고,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어서 집권당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의하면 의회정치제도(議會政治制度)는, 폭력수단에 의한 혁명수단이 아니고서도 근로자들의 정당을 집권당으로 만들 수 있었다. 영국노동당은 집권을 통하여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사회주의 정책을 시도(試圖)하였다.

이 한가지 사실은 무엇을 말하여 주느냐?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사회주의 사회로의 제도변혁은 오직 혁명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도구마」를 깨버렸다.

우리의 선조

- 앞에서 걸어가는 늙은 부부였다.「클락슨」소리에 놀란 그들은 곧 몸을 피하려고 했지만 너무나도 놀랐던것 같다. 그들은 갑자기 서로 손을 부둥켜 쥐고 뒤통거리며 골장 앞으로만 뛰어 달아나는 것이다. 고무신이 벗겨지자 그것을 다시 잡으려고 뒤통음질 친다. 나는 그 잔영이 좀처럼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누렇게 들뜬 검버섯의 그 얼굴, 공포와 당혹의 표정, 마치 가죽처럼 무딘 몸짓으로 뒤통거리며 쫓겨 가던 그 뒷모습, 그리고……그 위급속에서도 서로 놓치지 않으려고 꼭 부여잡은 메마른 두 손……북어대 가리가 꿰져나온 남루한 붓집을 틀어잡은 또 하나의 손……

나는 한국을 보았다. 천년을 그렇게 살아온 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뒷모습과 만난 것이다.

쫓기는 자의 뒷모습을- 그것은 여유있게 차를 비키는「아스팔트」위의 이방인처럼 세련 되어 있지 않다…….

〈이어령(李御寧)저「이것이 한국이다」에서〉

익명(匿名)

The Secret Name

〈제2회〉

임어당(林語堂) 저
하정옥(河正玉) 역



이상에서 말한 본서의 요지는 첫째 이론에 대한 연구 검토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을 천명하는 점과, 둘째로는 이념면보다 인간적인 면에서 이 황당무계한 비희극(悲喜劇)의 내력을 해명하고 오늘날 그들이 말하는 소위 사회주의공화국이 어찌하여 도리어 반사회주의적이며 쏘비에트 정권하에서 맨 먼저 희생되는 사람은 다름아닌 사회주의 지도자나 농민과 노동조합의 지도자라는 것, 그리고 동구(東歐)에서는 이미 보편화 되다시피한 노동자에 대한 탄압, 노예와, 유형이 공산당 통치지역에서는 예외없이 시행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쏘비에트 지도자들 역시 인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해 본다면 그 행동에 더욱 정확한 이해가 갈 것이다. 사실 쏘비에트 정권의 역사를 들춰볼 때, 인간성이 맑스주의보다 우위에 있으며, 한 철학가의 어리석은 꿈이요 한 경제이론에 지나지 않는 맑스주의 이론은 너무나 인간성과 인류의 기본적인 지혜가 결핍된 탓으로 끝내는 파괴되고 버림받고 잊혀지고 말 것임은 우리는 안다.

소련은 그들의 주의를 달성하기 위하여 살아 있는 인간을 실험물로만 여기고 있다. 이것이 인류의 운명인가? 이것이 인류 문화의 결과인가? 그러나 그들이 행한 실험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 가련한「레닌」, 그의 주위에서는 그를 돕던「로조브스키」나「토크스키」같은 성실한 사람들은 다 숙청당하고 노동조합은 힘을 잃어 수만 수억의 러시아인과 발틱해로부터 발칸반도에 이르는 지역의 수많은 인민들은 공포와 빈곤과 암흑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야 하게 되었다. 반면에 특권계급과 국가기구는 날이 갈수록 더욱 강대해졌다. 여기서 나는, 오늘날 소련이 과학기술면에서 놀랄만한 진보를 하고 있지만 그 보다는 어린아이의 생명을 구하고 아이의 어머니를「시베리아」의 유형지(流刑地)로부터 돌려보내어 아이를 품에 안기고 노예의 몸에 얹힌 쇠사슬을 풀어 주는 것이 몇개의 인공위성을 올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고 가치있는 일이라고 느낀다. 인간이하의 도탄속에서 죽어가는 인간, 감옥속에서 부르짖는 죄수의 슬픈 외침(「호루시쵸프」의 연설), 밤중에 비밀경찰에게 어머니를 빼앗긴「리투아니아」의 한 아이 이러한 사실들이 소련이 쏘 올린「스푸트니크」전부보다도 몇배나 더 중요한지 모르겠다.

「존 듀이」도 혁명 초기의 소련의 교육제도와 결혼법에 상당한 매력을 느꼈었는데, 1935년에 열두살 된 소년이 무서운 아근(餓鱷)에 물려 걸식하다가 철로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하여 사형당한 사실을 알고 그는 분연히 소련을 비판했던 것이다.「앙드레-지드」역시 소련 정권을 한 이상의 실현으로 보고 1936년에 커다란 기대를 안고 소련을 방문했다. 그러나 신자산계급의 성장과 공산당의 비인간적인 아침과 교만을 보고 고개를 내 저었다. 그 외에도 영국의「비반」, 불란서의「앙드레-필립」, 이태리의「넬리」등 많은 사람들이 소련을 여행하면서 그러한 사실에 직접 접하고 또한 혐오를 느꼈다. 항가리 혁명 후에는 각국의 공산당원들 예를 들면 불란서의「쥘-썬트르」, 미국의「하워드-파스트」등도 모두 전향해 버렸다. 나는 여기서 하나의 신념을 얻었다. 인간성에 위배된 모순된 공산주의 사회가 자멸의 길에서 헤어나올 수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공산국가는 점차로 분열하고 내부로 부터 부패해 가며 그리하여 러시아 대제국의 모순은 그저 잠깐 동안 지연되었을 뿐 끝내 드러나고야 말 것이다. 그 이유는 너무도 간단하다. 아무리 무서운 탱크나 총검 앞이라 해도 인간성에 위배되는 일은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강한 탱크를 가지고 있고 감옥의 벽이 암만 두꺼워도 그의 통치하에 있는 인민의 민심을 잃고 보면 아무도 그를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만약 인류를 노예화시키는 일이 영구히 존재할 수 있다면 이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배치되는 일이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비밀경찰의 힘을 빌려 자유를 갈구하는 인류의 부르짖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에 없다.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망하고야 만다. 그것은 바로 역사가 가져다 주는 숙명이다. 인간의 본능은 아무도 노예가 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제1장 바른 이름

맑시즘이 노동자들 사이에 환영받는 곳마다 그 정치세력(자산계급의 노동당)이「맑스」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금지시킬 수가 없다. 마치 한 사회가 어떤 특유한 상표나 형식 또는 광고를 사용한다 해도 이를 막을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역사상에는 피압박계급(被壓迫階級) 사이에서 높이 추대되었던 혁명 지도자가 죽은 뒤 도리어 그들의 적이 이 지도자의 이름을 도용하여 피압박계급을 기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레닌」
(레닌선집 제11책 761페이지에서)

공자(孔子)가 위(衛)나라에 가 있을 때 자로(子路)가「만약 위나라의 임금인 선생님을 모셔다가 정치를 맡긴다면 선생님께서는 무슨 일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하고 물었더니 공자는

「반드시 이름을 바로잡을 것이다.」라 대답했다. 그러나 그 말을 제자들이 이상히 여기자 이어서.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당시 공자는 이름이 극히 혼란되어 있음을 통감했던 것이다. 당시의 외교관이나 제후(諸侯)들은 말에 표준이 없이 되는 대로 하고도 부끄러워 할 줄을 몰랐다. 그래서 공자는 엄격한 필법으로 <춘추(春秋)>를 찬술하여 그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밝혔던 것이다. 말하자면<춘추>는 공자가 바른 이름 즉 정명(正名)의 주장을 실천에 옮긴 저술의 소산이라 하겠고 만일 공자에게 이와 똑같은 필법으로 다시 현대의 역사를 기술하게 한다면 다음과 같이 쓸 것이다. 「1939년 8월 23일「스탈린」과「히틀러」동맹 체결, 9월 1일「히틀러」폴란드 침공, 9월 17일「스탈린」폴란드 출병, 폴란드를 분할 점령.」이렇게 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책임이「스탈린」과「히틀러」두 사람에게 있음을 밝힐 것이다. 역사가들은 찬탈(篡奪), 모살(謀殺), 침략(侵略)과 같은 낱말을 많이 쓰는데 이는 사가(史家)가 인간의 행동을 심판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공자가「모스크」대심판에 대해 쓴다면「1938년 8월 23일 찬탈가(篡奪家)「스탈린」이 검찰관「비신스키」의 도움을 받아「카메노프」와「지노비예프」를 모살」이라 쓸 것이다.

소련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혼란된 이름을 바로 잡아야겠다. 우선 이름을 바로잡지 않으면「레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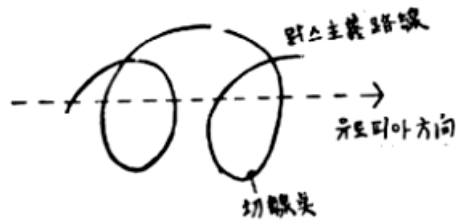
피압박계급 사이에서 높이 추대되었던 혁명 지도자가 죽은 뒤 도리어 그들의 적이 이 지도자의 이름을 도용하여 피압박계급을 기만한다고 예언한 바와 같이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실례를 들어 보면 최고 소비에트(Supreme soviet:소련의 최고 의회로 연방회의 즉 The soviet of the union과 민족회의 즉 The Council of Nationalities로 구성됨)가 정식으로 비준(批准)한 노동자가 직장에 아침 출근 또는 점심후에 20분 지각했다고 해서 최고 소비에트는 그 노동자를「칼·맑스」와「프리드리히·엥겔스」그리고「V.I.레닌」의 이름으로 강제노동에 복역케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 영향으로 해서 소련에서는 사사건건마다 맑스-레닌주의란 말을 끌어다 붙여야 하게 되었다. 오래지 않아서 소위 <노동자의 국가>는 노동자가 모든 고역을 떠맡는 국가라는 말이 되었고,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란 말은 프로레타리아트에 대한 독재란 뜻으로 바뀌었다.「스탈린」이 정의한 <사회주의>란 말의 뜻은 엄연히 <불평등>의 의미인데도 소련은 수치스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네의 국명에 이 <사회주의>란 말을 넣고 있다. 이렇게 모든 말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 점은 일찍이 1936년 소련 예찬자「앙드레·지드」가 오늘의 소련에서는 <반혁명>이란 말이 원의와는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혁명정신은 이제 필요없게 되었을 뿐더러 위험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미 지적한바 있다. 앞으로 이 책을 읽어 나가자면 여러번 이러한 문제에 봉착되겠기에 미리 이 의미가 변경된 이름에 대해 언급해야겠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소련의 공산당 실무자들이나 신문 편집자들은 쿵을 팔아라고 우기는 따위의 어거지를 많이 쓴다. 이러한 실예는 소련의 소위 고위층들이 신문 지상에 발표하는 성명서 즉 반혁명분자나 자본가 타도니 퇴폐한 부르주아지니 팻시스트 주구(走狗)니 하는 단어를 나열할 뿐인 그들의 글을 보면 쉽사리 알 수 있다. 물론 그들의 성명서는 정반대의 뜻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공자가 지금까지 살아 있다면 이러한 것들은 명확히 분별하여 그 본 뜻을 깨우쳐 줄 것이다.

소련 공산당이 이른바 맑스주의조차 포기했으면서 <좌익>과 <맑스주의>를 여전히 내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로 공산당은 누구나의 신임을 얻기 위한 소위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로 공산당은 선전효과를 위해서 이 멋있는 어휘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하키야 그들이 내거는 신성한 목표란「레닌」이 말한 바 있는 <피압박민족을 기만하는 것이고, 그 멋있는 어휘로 맹목적인 군중의 사상을 근사하게 표상하려는 것이다.

사실 맑스주의란 하나의 원칙을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구체적인 방안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당 간부들이 임의로 변경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진전되어가는 형편에 따라서 노선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레닌」의 해설에 의하면 이 노선은 회전하는 나선형의 선이어서 모든 사물은 이 나선형의 변증법(辯證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회전하는 나선형에다가 직선을 교차시켜 그들이 말하는 유토피아의 방향을 표시한다면 이 나선형 선상에는 직선에 대해 정(正)·반(反) 두 개의 방향이 연대어 나감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이 나선형의 선상에서 일점을 택해 절선(切線)하여 볼 때 이 절선이 그들의 구미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기회주의〉또는 〈수정주의〉라고 비판하는 반면



에 그것이 또 그들의 구미에 맞으면 그것을 〈사회주의의 실제〉나 또는 〈혁명과정중에 절대 필요한 단계〉나 하여 극구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나선형 선상에서는 우(右)로 달리는 것을 공산당식으로 좌(左)로 달린다고도 말할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소위 무산계급의 사회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급적인 불평등을 확대시켜도 괜찮으며 몰락해가는 국가를 위하여 비밀경찰을 강화할 수도 있으며 또 전 세계가 형제가 되는 유토피아를 이룩하기 위해서 이웃을 육해도 좋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보니 그네들의 제도 아래서는 소위 〈맑스주의노선〉이란 당의 독재를 위한 도구로서 무산계급은 그것을 다만 받아들일 뿐 그에 대해 반응을 보일 수는 없을 것이다. 반응을 보이는 것은 반동적인 행위이다. 빵배급에 대해 조금만 불평을 해도 이는 물어볼 것도 없이 반동분자가 되게 마련이다. 농민이 만약 당이나 정부가 정해준 소정가격으로 농산물을 강제로 판매시키는 것을 언짢게 여긴다면 그도 역시 반동분자의 낙인을 찍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형가리에서는 혁명을 일으킨 시민들 모두가 다 반동분자라고 배척되었다. 즉 반동분자란 노동계급의 해방이나 혁명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이나 당수를 반대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요

반혁명이란 혁명의 중국적 목적을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혁명의 영도를 반대한다는 뜻인 것이다.

공산당이 이처럼 자기네를 멋대로 자의(字義)를 바꿔치는 것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소위 신성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산국가는 모든 생산기구를 장악하고 한 임신부가 변잡한 기차를 탈 수 없어서 공장에 지각한 것을 (제5장 참조) 작업에 사보타주했다고 하여 사회주의의 생산과업을 파괴하는 반동분자라고 어마어마한 죄명을 씌웠던 것이다. 동시에 그녀는 이론적으로 따져볼 때 〈국가의 적〉이며 〈인민의 공적〉이 되고 마는 것이다. 즉 국가의 권위나 기물에 불리한 것은 모조리 〈반인민적인 죄행〉이라고 몰아 버린다. 이 〈인민〉이란 말이야말로 그들 공산 통치자들의 위대한 발견이라 하겠다. 그들은 인민이란 간판을 내걸므로써 터무니 없는 수작을 할 수 있다. 인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노동계급을 공격할 수도 있고 한편 노동계급을 미끼로 하여 인민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앞치고 뒤흔치는 식의 전형적인 실례가 바로 1956년 6월 28일 29일 사이에 일어났던 「포츠담」스트라이크 사건에 대해 행한 폴레드 공산당 수상 「시란키에비츠」의 성명(聲明)이라 하겠다. 원래 이 스트라이크는 「포츠담」노동자들이 기아구제를 위해 파업에 들어갔던 것인데 정부는 이들 노동자 38명을 사살하고 또 270명의 사상자를 냈다. 하긴 이 숫자야 그네들 관변측(官邊側)의 발표에 의한 것이니까 사상자가 그보다 더 많이 나왔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여튼 이토록 많은 사상자를 내고 나서 「시란키에비츠」는 「누구를 막론하고 만약 인민의 통치를 반대하고자 감히 손을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인민은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그 손을 용서없이 잘라 버릴 것이다」라고 성명했다. 그러나 이 말은 조금만 연구하면 다음과 같이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노동계급의 통치는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그 반대하는 손을 자를 것이다」라고 또한 「호루시쵸프」의 역사적인 연설에서 한 〈인민의 적〉이란 말은 원래 「스탈린」이 발명한 말이지만 그는 이 말을 「스탈린」 즉 무산계급의 태양이며 아버지라는 「스탈린」을 위해 죽으려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썼던 것이다.

누구에게나 너무나 명백히 알려져 두말할 여지도 없는 평범한 단어 즉 〈배(腹)〉나 〈평등〉이니 하는 말까지도 적용하는 것을 보면 우습기 짝이 없다. 공산당은 인간의 배나 위장의 크기까지 균등시키고 있다. 1954년 3월 12일 「푸라그」의 〈붉은 정의〉라는 신문은 공산당원이 낡은 이론을 가지고 사회민주당을 사주(使囑)하여 모든 사람의 배가 다 같다고 주장하게 한 것을 비난했으며 이듬해 5월 체코 노동조합 주석 「프란티셰크·쥬프카」는

인류의 배는 그 크기가 다 같다고 말함으로써 체코의 노동자들은 이미 사회민주주의적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들이 낡은 이론이라 하여 인류는 위장의 크기가 같고 따라서 기아에 대한 감수성이 같다고 한 것은 아마 20년 전 소련의 제1차 5개년계획 실천기에「스탈린」이〈사회주의의 불평등원칙〉을 정하여 수입의 평등을 반대했다 해서 나온 말일 것이다. 1917년 11월 혁명전성기에「레닌」이「모든 관원은 예외없이 노동자의 평균 수입과 같은 봉급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보증했으나 이 보증은 실천되지 않았고 신경제정책 실시 후 그들 당의 공작원과 노동자의 수입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으며 그러한 계급적인 수입의 불평등을 그들은〈사회주의의 실체〉라고 냈다. 그보다 앞서「스탈린」의 제1차 5개년 계획기에 이미 강제공업화를 함으로써 독재정치를 건립하였으며 따라서 공공연히 사회주의는 불평등하다는 원칙을 밝히어 1931년 6월에 공산당은 용감히 불평등의 입장을 인정하기로 됐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스탈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는 평등해야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成員)은 개인생활에 있어서도 우당 평등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좌익의 불온분자가 지니는 터무니없는 부르쥬아지의 관점이다. 이러한 불온분자의 유치한 방도가 우리 공업에 대해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1944년「예일」대학 출판부에서 발행한「다비드·J·달린」저〈소련의 진상〉92페이지에서)

이렇듯 그들 당의 공작원들은 노동계급이 빈곤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일 때에도 마냥 거액의 보수와 특권을 누리고 향락스런 생활을 하고 아울러 정신적으로도 쾌감을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등과 물질형수(物質享受), 특권에 대해 반성하거나 따지려 들지 않고, 오히려「스탈린」은 당시의 풍자적인 연사로써「무슨 얼어죽을 놈의 자유며 평등이며 박애냐!」하여 불란서 혁명의 3대 구호였던〈자유·평등·박애〉를 경멸했다. 이 풍자야말로 18세 기 러시아에서「평등을 타도하라」고 한 구호보다 한 술 더 뜬 것이라 하겠다.

소련 공산당이 반혁명노선을 걷게 된 이후, 그들은 모든 재능을 다 발휘하여 새로운 혁명어를 만들어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원래〈맑시즘〉이란 말은 쉽사리 사람을 미혹(迷惑)하고 또 유혹하는 매력적인 어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언어를 막론하고〈세계적인 프롤레타리아트의 단결〉이니〈혁명 군중의 주권〉이니 하는 구호는 어쩐지 귀에 솔깃하는 근사한 말

인 것이다. 또한〈자본가의 앞잡이〉니〈간첩〉이니〈파시스트의 잡설〉이니〈자본주의의 주구(走狗)〉니 하는 등등의 말은 전투성이 짙은 말들이라 하겠다. 이 외에도 그들은 소위 맑스주의를 일종의 논리정연한 과학이라 하고 있다.「레닌」의 말에 의하면 즉, 그것은「독일의 정통철학, 영국의 정치경제학, 불란서의 사회주의 및 일반적인 혁명원리를 집대성」한 최신과학이라는 것이다. 중국, 미국, 영국 기타 각 곳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문장을 쓸 때나 이야기를 할 때 흔히 최신과학 운운 따위의 망발을 저지르며 제판에는 과학적 또는 문학적인 영예감에 젖어있지만 실상 이러한 태도는 마치 일개 의과실습생이〈심장혈전증(心臟血栓症)〉이니〈임분(臨盆)(분만)〉이니 하는 전문용어를 자기네들끼리 사용하고서 좋아라 날뛰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1930년경, 나는 상해에서 중국산문문장의 변전하는 모습을 본 바 있다. 그 때는 내 자신도 소위 좌익작가들이 쓰는 혁명용어의 미묘성(美妙性)에 탄복하던 판이었으니까, 이제 문학을 시작하는 문학청년이나 일반 학생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거기에 끌리고 쫓리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복잡하고 도리어 반과학적인 어휘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현재 농민들의 태도〉라면 될 것을〈현 단계에 있어서의 농업생산자들의 사상적인 반응〉이라고 쓰는 것이다.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말을 쓰면 흡사 과학적이고, 모던하고, 또한 학문적이며 세밀하게 들리는 것이다. 거기다 한발 더 나아가서〈무산계급의 소동(騷動) (Proletariat Aufheben)〉이란 말을 PU-LO-TA-LIAH OW-FU-HEHPIEN 이라고 하게 되면 알아들을 사람이 거의 없게 되고 만다. 이렇듯 알쏭달쏭한 말을 너까리며 의기양양한 꼴이란 마치「빠리」에서 돌아온 영국 사람이 불란서에서 좇아들은 말투를 주절대는 식이라 하겠다. 1930년대의 중국 청년들에게 있었던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의 인도나「제이론」,「자칼타」등의 청년들에게는 없는지?

◇ 부영새와 지혜

희랍신화에 나타나는 여신은 부영새를 사랑한 것으로 되어있다. 아테네 여신은 언제나 부영새를 데리고 다닌다는 것이다.

부영새는 밤에도 앞을 본다. 부영새의 눈, 어두움을 뚫고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졌다. 지혜의 여신이 부영새를 동반하는 이유는 이때문이다. 지혜는 부영새의 눈과 같이 앞을 내다볼 수 있다.

미래를 투시하는 통찰력이 지혜의 덕이다. 어둠속에서 빛을 찾고 혼돈한 현실 속에서 질서의 미래를 모색하는 것이 지혜의 여신이다.

(안병욱(安秉煜)저「오늘을 사는 지혜」에서)

〈세계경이(世界驚異) 순례(巡禮)〉 아테네의 사당(祠堂)

리차드·하리바톤



우리들을 태운 배는 동쪽으로 에게바다를 끼고 그리스로 향하여 피레우스항으로 들어갑니다.

항구에서 육지를 바라다 보면 해안으로부터 8키로쭈 되는 곳에 커다란 백벽(白壁)의 도시쪽으로 완만한 언덕을 이루고 있는 땅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중심으로부터 높은 제단과도 같은 바위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바위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여왕의 도시, 아테네의 언덕위에 놓여진 영광의 관(冠) 아쿠로폴리스(높은 도시라는 뜻으로 아테네성을 말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위 정상에는 세계 제일 가는 경의(驚異)의 하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시가지의 꼬불꼬불한 길을 지나 아쿠로폴리스에 다달으면 대리석으로 된 층

계는 옛모습 그대로이고 페리클레스(아테네의 정치가, 기원전 429년? 사거)가 세웠다는 프로피두아는 지금도 다섯군데의 입구와 여섯개의 도리아식 기둥이 남아 있어 화려하였던 그 옛날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시 이곳을 지나서 꼭대기로 가면 우리가 동경하는 팔테논 사당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당 가운데서도 으뜸가게 빛나는 이 사당의 대리석으로 된 둥근 기둥이 옛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늘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생애 가운데서 몇번 그림이나 사진으로 밖에는 본 일이 없는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금 현실로 눈앞에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저마다 손으로 기둥을 만져 봅니다.

이때 어쩐지 온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미를 숭배하였던

황금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기념물의 폐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정녕 성지에 발을 들여 놓았음을 의식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천재들 조각가, 화가, 학자, 작가, 군인-도 우리와 같이 이 포도(鋪道)를 왕래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높이 솟아 있는 대원주 열밀을 천천히 거닐어 봅니다. 이것들은 2,300년간이나 풍우에 시달리고 전쟁으로 상처를 받아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후의 햇빛아래 즐기찬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기둥 사이로 황홀하게 빛나는「에게」바다 쪽을 바라다 보는 순간에 빛이 라일락색으로 변해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들 주위에 있는 돌을 역시 아름다운 그림자로 덮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번쩍 번쩍 빛나는 둥근 기둥 밑에 서서 라일락색으로 물든 도시 저쪽의 일몰광경을 바라다 볼때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가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대리석 층계에 앉아서 기둥에 몸을 기대고 보면 그대로 에게바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팔테논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팔테논은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전 438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도시의 수호신 아테나팔테노스라는 지혜의 여신을 모시기 위해서 세운 것으로 이 사당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 당시 가장 영감이 풍부한 조각가나 미술가가 소집되었던 것입니다.

중앙회당의 외벽위의 건물 둘레에는 그림을 새긴 폭넓은 대리석띠가 둘러쳐 있는데 이것은 저 유명한 조각가 휘디아스(기원전 500?432년, 아테네의 건축 및 조각가, 팔테논의 설계 및 조각을 담당)의 손으로 된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작품의 하나로 손꼽히는 것입니다.

휘디아스와 그밖의 미술가들은 팔테논을 미의 전당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곳 아쿠로폴리스 정상에 서서 바라다 볼 때 눈에 보이는 주위의 작은 건물들도 모두 그들 손으로 된 것입니다.

장식에는 황금과 상아 같은 것이 풍부히 쓰여졌으며 측면에는 신과 영웅들의 대리석상이 서 있습니다. 팔테논이 갓 세워졌을 무렵에는 거의 매일같이 꽃과 깃발을 든 사람의 행렬이 아테나의 신을 예배하고자 우리들이 올라왔던 바로 그 층계로 올라와서 이 사당으로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 당시의 아테네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선하고도 아름다운 광경에 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모든 화려하였던 것의 잔해(殘骸)를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아쿠로폴리스에서 맨처음으로 그 재보(財寶)를 빼앗아 간것은 고대 로마의 정복자들 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리석으로 된 여러 신들의 석상을 배에다 가뜰 실어 로마로 가져갔습니다. 그나마도 로마사람들이 남겨두고 간 것들은 그 다음 침략자들이 저인들의 도시를 장식하기 위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이 허다 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팔테논만은 치명적인 파괴에서 벗어날 수 가 있었습니다. (황금이나 상아따위는 완전히 없어졌지만) 그것은 왜냐하면 팔테논에 사용한 돌이 너무나 크고 또한 둥근 기둥이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해서 이 세계에 자랑할만한 대사당은 그 옛날 세계에 으뜸가던 그리스의 문화와 함께 고대사에 있어서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였던 아테네가 점차로 몰락하여 사람들 기억에서 거의 망각된 한촌(寒村)으로 전락해 가는 모습을 좌시(坐視)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456년까지 약 천년간 팔테논은 그리스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회로서 사용되어 왔으나 그 후 아테네가 토이기(土耳其)인들에게 빼앗긴 다음부터는 4백년 동안 마호멜 왕국의 도시로 되어 아쿠로포리스는 그들의 성으로 화(化)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건너쪽의 대리석으로 된 소위 처녀문 옆에 토이기식 침탑을 세웠는데 이것은 2백년쯤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후 1687년에 베네치아와 토이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아쿠로 포리스에 농성(籠城)하고 있던 토이기군을 포위한 베네치아군이 포격을 가함으로서 탄약고로 쓰여지고 있던 팔테논은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무너지고 수많은 기둥이 부러져서 오늘날 보는 것과 같이 무참한 손해를 입은 것인데 그 당시의 파편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제까지 이 세상이 입은 예술상의 손실 가운데서 가장 비극적인 것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00년 동안이나 그 완전한 아름다움을 보전해 온 끝에 로마사람들을 비롯한 난폭자들에 의한 10여회의 침략에도 견디어 오다가 이 미의 전당은 1687년이라는 비교적 근세에 와서 지각 없는 사람들이 쓴 일발의 포탄으로 깨어졌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통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불행한 사실은 그후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약탈시대의 도화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조각들은 못 사람들이 절취해 갔으며 심지어 어떤 농사꾼들은 휘디아스가 만든 석상으로 양 우리간의 울타리를 만드는 형편이었으며 토이기군은 대리석으로 된 신상(神像)을 부셔서 도로용 자갈로 썼습니다. 이와같은 취급을 받고서는 팔테논의 조각이 한 조각도 남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러한 형편을 보고 영국의 귀족 엘진경은 크게 느낀바 있

어 1816년에 휘디아스의 작품중에서 아직도 약간 남아있는 부분을 정중히 들어 아내어 영국으로 가져갔는데 이것들은 오늘날 런던의 대영박물관에서 볼 수가 있으며 이러한『엘진의 대리석』은 부서진 조각에 지나지 않지만 이것이야말로 이 화려한 건물을 장식하였던 조각 가운데서 아직도 보전되어 있는 것의 전부라고 할 것입니다.

1833년 그리스가 토이기에서 떨어져 독립하기까지 팔테논의 폐허는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이 그대로 방치상태에 놓여 있다가 오늘날에 와서야 겨우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 국민들도 다른 나라의 미술애호가들과 마찬가지로 이 이상 팔테논이 황폐되어 가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서 그 보전을 위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팔테논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단순한 폐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건물 가운데서 최고의 명예와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의 모든 건축물이 거의 그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합니다. 실로 팔테논은 오랫동안 미의 극치를 인류

◇자유

우리 선교회에서는 널리 광고해서 소련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주권(移住權)을 알선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희망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실제로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도 소련에 가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뺑보다 자유가 앞선다고 실토했다.

〈크리스토프 저「민주주의와 애국심」에서〉

◇민주주의법률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이 것처럼 비난하는 미국의 모든 민주주의 제도의 법률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만일 미국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률이 아니었고 공산주의나 전체주의적 법률이 있다면 그들은 그 법률에 의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몇 갑절 많았을 것이다.

〈크리스토프 저「민주주의와 애국심」에서〉

◇자유인의 철학

저마다 의(義)의 방과제가 되고 역사의 엄숙한 기도 속에서 살아가자. 지금은 이를 악물고 허리띠를 졸라 댈 때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역사의 긴 세월을 수난의 늪은 갈보의 품에서 자란 우리는 숙명론의 철학에 익숙했다.

숙명론의 철학은 노예의 신앙이다.

숙명론은 자유인의 철학이 아니다.

내 운명은 내 뜻과 내 수중에 있다고 믿는 것이 진리인의 종교요 자유인의 신앙이다.

우리 모두 의지의 철학을 지니자.

〈안병욱(安秉煜)교수〉

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인류는 오늘날까지 그것을 모방하기에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도처에서 이 전당과 같이 기품있는 둥근 기둥의 열(列)로 입구를 형성하고 있는 소위 「그리스 사당식」건축물을 보게 될 때 거기에는 팔테논의 영감이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시의 거의 모든 공공건축물의 양식은 고대 아테네식인 것입니다. 링컨기념관, 최고재판소, 국회의사당 등 이 모든것이 팔테논 건축양식을 모방 한 것입니다. 실로 미국의 공공적 건물, 우체국 혹은 주택등에서 다 소라도 아테네 사당을 모방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황폐한 팔테논의 기둥 사이에 앉아서 은근히 이것들을 바라다 볼때 실로 현대에는 이 팔테논을 반쯤이라도 모방한 건물도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으로 만들어진 소설

-소련의 어느 작품의 실례-

여기서 든 예는「일본 포·람」지가 Princeton University Press에서 전재(轉載)한 것을 요약한 것이다.

소련에서는 소설이 독재자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예가 많다. 독재자는 일정한 작가를 불러서 이러이러한 테마를 살리는 소설을 쓰라고 명령한다. 그러면 명령을 받은 작가는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테마를 살리는 줄거리를 만들어 소설을 쓴다. 그것이 합격되면 정부와 당의 힘으로 국내 신문, 잡지, 라디오 등 모든 매스·매디어를 통해서 굉장한 명작이 나왔다는 듯이 선전한다.

「뻬쇼로프」란 소련작가는 하나의 소설을 그때그때 소련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3부작으로 써서 각부 마다「스타린」상을 받았다. 그는 1947년「평화를 위한 전쟁」이라는 소설을 썼다. 이 소설은 소련의 자동차 공장을 무대로 한 것인데 이 소설의 주인공은 제2부「싸움에서 패배한 땅」에서 다시 등장하고 제3부에 또다시 등장하게 된다.

「뻬쇼로프」는 처음부터 이 소설을 12부작으로 구상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세의 변동과 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첫번째 소설을 연장하여 제2부를 만들었고 같은 이유에서 제3부가 또다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 이 소설이 어떠한 정세변동에 의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꾸며졌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제1부, 제2부를 다 설명하기엔 흥미도 없고 지면도 없는 것이므로 제3부가 만들어진 경위와 그 내용을 요약해서 소련에서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허구 많은 소설의 전부의 내막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하나의 실증으로 삼으려 한다.

제2차대전 이 끝나자 「스타린」은 국내에서 대두하는 중대한 현상에 눈을 돌렸다. 그것은 놀라움게도 공장 지배인들이 돈을 벌어서 그들끼리의 하나의 세력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 공장 지배인들을 억압 내지 숙청하기 위하여「뻬쇼로프」에게 공장 지배인의 반역자적인 스타일을 그리라는 소설을 명령했던 것이다.「뻬쇼로프」는 그러한 내용의 소설을 다시 쓰기 보다는 이미 알려진 소설의 후편과 같은 소설을 쓰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쓴 것이 여기에 소개하는 제3부이다.

이 소설은 제2부, 즉 자동차 공장의 지배인이 사망하고 그 후임자로 「코코리요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전 지배인은 독일 포로수용소에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후임으로 부임해 온「코코리요프」는 놀랄만한 성적을 올려 자동차며 전차 등을 일선으로 공급한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코코리요프」의 성분(成分)이 차츰차츰 노정화되어 격렬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즉 이기주의, 공영 제도에의 반감 노동자에 대한 사랑의 결집 등 공산주의자로서의 인격상의 결함을 묘사한다. 정부와 당은 이러한 지배인을 추방하게 마련인데 이 소설의 끝자는 공장 지배인「코코리요프」는 왜 추방되었나? 하는 그 과정을 그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뻬쇼로프」가 그려낸「코코리요프」란, 마땅히 추방되어야 할「반동분자」는 다음과 같은 행적이 있는 사람이다.

◇ 방금 공장내에는 공장위원회가 열리어「코코리요프」를 비판하고 있다. 그는 노동자를 사랑할 줄 모르고 성격이 포악하며 부르쥬아적 이기주의, 공영(共營)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토의 대상이 되어 있다. 한편「코코리요프」는 어느 아름다운 외국여성과 밀담을 교환하고 있다. 그 외국여성은 서방국가의 스파이며 밀담의 내용은 외국여성이 고향에 거대한 공장이 있는데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다가 갑자기 죽었으니 당신이 우리 공장을 맡아서 운영해 달라고「코코리요프」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같은 그들의 밀담을 비밀경찰이 듣고 공장위원회에 보고한다. 격노한 노동자들은「코코리요프」를 용서할 수 없는 반동분자라 하여 주저없이 두들겨 팬다.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코코리요프」는 가명이고 본명이 들어나며, 유태계 사람이라는 사실도 밝혀진다. 이리하여「코코리요프」는「인민의 적」이 되어 재판에 회부되고 그림자를 감추게 된다. 종장에게서는 드라마틱한 구성을 위하여 죽은 줄 알았던 전 지배인이 독일 포로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공장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줄거리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설이 또다시 수정되었다는 것이다. 이 소설이 출판된 것은 1949년이었는데 1955년에 나온 재판은 공장 지배인이 경제관계 관료로 바뀌어졌다. 왜냐하면 공장 지배인에 대한 숙청은 이미 끝나고 당시 정부의 공격은「모스크바」의 경제관계 관료에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뻬쇼로프」는 소설을 만드는 기계였다. 그는 시간의 추이에 따라 간단없이 변해갔다. 최고 권력자의 지령만 있으면 권력자가 필요한 소설을 써내고 막대한 돈과 화사로운 대우를 받는 이른바「정신적 갈보」였다.

그가 사망하기 직전, 1960년에 출판한「젊음의 이름 밑에서」라는 장편 소설에서「모스 크바」경제관계 관료들이 추구한 여러 정책을「봉건주의 특수형태」라고 지적하면서「그들의 통제는 파괴요, 심지어는 국가로부터도 착취하러 들고 있다」고 내려갔다. 「빠속에 까지 권력욕이 잠식한 족속이 경제관계 관료들이요 때문에 그들은 소프날호즈의 설치를 것처럼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때렸다. 이 소설은 순전히 경제관계 관료들을 까기 위한 논문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문예작품이 정치정세에 따라 수정되고 가필되고 삭제된다는 것은 실로 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나라 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이러한 소설을 우리는「소설」이니「작품」이니「예술」이니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것은 가장 비열한 선전책이다. 이것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위대한 문학」이며「위대한 예술」이다.

전기한 「뻘쇼로프」의 마지막 소설에는 「스타린」을 공격하는 내용은 안 보인다. 그 반면에 「호르시쵸프」를 찬양하는 내용이 극히 암시적으로 묘사되어있다고 어느 외국의 소련전문가가 말하고 있다. 단정은 할 수 없으나 머지않아「호르시쵸프」의 명령에 의해서「스타린」을 공격하는 테마의 소설이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얘기는 달라지지만「노벨」문학상을 받은「빠스테르나크」의 장편소설「닥터 지바고」는 지금도 소련 내에서는 전연 구할 수 없으며 타이프로 찍은 사본에 의해서 특수층 사람에게 회람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Mandelstam의 시(詩)는 지금도 햇볕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그의 유명한「유형의 노래」(流刑)「Trista」는 서장(序章)도 본장(本章)도 아직 미발표 상태라 한다.

그런데 소련 문단에 있어서의 중요한 하나의 경향은 지금까지 엄격히 금지되어 왔던 연애물 소설의 등장이다. 1958년까지는 연애소설의 테마는 한정되어 있었다. 극히 도덕수준이 높은 남녀관계에 한정되어 있었고 연인 사이에 거래되는 애정과 행동은 완전히 집단화되고 독재자의 도덕 규범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스타린」이 죽은 뒤 연애나 결혼생활에 있어서 간혹은 정상적이 아닌 상태도 용인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곧 문제가 되었다. 독재자의 도덕 규범

을 벗어난 연애도 있을 수 있다는 허용된 자유는 작가들에 의하여 지금까지 그려진 연애소설의 허울을 한거풀 벗기고 그 밑바닥을 묘사하기 시작하자 서방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후파적, 퇴폐적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같은 경향이 눈에 띄우게 되자 정부와 당은 당황하여 젊은 작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좀체 사라지지 않고 있는것 같다.

〈조정식〉



군내현상논문
〈당선작〉



군정신(軍精神) 무장강화(武裝強化)의 기본방향

중위 박찬수 <7항로보안단>

물질력이 목제의 칼집이라면 정신력은 시퍼런 칼날과 같다
-크라우제벳츠-

1. 서론

한 국가가 스스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무엇 보다도 적이 전쟁을 도발시키지 못할 만한 혹은 도발하더라도 이를 능히 물리칠 만한 최소한의「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오늘날에 있어서「힘」이란 비단 군사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 자원, 인구, 산업, 국민성 및 외교능력 등의 모든 요소를 포함한 한 나라의 총력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실질적이며 직접적인 수단은 군사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류의 공동적인 공산주의자들이 세계 적화(赤化)의 야욕을 품고 도처에서 침략전쟁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특히 국토양단이라는 현실적인 무조건하에 있는 우리로서는 무엇보다도 군사력증강의 문제가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오늘날 북한괴뢰(北韓愧儡)들은 재침(再侵)준비의 전주로서 무력증강에 광분하는 한편 모든 국가기구를 전시체제로 개편 강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전력증강의 문제가 우리 국군의 당면과제로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전력증강은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의 확충강화를 의미하는 것인바 양자중에서도 특히 인적 요소의 비중이 전력의 기초가 됨은 말할 것도 없다. 아무리 고도화된 과학무기로 장비(裝備)된 군대라 할 지라도 이를 운용하는「사람의 정신」여하에 따라 그것은 천차만별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本稿)에서는 주로 전력증강의 한 요소로서 정

목차

1. 서론
2. 현대전(現代戰)에 있어서 정신력의 위치
3. 군정신력강화의 방향
 1. 정신력의 2대요소
 2. 정신력강화의 방향
 3. 지휘통솔과 인간관계
 4. 결론

신문제가 어떠한 위치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논급(論及)하고 아울러 군에 있어서 정신무장강화의 기본방향은 어떤 면에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바이다.

2. 현대전(現代戰)에 있어서 정신력의 위치

인류는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생존목적과 생존가치에 대한 이상을 추구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근세에서 현대에 이르는 기간은 인류의 생존에 대한 이념투쟁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전(戰前) 일본의 군국주의, 독일의「나치즘」이 모두 그러한 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간의 이념의 대립과 투쟁은 한층 심각한 국제문제로 화(化)하였다.

소련 공산주의자들은 무력전쟁보다도「이념에 의한 투쟁」에 의하여 세계를 제패할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으므로 현대전의 성격과 양상은 무력에 앞서서 이념의 작용과 「힘」의 위세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이른바「이데오로기」전으로 일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이데오로기」로 무장되지 않은 군대는 아무리 신예무기와 방대한 군수물자를 가졌다고

해도 적을 이롭게는 할 지언정 자기를 지키는 참호(塹壕)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군대는 위로는 지휘관으로부터 아래로는 사병에 이르기까지 한가지의 목적과 신념으로 굳게 결속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이것을 촉진하여 주는 것이 곧 정신문제인 것이다.

제1차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은 무력에 있어서 우세한 힘을 발휘하였으나 선전전(宣傳戰), 심리전에 있어서는 전연 무방비 상태였으므로 결국에는 영국에게 굴복하고 말았던 것인데 그 당시 아무리 영국군의 선전공세가 용의주도하고 치밀한 계획아래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독일군의 정신무장이 확고히 되어 있었더라면 패전의 굴욕을 당하지 않았을런지도 모르는 일이다.

가까운 예로 국부군(國府軍)이 수많은 병력과 우수한 장비를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본토에서 중공군에게 패배당한 것은 당시의 국부군이 확고한 정신력으로 무장되지 않았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금(現今)의 자유중국군은 전연 다른 체제와 면목을 갖추고 있다.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되씹으며 강력한 정공기구(政工機構)를 통하여 장병들의 정신력결속과 이념무장에 모든 힘을 경주(傾注)하고 있으며 본토수복(本土收復)의 꿈이 실현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몇가지의 예로 미루어 볼때 현대에 있어서 정신적인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규지(窺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쟁을 수행하려면 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이 다 같이 갖추어져서 양자가 병행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상이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여건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물질적인 면에는 자원이라던지, 인구, 산업구조, 국민의 경제생활 등 천연조건이나 경제적조건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지금 공산주의의 무력적위협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공산괴뢰들의 간접침략을 통한 사상적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의 이념반쟁(理念反爭)에 대비해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결속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투철한 반공이념으로 굳게 무장되어야 한다.

확고한 정신무장의 바탕없이 공산주의와 싸운다는 것은 스스로가 자기의 무덤을 파는 것과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잠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3. 군정신력강화의 방향

본인은 전장에서 군정신무장이 현대전(現代戰)에 있어서 얼마나 중대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다음에서는 우리가 사구하는 정신무장의 핵심을 이루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를 규정하고 나아가 앞으로 어떻게 정신력을 정비강화하여 나가야 하겠느냐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보기로 하겠다.

A. 정신력의 2대요소

현대 민주주의적 이념과 체제를 배경으로 한 군대는「프라톤」(Praton)의 이른바「용자(勇者)」만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요,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국군의 정신적 기초는 어디에 둘 것인가?

군의 정신문제는 궁극적으로 민족성과 인간성의 문제에 관련되고 있는 것이다. 전성기의「로마」군대나 영국혁명 당시의「코름웰」군대가 강했던 것도 모두 이 민족성과 인간성에 깊이 유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국군에 있어서 정신력의 기초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민족의 저류(底流)를 이루고 있는「민족성」과 각 개인의 근본심성인「인간성」에서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혹 이것들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뜯어고치며 새로운 것은 끊임없이 흡수하여 조화시켜 나가고 이것을 다시 형성시켜 나가는 광범한 국민교화운동에까지 미쳐야 할 것이다.

그러하여 굳건한 민족성을 기초로 하고 그 위에 장병 개개인이 민족의 역사적 사명에 연결된 인생관과 생활기풍을 체득하는데서부터 확고한 정신력을 정립시켜야 한다. 과거와 같이 허영과 사치와 유약(懦弱) 그리고 봉당에 흘렀던 민족성은 올바른 군정신의 기초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도리어 군의 정신력을 침식하는 병균이 되기 쉽다. 진실, 순결, 협동, 헌신 등 민족의 청상(淸爽)한 분위기가 곧 군정신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지표가 되는 것이다.

민족성, 이것이 군의 정신력을 이루는 기초가 된다면 국군의 정신력강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이 땅위에 새로운 민족혼을 뿌리깊이 박아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민족의식의 형성은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생활화하고 실천화하여 국민이나 군인 개개인의 정신적지주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신적지주위에서 비로써 애국심이 발로하는 것이며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애국심은 군인에게 있어서는 본질적인 자세로서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한치의 국토라도 한 사람의 동포라도 침략자들의 더러운 발굽에 짓밟히게 하거나, 노예의 굴레 속에서 허덕이게 할 수 없다는 정의의 힘이며 자세다. 이것이 곧 군인의 마음이요, 기질이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기질이 없다면 한낱 군복을 입고 있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이다.

B. 정신력강화의 방향

우리는 언제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를 회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유와 평화」는 무위(無爲)와 태만 속에서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것은 결코 아니며, 우리들 스스로가 전취(戰取)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적화의 야욕에 들뜬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우리들 군인에게 부여된 명제이며 사명이다.

우리 국군은 처음부터 순전히 새로운 바탕에서 출발하였고 또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순탄한 길을 밟아오지는 못하였다.

6.25라는 미증유(未曾有)의 대전란속에서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오늘 날까지 성장해 왔고, 또 지금에 있어서는 어느나라 군대 못지않게 그 조직이나 장비면에서 현대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변을 통하여 우리들은 북한괴뢰군의 야욕적인 행동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우리들 스스로가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왕성한 적개심을 가졌었다. 그러나 휴전후 수년이 경과하는 동안 이러한 정신적 긴장은 차츰 풀어지기 시작했으며 더욱이 현재 군조직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장병들이 6.25를 체험하지 못하였거나 설령 체험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해할 만한 정신연령이 너무 어렸을 때였으므로 공산주의는 막연히 나쁜 것이라는 정도밖에 이해가 가지 않고 어째서 공산주의가 나쁜 것이며 우리들은 왜 이것을 배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하에서 정신문제의 출발점은 어디에다 둘 것인가?

그것은 여러가지 방향이 논의될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선 자기 주변의 사소한 면에서부터 출발하여 점차 고차적인 것으로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교철학의 원조이며 동양의 대성(大聖)인 공자(孔子)는「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 하여 우선 자기 몸을 먼저 닦은 다음에 집을 다스리고 집을 다스린 뒤에 나라일에 전심하라고 하였다. 이 말은 곧 정신문제에도 적용되는 것이어서 먼저 우리들은 자아의식의 확립에서부터 출발하여 강력한 집단 의식, 민족의식의 형성으로 이행하고 최후에는 군대에서 특히 요구되는 지휘통솔과 인간관계를 원활히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서 필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의 제시는 논외로 하고 장병들의 정신력강화의 基本 방향을 거시(擧示)하면서 이에 대하여 평론을 전개하기로 하겠다.

(1) 자아의식의 확립과 창조정신

인간은 누구나가 자기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생활하며 또한 자기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어떤 일에 대해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불의로 생각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이것을 정의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곧 자아의식이며 정신력의 주관적인 요소가 된다. 다시 말하면 자아의식은 모든 사람들의 사상적 기초가 되며, 이것은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특권이다.

이와같이 자아의식은 인간의 내재적 측면을 지배하는 것이므로 건전한 인간의 바탕위에 확고히 세워져야 한다. 이것이 곧 장병들의 정신력강화의 첫째 조건으로 이 자아의식의 확립없이 애국심이나 전쟁목적,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이나 사생관의 확고한 정립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자아의식이 확고하게 되므로써 조국에 대한 충성심이 더욱 크게 발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병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더욱 강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며 또한 자율적 행동을 촉구하는 촉매제(觸媒劑)가 되기도 한다.

군은 무력으로 조직된 목적사회이므로 군이 전쟁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엄정한 군기(軍紀)를 유지하는 일이라든지 지휘권에 절대 복종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휘관이나 장병 개개인의 자율적 행동과 창조적 정신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아의식의 확립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2) 집단생활과 협동정신

과거「나치스」하의 독일군이나 군국주의시대의 일본군은 다만 지휘관의 명령에 무조건, 그리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므로써 강한 군기를 유지하였으며 또 이것으로 충분하였지만 패전당시의 독일군이나 일본군은 그야말로 오합지중(烏合之衆)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군집단에 있어서도「보스」의 강압적이며 독선적인 행동만으로는 도저히 군기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며, 장병간의 협동적인 인간관계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좋은 표본이 되는 것이다.

군은 하나의 확고한 목적을 가진 집단이며 장병들은 이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한다. 그러므로 장병 개개인은 군집단의「목적」의 성패에 따라 자기의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치관당과 확신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집단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것은 성원간의 동료의식인데 특히 군에 있어서는 장병간의 감정적인 유대가 중요시되는 것이다. 이 감정적 유대는 협동정신과 단결을 이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어느 집단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특히 군에 있어서 단결의 중요성은 구구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군은 한 이념아래 한 목표를 향하여 같은 행동을 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공동운명체로서 적을 무찌르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힘의 집중이 필요하며 힘을 집중하기 위하여서는 장병상호간의 협동정신과 전우애, 그리고 단결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손자(孫子)는 그의 병법에서「하늘의 도움은 지리(地利)만 같지 못 하고 지리는 인화(人和)만 같지 못하다」고 하여 인화와 단결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집단, 특히 군대에 있어서 인화와 단결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병간의 협동정신과 전우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집단생활에 있어서는 전우 상호간에 인애(仁愛)와 예절(禮節), 공과 사의 구별을 확실히 하므로써 집단의 단결력을 더욱 굳게 하여야 할 것이다.

(3) 새로운 이념의 형성

공산침략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약소후진국에 공통적으로 겪는 고민중의 하나이다.

소련의 공산주의 이론가인「기노뵈에프」(Ginoviev)는 공산주의를 정의하여 농업이 주도적 산물로 되어있는 후진지역의 노동자 농민을 선동하여 폭력수단에 의하여 정권을 탈취하려는 전략전술이라 하였다. 이러한「기노뵈에프」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공산주의는 정치적불안과 경제적불안정 그리고 사회적 혼란의 틈을 타서 부단히 후진지역에 그 세력을 침투해 가고 있으며, 우리들도 6.25를 시점으로 하여 그들의 폭악성(暴惡性), 잔인성, 그리고 기만성을 직접 체험해 왔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당면한 목표와 사명은 이 땅에서 공산주의를 뿌리채 뽑아 버리는 소탕작전을 광범하게 전개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앞서 일언(一言)한바와 같이 확고한 민주주의적 신념을 기초로 하고 그 위에 새로운 민족이념을 형성하여야 된다. 이러한 민족이념은 자유민주주의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자질을 기르는 것, 즉 자아의 확립이 선결문제가 된다. 자아의 확립이 없으면 자기가 민족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자각적 주체의식과 민족애를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자아의식을 확립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민족의 일원으로서 확고한 자각과 신념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조(李朝) 오백년 사상에 깊이 못박힌 사대주의와 파당의식(派黨意識), 그리고 배타적 근성위에서 자라난 정신상태로서는 민족이념형성의 바탕을 이룰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구정권하의 불법, 부정부패는 소수인의 의식속에 흘렀던 독소요, 악질근성으로서 이것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민족이념을 형성해 나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인간개조와 자아혁명에서부터 출발하여 자율정신과 자발적 행동을 추구하고 나아가서는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적 이념으로 굳게 무장하여야 한다.

C. 지휘통솔과 인간관계

국토방위와 국가안전보장의 유지를 그 존립목적으로 하는 군대는 다른 사회집단에 비하여 여러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것은 그 조직의 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군대는 그 임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국가의 통치권을 배경으로 하고 강력한 지휘통솔계통에 의하여 그 명맥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군에 있어서의 지휘통솔은 명령이나 복종이 모두 강력한 절대성을 지니고 있으며 계급에 대하여는 그 존엄성이 견지되도록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회집단이나 행정기관과 달라서 군인은 자기의 임의대로 그 조직을 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 유사시에는 귀중한 생명까지도 바치도록 강요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군에 있어서는 지휘권의 확립과 더불어 강력한 군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그 핵심적과제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휘권이나 군기의 확립문제는 과거「나치스」나 일본의 독재적인 군대에서 한 것처럼 지휘관은 절대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부하 장병들은 다만 지휘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만으로도 그쳐서는 안되는 것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서 지휘관과 장병들 상호간의 인간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최고지휘관으로부터 말단지휘자에 이르기까지 지휘자로서의 덕성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이것은 부하 장병들에게 커다란 감화력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부대의 임무수행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지휘관의「리더쉽」(Leadership)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명령과 복종의 절대성을 배경으로하여 오직 계급만으로 장병들을 지배하고 지휘관의 권한을 무조건으로 행사하는 것만이 지휘통솔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지휘관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는데 오늘날과 같이 민주적인 상태하에서는 장병 개개인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의 결집을 촉구하지 않고서는 최고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각급 지휘관들은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지휘통솔의 방법은 부하장병들과 지휘관이 선의의 인간관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불가분의 요소이며 지휘관은 계급이나 권위보다도 자기 개인의 인격, 덕성, 기품, 그리고 높은 교양을 겸비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지휘관에게 요구되는「리더쉽」의 요건이며 참다운 지휘관의 자세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상하할 것 없이 모두가「휴머니즘」에 입각한 인간관계를 기초로 하여 강력한 정신적 결속을 이룩하고 또 이것을 우리의 영원한 지표로 삼아 나가야 할 것이다.

4. 결론

우리는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다. 6.25전란의 민족적 비극은 155마일 휴전선을 남긴 채 아직도 북한 공산괴뢰를 조국의 북부에 그대로 칩거(蟄居)케 하므로써 재침(再侵)의 불씨를 그대로 묻어둔 불안을 남겨놓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업은 무엇보다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다시는 지난날과 같은 침략을 당하지 않도록 철통같은 반공태세를 강화하여 나가는 것이다. 비록 전진(戰塵)과 포화(砲火)속의 참극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북한괴뢰들은 지금도 부단히 그들의 군사력을 정비강화하는 일방 은밀한 가운데 대남심리전공세를 취하여 간접적인 침략을 기도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항생력이 강한 병균과 같다.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불안전, 그리고 사회적 혼란의 틈바구니에 부식(腐蝕)하여 오랫동안 잠재해 있다가 어떤 계기가 닥쳐올 때 비로소 고개를 쳐들고 무섭게 번져나가게 된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에 대비하여 냉철한 현실분석을 가하고 정확한 사태의 파악으로 전력증강에 과감한 전진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전력증강에는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를 병행해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요건은 정신력의 강화가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다시 말하면 확고한 반공정신이 국민들이나 장병들 개개인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어 이것을 자기 생활의 일부로 이해하게끔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각있는 생활체제의 확립을 위한 국민교화운동을 광범하게 전개하는 한편 군에 있어서는 괴뢰군의 정치조직과 정치공작에 대적할만한 정훈기구(政訓機構)를 강화하고 장병들에게 철저한 이념교육과 생활실천교육을 통하여 강력한 정신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강력한 반공이념으로 무장된 정신적 지주만이 공산주의와 싸워 이기는 길이며 또한 우리의 궁극목표인 국토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들 스스로가 깊이 자각하여야 하는 것이다. -끝-

◇ 사람과 돈

「나는 아직 돈을 탐내본 적이 없다. 사람을 탐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언제나 돈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근면한 사람,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보면 나는 그 사람을 흠쳐서라도 가져오고 싶었다」

이 말은「헨리·포드」의 수기에서 나타난 한 귀절이다.



취미

고도로 기계화된 현대의 틈바구니에서 허덕이는 우리 현대인에게 다소라도 심신의 위안이 되고 보다 나은 내일의 설계에 용기와 지혜를 보태줄 수 있는 건전한 오락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꺼이 섭취하여야 될 것이다. 고상한 취미는 교양의 바탕이고 건전한 오락은 생활의 위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기의 성격과 취미에 알맞는 건전한 오락을 가능한 한 즐겨야 될 것이다.

이제 여기서 여러가지 오락과 취미 중에서도 우리의 경제 및 주위환경에 적합한 몇 가지를 택하여 간단히 소개하여 보겠다.

오락

낚시

낚시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인류의 선조인 원시인들이 그들의 생활 수단으로 수렵과 고기잡아먹기 즉 낚시를 하므로써 자연적으로 전래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낚시의 묘미와 고상한 취미는 경험자가 아니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대자연의 품속에 안겨 호연한 기상을 맛보면서 오고 가는 구름과 물 위에 수초, 그리고 활짝 열린 창공을 벗삼아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 이것은 과연 우리의 구겨진 정신과 때묻은 속진(俗塵)을 후련하게

씻어주는 심신청량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탁한 도시생활인들에게는 이 대자연의 품이 언제나 필요한 것이다.

예비지식

처음 낚시를 아는 사람은 찌의 움직임, 즉 찌가 조금만 움직여도 고기가 물은 줄 알고 낚싯대를 쳐들게 되는데 이것은 틀린 생각이다. 찌가 움직이더라도 좀 참고 있다가 찌가 물속으로 폭 들어가거나 쑥 물 위로 올라올 때 놓치지 말고 낚싯대를 재쳐야 된다. 이때 팽팽하게 붕어가 솟구치는 맛이 낚시꾼에게는 가장 즐거운 때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것은 붕어가 낚시에 걸렸을 때는 누구나 한시 바빠 올리고 싶어서 야단인데 이것은 좋지 못하다. 마음을 가라 앉혀서 조용히 앞으로 끌어와야 된다. 팽팽한 줄을 놓아 주어서는 붕어는 물었던 바늘을 뱉어 버리고 도망치는 것이다. 낚싯줄은 그대로 팽팽하니 다루면서 조용히 올려야 되는 것이다.

어구(魚具)에 대한 상식

낚시대 선택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끝이 부드러운 것이 좋다. 낚싯대는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중추적 역할을 하느니 만큼 선택과 사용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 가볍고 날렵하게 곱은데가 없이 쭉 곧아야 된다. 특히 우리의 형편에는 두 간 반 짜리 이음대(여러 마디를 꿰어서 한개의 낚싯대로 만든것)가 적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여기에 묶을 낚싯줄의 길이는 대의 길이보다 약 한자 가량 길게 매는 것이 좋다.

미끼의 선택은 낚시 경험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데 동물에 육식동물과 채식동물 육 채 두가지를 다 하는 동물이 있는 것과 같이 고기들도 식물성만 취하는 놈과 동물성을 취하는 놈 그리고 두가지를 다 취하는 놈이 있다. 이런 것을 모두 혼합한 것이 떡밥이며 지렁이, 새우, 우동, 밥풀 등의 미끼를 적시적소에 따라 사용한다.

기술적인 문제

낚시의 기술적인 문제란 다음의 열 가지를 말할 수 있겠다.

①도구의 정선 ②미끼의 정제 ③장소의 선택 ④유인하는 방법 ⑤조용해야 할것 ⑥반드시 그 자리에 던질 것 ⑦끈기있게 기다릴 것 ⑧낚시찌를 웅시할 것 ⑨정신을 통일할 것 ⑩즐거운 마음으로 할 것, 상술한 10개 조항을 잘 이행한다면 그는「베테란」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자리 즉 고기가 많이 모인 곳을 육감으로 알고 선택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 다음이 좋은 미끼를

사용하는 것이고 다음엔 끈기있게 고기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이 세가지의 요소는 인간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철학적인 것을 교훈하는 것과 같다. 우선 우리 초보자들에게는 처음부터 자기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 금물이다. 선배를 몇번 따라 다니면서 차츰 요령과 기술 및 예법을 배워야 된다.

낚시구의 선택도 자기 혼자 하지 말고 선배와 같이 가든지 또는 그들의 충고를 들어야 된다. 현재 수중에 약 2천원 정도만 있으면 낚시대, 낚시줄, 바늘목줄, 낚시봉, 쥘, 바구니 도구 넣는 가방, 낚시대 주머니, 뜰망, 미끼통, 낚시대 받침, 줄얼레, 가위, 창, 칼, 수건, 찡이 넓은 모자, 조그만 의자 등 낚시구 일체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준비하여 두면 오랫동안 쓸 수 있다.

登山

요즘 공휴일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몇몇 친구들과 끼리 야외나 산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이것은 확실히 좋은 취미라고 할 수 있겠다. 모처럼 맞이하는 휴일을 답답한 방구석이나 또는 공기가 탁한 침침한 다방이나 대포집 등에서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 보다 자기의 심신을 단련하고 보다 후련한 호연지기를 맛보면서 산으로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시원스럽고 건전한 취미라고 하겠다.

멀리 하늘 높이 솟아 오른 산맥을 바라볼 때 어딘지 모르게 장엄하고도 신성함을 느끼게 되며 동이 뜰때나 해질 무렵에 붉은 태양이 먼 산에 비치는 광경은 실로 아름답고도 고상하다고 할까?

등산은 취미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체력과 정신력 즉 인내력이 소요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군사훈련상으로도 필요한 것이며 또 모든 스포츠의 왕자라고도 할 수 있겠다.

등산구의 준비

등산 기구와 장비는 올라갈 산의 거리, 험한 정도, 계절관계, 자기의 능력 등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달라지겠으나 되도록이면 간편하게 차리는 것이 좋다. 이제 등산구의 준비에 유의할 점은 ①사용효과가 있는 것 ②중량이 가볍고 용적이 적은 것 ③내구력이 강하고 튼튼한 것 ④사용하기가 편리한 것 등이라 하겠다.

1. 등산복

상의와 하의를 막론하고 품이 넉넉하고 질긴 것이 좋겠다. 상의는 되도록 주머니가 많이 달리고 목을 충분히 감싸줄 수 있도록 셔를 길게 달아야 한다.

2. 양말

두꺼운 순모의 양말이 적합하며 당일로 돌아오는 등산이라도 반드시 여러벌을 준비해야 된다.

3. 우장

아무리 당일치기 등산이라도 우장의 준비가 꼭 필요하다. 될 수 있으면「룩새크」를 완전히 덮어 씌우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실용적인「레인코트」가 좋다.

4. 등산화

등산의 기본 장비가 바로 등산화다. 일반적으로 보면 두껍고 무거운 구두 밑에 정을 박은 구두를 많이 신지만 이것은 상당한 경험자들이 험한 고산을 올라가는데는 적합하나 초보자에게는 가벼운 운동화가 더 좋다.

5. 수통 및 전지 기타

이것은 잊어서는 안될 휴대품이다. 수통은 5홉들이 정도의 크기가 좋으며 군대용 수통이 가장 좋다. 그리고 만일을 염려해서 약품 및 전지와 양초 몇 자루를 꼭 준비해야 된다.

6. 룩새크

룩새크는 방수가 잘되고 밖에 주머니가 많이 달린 질기고 가벼운 것이 좋다. 이외에도「픽켈」「텐트」침구, 취사도구 등 많이 있으나 이것은 당일치기 초보자에게는 필요없다.

등산계획과 준비

등산의 계획에 있어서는 먼저 올라갈 산의 난이성, 동행자의 능력, 목적지까지의 거리 및 시간, 일기 등의 조건을 잘 검토해야 된다. 초보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독단 등산인 것이다.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혼자 산에 가지 말아야 한다.

초보자에게는 힘과 내구력을 기르기 위해서 예비훈련이 필요한데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아령, 줄넘기 체조 등을 하고 또 버스나 전차를 탔을 때도 되도록이면 손잡이를 잡지 말고 몸의 중심을 잡도록 연습하는 것도 좋다.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평상시 예비훈련이 부족한 사람은 평탄한 언덕을 오르내리는데도 땀을 흘리며 피로해 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 평상시의 예비훈련이며 또 휴대품으로서도 소금, 설탕이나 카라멜 등의 피로 회복제를 꼭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심신박약자에게 이 등산이야 말로 꼭 필요한 스포츠라고 전하고 싶다.

바둑

바둑은 먼 옛날 중국에서 시작되어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처음 전래되었으나 그때는 일부 특수층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수 오락이었다. 그 후 이조 말엽에 와서 대중화하기 시작하여 815 및 625전란을 겪은 후 급속도로 보급이 되어 지금은 일반 대중에게 없어서는 안될 만큼 인기있는 오락이 되었다.

바둑을 신사의 오락이니 정신수양의 오락이니 운운하는 것은 바둑만이 간직하고 있는 조용하고 고상한 성격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근심, 걱정을 하고 복잡한 생활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도 일단 바둑을 잡기 시작하면 잡념은 깨끗이 사라지고 오직 거기에만 몰두하게 된다.

더구나 현재 바둑을 통한 국제교류의 길이 트여 있으니 이 바둑을 국가적인 견지에서 볼 때 우방과의 민간 외교에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초지식

바둑은 두 사람이 두는데 때로는 4인 이상이 합작하기도 한다. A와 B가 둔다면 이 둘을 대국자(對局者)라 하며 흑과 백을 서로 번갈아 사용하여 중국에 가서 집을 많이 차지하면 흑이 이기는 것이다.

바둑판은 가로 세로 각각 19의 평행선을 그어 그 교점이 361이고 이 교점 위에 돌을 두어 간다. 이때 바둑돌 1개를「한점」이라 하고 판면의 눈 하나를「안목」이라 한다. 그리고 판위의 아홉 곳에 큰 점이 찍혀 있는데 이 점을 화점(花點)이라 하고 그중 중앙의 화점을 천원(天元)이라고 한다. 또 상하 좌우의 방향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중앙에 가까운 곳을 높다고 하고 중앙에서 떨어져 판면 가에 가까운 곳을 낮다고 부른다.

1. 연속과 절단

바둑은 서로 집을 점령하기 위해서 연속을 계속하며 상대의 힘을 꺾기 위해서 절단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다. 자기의 세력권을 넓히기 위해서는 연속이 필요하고 남의 집을 침범 및 남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절단을 하는 것이다.

2. 집

바둑의 목적은 판면에 있어서 서로 점령하는 집의 대소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집이란 결국 연속한 각각의 돌에 의하여 포위한 지역을 말한다. 그러나 자기 집 속에 적이 들어와 도 그것을 조치할 수 없으면 집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완전한 집이란 연결된 각각의 돌에 의하여 포위한 지역에 적이 침범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자기의 집에 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땅 두개 즉 두눈을 만들어야 된다. 만일 이렇게 하지 못하면은 적이 침범하여 그 지역을 전부 차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점을 주의해야 된다.

3. 패와 비김

바둑을 계속하여 두다가 보면 피차간에 단수가 되는 적이 많은데 이것은 A가 B를 따먹으면 B가 A를 또 따먹는 것이 된다. 피차간에 양보를 하지 않으면 무제한 계속되는 것이다. 이에 바둑 규칙에 동형반복금지의 규칙이 있어 이를 금지하고 다음으로 패를 이용하게 된 것이다. 바둑 한판에 이 패가 수차 생기게 되고 이와 흡사한 비김수가 또 생기게 된다. 비김이란 A, B, 어느 쪽의 땅도 아닌 것이다. 실전에 있어서 하수(下手)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패라고 할 수 있다. 상수는 어떻게 하든지 패를 만들어 하수를 혼돈시켜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패 자체는 간단하지만 패가 생겼을 때 그 패의 장소와 조건에 따라 1국의 승패가 좌우되는 중대한 요소이다.

4. 중국(終局)

A, B, 양대국자가 더 둘데가 없다고 서로 합의 될 때 이를 중국이라고 하는데 바둑이 끝나면 쌍방이 잡아먹은 돌로서 상대방의 집을 메운다. 이에 결과가 A의 집 50, B의 집 60이라면 B가 10목 이겼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1국이 끝나는 것이다. 초보자에게는 여러가지 바둑의 용어와 기술이 쉽게 습득되지 않겠으나 차츰 익숙하여짐에 따라서 급수가 오르고 기술이 습득된다. 그러나 이것은 수주, 수개월 내에 습득되는 것은 아니다.

아메리카의 세계적인 국제문제 평론가「윌터·리프먼」씨는 앞으로의 국제정세의 전망에 대하여 매우 중대한 견해를 발표했다. 이 글은 씨가 최근 발표한 공산주의의 추세를 세계 정세와 결부시켜 논평한 장문의 평론을 요약한 것이다.

A. 자유세계의 전망

금년들어 나타난 중요한 현상은 동서 양 진영이 모두 두드러진 내분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공산진영에 있어서 소·중공 간의 충돌이 그것이고 자유진영에 있어서「프랑스」의「드·골」이 내세운 노선이 그것이다. 소련에 대한 중공의 반발이 공산진영을 완전히 갈라놓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드·골」의 고집이 간단히 거두워질 것 같지는 않다. 때문에 이러한 미묘한 양 진영의 사태는 그것으로 인해서 간단하게 마·소의 힘을 그전처럼 비교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제 소련은 그 지배력이 공산세계 전역에 미치지 않게 되었다. 적어도 소련은 아세아 지역에서 그 지배력을 상실해 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금년 1월에「드·골」은 기자회견에서 그의 독자적인

윌터·리프먼

최근의 세계정세

노선을 밝힘으로써 자유 서방진영의 대동단결에의 길을 막았다. 「프랑스」의 이와 같은 반발은 그들은 물론 서구가 자립하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구라파가 제2차 전쟁의 폐허에서 부흥함으로써 미국에의 의존이 근대처럼 절실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전쟁 중의 구라파는 완전히 미국의 보호하에 있었다. 종전이 되었을 때도 미국은 거대한 재력(財力)과 무력(특히, 원자탄)을 가지고 있어서 서구라파는 미국을 떠나서 존립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미국의 절대적인 보호와 원조로서 오늘날 서구는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지역이 되었고 그 부담이 미국보다 적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의 속도는 미국보다도 빠르다.

서구는 이제야 소련의 위협을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는 않게 되었다. 미국인과 서구인들의 냉전관이 달라졌다. 이제 그들은 소련이 서구를 공격하리라는 생각을 믿지는 않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드·폴」장군의 생각을 캐어보면 「이제 위협은 지나갔다. 우리가 걱정할 만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될 것이다.

B. 공산세계의 전망

소·중공관계는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른바 이념분쟁은 사실 그들의 지배권을 확장하려는 싸움이며 양국의 실제문제에서 보더라도 소련은 동진(東進) 정책이요 중공은 북진(北進) 정책이며 또 그들의 지리적 조건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나는 막대한 인구를 거느린 중공은 만주나 신강을 뚫고 넘쳐나게 되었다. 북한을 비롯해서 동남아 공산지역에 있어서의 소련의 영향력은 그것이 중공과 바뀌어지고 있으며 라오스에 있어서도 중공이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중공간의 분쟁은 생각보다 심각화 했다. 그들의 분쟁을 억제하거나 해소할 만한 조건은 보이지 않는다. 모택동(毛澤東)의 머리는 그 늙는 속도가 「후루시초프」에 비해서 빠르기 때문에 그의 권력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후루시초프」는 모택동에 비해 현실적이며 의식적으로 늙지 않으려하고 있다. 모택동은 자기 머리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후루시초프」는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후루시초프」는 소련의 문학·예술인들을 눈에 띄우게 경계하고 있으며 감시하고 있다. 그것은 문학·예술들의 반발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동향은 지금의 시대가 다른 시대로 전환하려는 중조이기 때문이다. 소련은 언제나 어떤 사회적인 커다란 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이 있기 전에 문학·예술분야에 혁명이 선행되었다는 사실(史實)이다. 지금 소련에 있어서 반항하는 계급은 예술인과 지식인들이다.

전체주의 독재체제에 있어서 그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그 빈틈없는 통치체제이다. 이것이 흐려지면 그 체제는 무너지게 마련이며 가령 지금의 소련사회에 갑자기 자유를 준다면 아주 흩어지고 말 것이다. 반항하는 예술인 지식인을 비판하는 소리가 높아짐은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련 내의 이와 같은 동향은 물론 중공과는 관계가 없으며 더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제국과는 관계가 없고 오직 소련 자신이 가지는 문제요 「후루시초프」가 실은 가장 애태우는 문제일 것이다.



수금(收金)의 묘방(妙方)

김태길(金泰吉)

6·25가 나고 시골서 피난살이에 쫓기던 시절, 어느 고등학교에서 초급 독일어를 가르친 일이 있다. 새학기가 시작되던 한 달포쯤 지났을 무렵에 우편물 하나가 날라 왔다. 내 이름으로 보낸 것은 아니나, 「독일어 담당 선생 귀하」라는 수신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 이내 책상 위에 놓였던 것이다. 발신인은 대구에 있는 어느 출판사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내용은 인쇄물. 요컨대 자기네 회사에서 발간한 독일어 사전을 학생들에게 팔아 달라는 교섭이었다.

물론 거저 자기네의 심부름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자세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었다. 책값을 30퍼센트 할인해 준다. 그 가운데서 10퍼센트는 사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입히도록 하고 나머지 20퍼센트는 「피난살이에 여러 가지로 곤란이 많으실 선생님의 연구비로」 보태 쓰시라는 것이었다. 독일어 선생은 나 한 사람 밖에 없으니, 학생들이 반수만 사 준대도 상당한 수입이 될 수 있는 계산이었다.

교실에 들어간 기회에 조사해 보았더니 사전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아직 한 사람도 없었다. 사전 없이 외국말을 배운다는 것이 매우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학생들에게 그것을 사도록 하려는 마음을 먹었다. 우선 대구에서 온 책광고 얘기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이 기회에 단체로 사면 30퍼센트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였다. 「교사용 연구비」조로 감해 준다는 20퍼센트도 학생들의 이익으로 돌리겠다고 제언했던 것이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사겠다고 희망하였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사겠다는 의사였다. 나는 곧 필요한 권수를 대구로 알렸다. 얼마 후에 책이 도착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대금은 학급대표에게 건우어 달라고 일임하였다.

단 이야기 쓴 이야기



그 책값이 거치는데 며칠이나 걸렸던지 기억이 상세치 않으나, 그리 여러날 걸리지 않은 것 만은 확실하다. 여하튼 전액이 거친 다음 날 쯤 그것은 대구로 우송되었으며, 그것으로 그 일은 일단 끝났다.

독일어 사전에 관한 일이 거의 염두에서 사라졌을 무렵에, 어떤 낯모를 신사 한 분이 학교로 찾아왔다. 명함을 보니 대구의 그 출판사 사장이다. 우선 사전을 여러 권 팔아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가 있었다. 그 다음에 청주(淸州)는 조용해서 좋으니, 역시 서울이 빨리 수복돼야 하겠느니, 그러한 말이 오고 갔지만, 그것은 그저 어색한 순간을 메꾸기 위한 기계적인 회화에 불과하였다. 기계적인 대화를 얼마든지 계속할 수 있을 정도로 입담이 좋은 편은 피차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쑥스러운 질문으로 새로운 화제를 모색해야 했다.

「청주에는 잘 아시는 분이랄도 계십니까?」

「어쨌요, 선생님 쯤 뵈나꼬 역부러 찾아오는 길입니다!」

「아 그러십니까?」방 한칸 빌어 셋방살이 하는 처지인지라 잠자리 까지는 걱정 못하더라도, 점심대접은 해야 하겠고나 생각하면서 다음 말이 나오기를 기다린다.

「선생님요! 다름이 아니라에, 그 수금 하는 방법 말입니다. 그 수금하는 방법을 쯤 말씀해 주이소!」

장사를 생업으로 삼는 출판사의 사장이 일개 학교의 훈장을 보고「수금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처음에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설명을 듣고 보니 이렇다.

사장은 똑같은 방법으로 남한 각지에 독일어 사전을 팔았다. 그런데 다른 학교에서는 아직 하나도 책값이 완전히 들어온 곳이 없는데, 청주여자고등학교에서만 예상 밖으로 빨리 들어 왔다는 것이다. 작년에 판것도 아직 수금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다고 덧붙이며, 수금의 방법이 책장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려고 애썼다.

그러나 나로서는 별로 할 말이 없었다. 돈 걷는 일은 학급대표에게 일임했으니

〈수필〉



그를 쯤 만나보겠느냐고 물어보았다. 사장은「글쎄요?」하고 잠간 망설이더니 학급대표 만나는 일에 찬성하였다.

학급대표가 불러왔다. 그러나 학급대표도 별로 신중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저 학급비를 걷을 때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거두었을 뿐이라고 대답한다.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사장의 표정을 바라보던 학급대표는 이렇게 말을 보탰다.

「아마 책 값은 3할인 해 준 것이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김선생님이 그렇게 까지 해 주셨는데 선생님의 신용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내야 할게 아니냐고, 그런 말은 한 적이 있어요!」

그제서야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쾌하다는 듯이 한번 껄껄 웃었다. 내가「연구비」를 떼지 않았다는 사실이 관건(關鍵)이었다고 납득이 간 모양이다. 그러나 한몫으로는 약간 실망한 듯한 눈치를 감추지 않는다. 학급대표를 돌려보낸 뒤에 사장은

「허지만 선생님요, 3할인 해주셨다는 건예, 널리 소문 안 퍼지도록 해 주이소예!」

유쾌하다는 듯이 다시 한번 껄껄 웃고 사장은 작별의 악수를 청하는 것이었다. 나도 유쾌하게 웃었다. 다음 수업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멀리 여름 하늘로 메아리 진다.

〈연대 교수〉

물물의 세대교체

김경안(金卿岸)

이 강가의 언덕 마을에는 이따금 양은 그릇 장사가 지게로 한바지기, 솟이니 냄비, 밥그릇, 밥통, 찬합, 쟁반, 대야 등등을 지고 올라온다. 이 양은 그릇 장사는 물론 현금을 받고 팔기도 하지만 대개는 현 그릇이나 냄마와 바꾸고 현금을 몇푼 더 받거나 외상으로 거래를 두어 오랜 시일을 끈다.

단 이야기 쓴 이야기



이 마을의 주부들은 여기는 물론 어엿한 서울특별시지만 나는 이 동리를 마을이라고 부르는 것에 더 호뭇함을 느낀다. 왜냐하면 여기는 강가의 언덕이요 언덕 위에는 채전 사이 사이에 뜨문 뜨문 인가가 서 있으며 강이 굽어보이는 것은 물론, 강건너에 짙은 섬이 바라 보이고 좀 더 멀리 철교 위로 기차가 달리는 것이 보이며 기적소리까지 울린다. 이러한 풍경이 도시라기 보다는 또 교외라기 보다는 촌락의 마을같은 인상을 주는 동리이기 때문이다.

이 동리에는 서울의 주변처럼 판잣집이 누더기로 붙어 있지 않다. 초가일 땅정 저마다 넓다란 채전들을 가지고 있어 매마르지만 자급자족의 생활들을 영위하고 있어 판잣집이 드러설 공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주민들은 일 년 내내 인분냄새를 맡으며 살아야 하지만 어쨌든 바라보는 풍경만은 시원한 별장지대이다.

그러한 이 마을의 주부들은 한 두푼을 모아 양은제품 살림살이를 장만해 가는 것이다. 뉘집의 부엌 선반에서도 노란 양은제 살림들이 번쩍거리는 것을 보면 분홍, 자주색 모란 꽃무늬가 새겨진 밥통, 쟁반, 냄비들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부엌의 선반에도 꽃무늬들만은 없어도 이 노랗고 하얀 양제이며 이남박이며 스텐레스의 자수통들이 들먹어리기 시작했다.

바가지나 나무 이남박, 함지 같은 부엌 살림도구들을 요새 아이들은 쓰기 싫어한다. 크고 작은 여러개의 바가지를 눈에 펼쳐마다 사다주었는데 며칠 만 큼씩 그 바가지들은 물이 탕탕 불어 곰팡이가 나 있거나 말라서 쪼개진 쪼가 리들이 굴굴어 다니는 것이 눈에 띄기 일수이다. 이남박 함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바가지나 이남박을 쓰고나서 깨끗이 솔뭍지로 닦아 말려서 다시 쓰는 일을 요새 아이들은 단 한 번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양은 그릇이 편리하다고 할 수 밖에.

바가지도 그렇거니와 나무 그릇을 손질해 가며 쓰면 얼마나 운치(韻致)있는 물건들이 될 것이지만 요새 아이들은 그러한 운치같은 것을 모르기도 하거니와 솟제 무시하려고 든다. 내가 손수 부엌살림을 하지 않는 한 아무리 강요해도 부엌의 아이들은 저희들 편리할대로 하고 만다.



초여름 햇벌이 제법 뜨거운데 오늘도 양은 지게 장사가 이 언덕 마을을 향해서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어쩌다 집에 있으려니 아이들이 사달라고 조르는 것이 많다. 양은 밥통을 하나 사자고 야단이다.

좀 있으면 소쿠리를 쓸텐데 물이 도는 양은 밥통은 사서 뭘 하느냐고 나는 처음에는 대꾸도 안 했지만 아이들 얘기가 요새 신식 밥통은 물이 들지도 않고 아주 잘 만들어 졌으니 한번 구경해 보라고 설명이 길었다.

나도 어쩌다 한가한 날 심심풀이로 그래 어디 얼마나 잘 만들어 졌느냐고 솔깃해지는 의사를 보인 것이 그만 오늘의 첫 실수가 되고 만 것이 아닐까. 대체 밥통은 증기를 뿜도록 이중으로 되어 있는 등 과거의 물건들 보다는 훨씬 잘 만들어져 있다. 양은이남박도 모양도 제법 날씬하니 가벼운 맛이 나무이남박을 아이들이 쓰기 싫어할 만도 했다. 밥통이며 이남박이며 서름질 그릇이며 주섬 주섬 집어 논 것이 못 쓰게 된 냄비와 솥들을 내 주어도 몇백원을 지불하게 생겼는데, 돈 보다는 자꾸만 낯부치를 내노라고 조르지 않는가. 낯그릇이라고는 거의 없어져 가는 형편인데다가 요새 구공탄이라는 마물 때문에 그 연탄 냄새만 끼치면 낯그릇이 시커맴게 변색하고 마는 통에 겨울에 식구의 밥그릇을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았다.

뭐가 남았을까 하고 다락을 들여다 봤더니 다리 하나가 부러진 쇠도 그다지 좋지 않은 낯 화로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이런것 귀찮게 집만 되니 주어버릴까 하고 망설이는데 아이가 눈치를 채고 쥐 버리자고 하는 바람에 무심코 내주고 말았다. 양은 장사는 좋아라고 얼른 받아서 계산을 다시 한다. 밥통, 이남박, 서름질통하고 맛바꾸자고 한다. 돈으로 치면 몇 백원, 요새 돈이란 험프고 가치도 없지만 쓰자고 보면 또 아까운 거다. 돈을 벌자면 참 힘 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낯 화로와 바꾸고 말았는데, 양은 장사는 다리 부러진 화로를 받아서 즉시로 다리를 분질러 버리지 않는다.

그 순간 뒤늦었지만 앓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리를 고쳐 이다음 화실에 제떨이로



단 이야기 쓴 이야기

쓰면 그 물건이 운치를 풍길 것인데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보니 왜정 초기에 지각 없는 아낙네들이 고려자기와 왜사기를 바꾸었다고 하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부스러졌을 망정 낫 화로와 양은 냄비 쪼가리를 바꾸었다는 것은 고려자기의 경우와 오십보 백보의 차이 밖에 안 될 것이다. 아이들은 좋아라고 반짝거리는 양은 그릇들을 부엌에 자리 잡노라고 야단인데 나는 고만 보기 싫어서 다시는 양은 장사를 집에 디려놓지 말라고 아이들한테 야단을 쳐놓고는 그러나 아이들이 어머니가 낫 화로에 미련이 있다고 눈치 채는 것은 더 한층 싫으니까 슬며시 다락에 올라가 이것 저것 뒤적이다가 낫 국자와 낫 주걱을 찾아 냈다. 국자는 근사하게 청동이 앉아 그대로 하나의「오브제」가 되어 있었다. 국자는 그대로 고리를 해서 마루 기둥에 걸고 보니 근사했다.

낫 주걱은 깨끗하기에 더 닦아서 그대로 어디 탁자위에 얹어놓고 볼 생각을 한다.

그러나 서글픈 것은 우리의 생활이 자꾸만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해 가는 일이다. 우리의 좋은 것들이 덧 없이 사라져가는 모습들이다.

묵직하고 소박한 생활의 멋들이 얇작한 양은 양재기쪽 등속으로 바뀌어지는 느낌이다. 아이들의 시대는 간편주의요, 스피이드를 좋아하며 자스와 트위스트를 즐긴다. 무수한 양은 양재기를 쓰다가 비뚤어지면 버리고 새것으로 바꾸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이미「푸라스틱」과「비니루」의 생활이 아니었던가.

〈수필가〉

우리네 인생의 지옥과 천국

오영진

붓을 들고 원고지 앞에 앉아 글쓰는 사람의 심정과 태도는 출동 5분전의 제트

파일롯트나 휴전선 중대 OP의 장병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 항상 생사와 대결하는 듯한 엄숙한 긴장감을 느낀다. 이러한 긴장감이 우리에게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어떻게 생긴 것인가. 인생을 관조(觀照)함에 있어서 또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너무 차갑게 멀지도 않고, 너무 거만하게 높은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비굴하게 너무 낮은 자세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정확하고 참된 지점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점을 찾아 끝없이 사색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이 지점을 발견하고 이 지점에 설 때, 비로소 참된 인생의 모습과 의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이란 곧 다름 아닌 우리의 양심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양심이란 또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

양심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이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그 중 우리 글쓰는 사람이나 군인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휘히테의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유명한 사상가이며 철학자인 그는「양심이란 사람이 어떤 경우에 처해서나 우리들이 묻기만 하면 무엇이 우리들의 의무라는 것을 서슴지 않고 말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군인에 대하여 무엇이 군인의 의무라는 것을 말해 주는 힘, 즉 군인의 양심에 대하여 나는 여기에서 긴 말을 늘어놓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군인들이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좀 쑥스럽고 외람된 일이지만 작가의 양심 곧 작가의 인생관이라 할까 또는 인생에 대하는 태도를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말하고자 한다.

창작이란 결국「사람」을 그리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깊이 하고 사람과의 접촉을 긴밀하고 성실하게 유지하며, 사람의「마음」을 이해하고 인식하는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작가는 기회만 있으면 여러곳으로 두루 돌아다니며,「사람」들과 만나야만 한다. 절해 고도에서 아직도 원시적인 방법으로 고기잡이를



단 이야기 쓴 이야기

해서 근근히 입에 풀칠하는 가난한 어부의 살림도 알아봐야만 하고, 또는 산간벽지의 손바닥만한 논밭을 파먹고 사는 두더쥐같은 가난한 농민들과도 걱정을 함께 나눠야 한다. 작가는 또한 맨 손으로 바다를 막아내어 염전을 풀어 갑자기 풍성풍성한 난민정착지도 방문하고 혼자몸으로 씩씩하게 일하며 아들 딸을 길러내는 전쟁미망인도 격려했고, 무의무탁한 전쟁고아와 악의 길로 자기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던 불량소년과 소년범죄자들의 쓰라린 환경과 불행한 조건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을 착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야 했다. 심지어는 대남공작원으로 밀파되었다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감하게 전향한 북한 의 지식인과의 만남도.

이 모든 일은 나의 작품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도 있다. 물론 이같은 체험을 통하여 보잘것 없는 몇개의 작품이 창작되었으나 나에게 더 귀한 소득은 작품 생산보다도 이러한 접촉을 통하여 나 자신 자체에 대하여 더욱 확고하고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게 되고, 인생에 대하여 더욱 겸허해지고 인생의 희열(喜悅)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란 옛사람들이 말 하듯이 하나의 연극이며, 고통스러운 바다이며, 뜬 구름처럼 허무한 것이고, 죽기 전에는 헤어날 길 없는 어두운 지옥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인생은 이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여하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있다는 굳은 신념을 얻은 것이다.

비참한 환경에서 해매는 사람, 또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소년들과 만나서 사귀고 서로 가슴을 열어 젖히고 성심껏 이야기를 주고 받는 동안에 어느덧 우리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이 저절로 무너지고 성실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깊은 이해와 호뜻한 인정과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에 마주칠 때 마다 나는 뜻하지 않게 천국과 같은 기쁨과 만족을 발견했다. 고관대작이나 날치기 양생이의 차별 없이 우리들의 인생에는 한결같이 항상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우리는 견잡을 사이 없이 지나치는 이 찰나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 순간을 발견하고 추구(追求)하기 위하여 성심껏 노력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기쁨(喜悅)의 순간은 사람과 사람의 접촉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과 격리된 고독한 환경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하잘것 없이 평범한 우리들의 개인적인 일상생활에서도 쉽사리 찾을 수 있다.

헤밍웨이의 유명한 작품「바다와 노인」의 주인공인 늙은 어부의 외롭고 고난에 가득찬 인생이야말로 우리네 인생의 천국과 지옥을 그대로 상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기잡이 도구라고는 낚시와 밧줄과 조고만 손칼 하나 밖에 없는 늙은 어부는 오늘도 큰 고기를 잡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조각배를 저어 망망한 바다로 나아간다. 거센 풍랑과 비바람과 굶주림과 물고기와 싸우며, 며칠 동안 밤과 낮을 꼬박 혼자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 넓고 무서운 바다 위에서 죽을 힘을 다한다.

그러나 그가 온갖 힘을 다해서 잡은 물고기는 앙상하게 뼈만 남기고 상어떼에게 뜯어 먹힌다. 이것이 늙은 어부의 노력의 보람이었다. 아무도 이 어부의 고난과 시련과 공적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늙은 어부가 바다 위에서 겪은 고난과 시련은 실로 지옥의 고통이었다. 바다로 나갈 생각은 커녕 바다를 원망하고 스스로를 저주하고 싶었으리라.

그러나 곧 이 노인으로 하여금 다시 거칠은 바다로 나아갈 용기를 북돋아주는 순간이 찾아온다. 천사같이 순결한 소년이 노인의 굶주림과 피로를 덜 해 주기 위하여 따스한 커피 한 잔을 받들고 올 때 이 순간이야말로 늙은 어부의 어둡고 침침하고 지리한 지옥의 인생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찬란한 순간인 것이다.

우리네 인생에는 지옥과 함께 천국도 존재한다고 누구나 다 하는 말이지만 우리들의 인생에 대하는 태도가 이 늙은 어부처럼 멀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을 때 즉 우리들의 양심이 점지해주는 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보다 많은 천국을 우리 인생에서 발견할 것이며, 이런 기회가 잦을수록 더욱 확고한 신념으로서 그리고 마침내는



단 이야기 쓴 이야기

순간적이 아닌 영원한 것으로서 천국의 시간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진실로 작가의 의무는 군인을 비롯하여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봉사적인 사람들과 다름없이 지옥과 같은 이 땅덩어리 위에서 이렇듯 찬란한 시간을 발견하고 추구하고 유지하고 또는 이를 창조하고 영원화 하려는 노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인생을 관조(觀照)하는 지점과 위치에 잘못이 없고 사사로운 욕심 없이 항상 양심이 명하는 자리에 서 있는 한 우리는 인생에 대하여 빛진 자가 아니고 도리어 무엇이고 하나비록 그것이 빼만 남은 물고기의 잔해처럼 하잘 것 없는 것일 망정 무엇인가 하나를 다음에 오는 사람에게 남기고 가는 값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극작가〉

시적(詩的)인 가(街)

정공변(鄭孔采)

「원도우」를 통해 거리를 내다 볼 수 있는 좌석에 앉아 있으면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그렇게 지루하지 않다. 우선 포도(鋪道)를 거니는 신발을 본다. 상체를 구태어 보지 않더라도 비교적 적확률(的確率)이 가까운 상상을 내릴 수가 있다. 노동자의 신발, 외면치레 위주의 바람둥이 신사, 숙녀, 군인의 신발, 그것도 장교와 사병의 신발, 후방과 전방의 신발, 「하이·틴」의 신발, 근로소년의, 학생의, 보호자를 따라 아장거리는 아가의 신발, 주부의, 아가씨의, 상인의 신발 등등.

또 바쁜 사람의, 산보자의, 목적없이 어슬렁대는, 「지그자그」의 주책없는, 정중(鄭重)한, 날리는, 힘찬, 사뿐거리는, 「하이·힐」이 오히려 찌그러질듯한 중량성 큰 여인의, 주정꾼의, 「아베크」의, 몇사람



인가의 동행인의, 무회의의…….

이렇게 신발을 바라보면서 멋대로 상상의 인물을 그려보노라면 기다리는 사람이 앞에 앉아 있거나, 그렇잖으면 약속시간을 훨씬 넘게 되어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고 돌아가도 좋게 된다.

거리는 다양하다. 도심의 가(街)와 변두리의 가(街는) 그 거니는 신발부터가 벌써 다르다.

또한 가(街)를 주제로 한 노래가 많으며, 그 노래속에 가(街)의 특색을 말해 주고 있기도 하다. 충무로나 소공동, 명동, 세종로에 관한 노래는 「도오교오」의 「긴자(銀座)」나 「허리·운」의 「선셀대로」, 「파리」의 「상제리제」 못지않게 많으나, 우리 「이태원」가(街)나 한강로, 의주로엔 아직 멋지게 붙여진 노래가 없다. 가(街)를 주제로 한 노래 있음으로 그 가(街), 더욱 인상적인 아름다움을 갖는다.

그래서 도시의 향수는 무엇보다도 가로수와 가등이 반짝이는 가(街)에 머문다. 건물과 사람을 배경으로 한 가(街)의 특색은 은행가, 대학가, 다방가, 주택가, 상가, 공장가, 서점가, 양품가, 라사가(羅紗街), 식당가, 극장가, 하숙가, 여인가, 남성가, 신문가, 군인가, 학생가, 실업가, 골동가, 고궁가, 기타가로서 도회의 아름다움과 매력이 있다면 이런데 있을 것이다.

특히 대로변의 변화가보다도 소로의 주변에 있는 주택가는 조용한 분위기를 한결 더 가꾸면서 아름다웠다. 내가 여태껏 무시했던 나의 안주(安住)의 주택가를 언젠가의 우후(雨後), 오랫동안을 생각에 젖어 바라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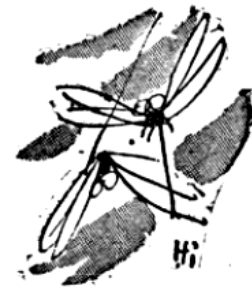
초하(初夏)의 하늘에서 비가 내린뒤 땅은 적당히 축축해 젖고 지붕은 생기로운 수말(水末)을 이고 있었다.

잠잠해진 시가의 소음, 나직히 가라앉은 감정, 한결 가깝게 꺾결에 와 닿는 부드러운 정감의 사람소리.

이러한 주택가의 한 가각(街角)에서 나는 접은 우산에 등을 기대고 다른 마을에서 온 사람인양 우뚝허니 늘 대하던 집들을 새삼스래 경이의 눈동자로 바라 본 것이다.

우요일(雨曜日)의 주택가는 다른 어느 가(街)보다 더욱 좋다고 느껴졌다.

나에겐 열은 신록처럼 시심(詩心)이 문을 밀었다.



단 이야기 쓴 이야기

정지된 비아래다
비젖은 꽃나무가 가(街) 건너
집에 있다
우산을 접어서
나의
육신이 기대이고 늦은
눈동자
어떤 부러움에 젖어서 있다
꽃나무 있는 저 빠알간
집은
정말 행복할가고
또, 꽃나무 없는 그 옆
집
부인은 불행할가고
눈동자
슬픈 사상도 뜨고 있다.

젖은 공기속에
꽃나무 있는 집도 바라본다
꽃나무 없는 집도 바라본다
아마 그렇겠지
다른 가(街)의 집
지붕같이
비가 오면 비에 서로 젖겠다
해가 나오면
함께 햇빛속에 밝아 오를거다

남자도 살고 있고
여자도 살고 있겠다

가(街)는 형형색색이지만 어쨌든 인
간들의 수로(水路)임엔 틀림이 없다.
이 집과 저 집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
(街)로 나오고 이 가(街)에서 또 저 가
(街)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시 다른 가
(街)로 모여서 마치 대하의 운행같이
아침에도 새벽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태양이 빛나든, 날씨가 흐리든, 우중
이드래도 낮과 밤을 가리잖고 가(街)
는 움직이는 사람으로 충일(充溢)하
고 있다.

가(街)는 그래서 도시적이다. 시골에
는 가(街)가 존재치 않는다. 도시인의
생활이 가(街)를 통해 움직인다. 도시
의 낭만이 가(街)를 통해 흐른다.

도심가를 거닐다가 노상 느끼는 생
각이지만 먼저 나 자신에게 반문해
본다.

『자넨 이 가(街)를 무슨 용무로 거
니는가고……』

어느때는 불일이 있어 거니지만 어
느때는 막연한 용무(?)로 거닐고 있다.

봄비대는 그 가(街)를 막연하게 거니
는 것도 용무에 속할까?

그야말로 괜히 거닐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용무가 있을 때도 도심
가에서 꼭 해야 할 용무란 없다. 용
무래야 그 가(街)의 어디에서 친구나
지인을 만나는 일이다. 하필이면 넓
고 조용한 변두리지대도 많건만 구
태어 도심가에서 만나자는건 나 자신
도, 또 상대방도 으레 그곳을 습관에
젖어서 지적하는 결과에서다.

교통의 편의때문이라고 할까? 오히
려 봄비대는 인파에 보행시간마저 오
래 걸리고 보면 그것도 변명이 못된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하고 질의의 화살을 그들에게 던져
봐도 역시 석연치 않다. 그러면서도
도심은 다른 가(街)보다 더 충일(充溢)
한 수로를 언제나 이룬다.

다른 가(街)의 흙보다 중심가의 흙
은 황금빛 고가(高價)다. 도심가는 황
금가이며 이래서 그런지 그 가(街)를
거닐고 나면 나의 눈은 현기(眩氣)를
느끼고 만다. 피곤에 지친 잘랑거리
는 돈소리속에 날이 새고 날이 지는
도심가.

그 도심가에 저녁이 오면 오히려 기
분이 나빠진다. 「네온싸인」과 「시네싸
인」, 그리고 가등이 나란한 이 가(街)
위로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달빛
까지 있고 보면 더욱 기분이 상한다.

도심에 내리는 달빛은 타락한 것만
같다. 지조를 잃어버린 것만 같은 달
빛에서 일종의 분개심을 느낀다.

저속한 상가(商街)에 못지 않게 저
속한 얼굴로 화장을 한것만 같아 달
이 미웁다.

달빛 왜 내리는가?

섯은 층계를 오르내리는

전낭(錢囊)이

잘랑거리기에 바쁘는데

달빛, 잘못 내리는군

옛정을 잊고.

몇주이고

하늘을 안보는 도심의

사람

달이어

너의 빛은

그의 안광(眼光)을 빛내지 못한다

단 이야기 쓴 이야기



달빛 잘못 내리는군.

달빛도 역시 도심을 벗어나 주택가의 낮은 지붕위에 머무는게 사상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걸로 보여진다.

도시의 갖가지 가(街)에서도 주택가의 소로(小路)와 귀여운 계단, 문패가 있는 집들.

가장 아름다움과 가장 사랑스럽다.

그것은 안주(安住)의 땅
하루종일 돌아다니던 사람들의 마지막의 역(驛)

집들을 드문드문 옆두고

조심스러운 가(街)

이따금 주정꾼이 비틀거리지만 이내 사라지는 가(街)

삶은 인사(人事)도 거짓말도 없는

가정을

엮은 가(街)

밤중도 좋고 아침도 좋고

낮에도 좋은

주택가

다른 가(街)보다

가장 안일함으로서

다른 가(街)의

안녕을 지켜주는

나의 주택가

꽃의

안녕가(安寧街)

그러나 다시 내일

시끄러운 가(街)를 우리들은 또 거닐어야 한다. 가(街)는 우리들의 수로(水路)임으로.

〈시인〉

◇ 진실과 수단

아무리 교묘한 수단도 진실보다는 못하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수단보다 진실이 앞선다. 국제간의 평화는 항상 불안한 것은 그것이 진실에 의하지 않고 수단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버어트란드-릿셀)

〈수필〉

가을의 정서



상병 김석철(金錫喆)

유리알처럼 파아랗게 개인 하늘은 가을이 주는 매력인지도 모른다.

나는 가을이 오면 곧잘 서글퍼진다. 처량히 비내리는 밤에 방에서 혼자서 앉아 있을때며 짝을 잃고 울어에는 한마리의 창로(蒼鷺)의 울음 소리를 들을때 또 아무도 없는 빈뜰에 외따로 서 있는 국화를 볼때며 밤새도록 울어 쌓는 귀뚜라미의 소리를 들을때 내가 서글퍼지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시(詩)

그이를

상병 손근호

설사 하늘 무너진대도

불멸을 모르는 그리운 그 이름

구수한 당신의 입김이

젖망울의 신비처럼

목마르게 갈구되는 시간의 이음속에

핏줄을 타고 심장에 뱀 따스한 체취는

세월마다 감미롭습니다.

어머니!

지칠줄 모르는 향그런 항심(恒心)

이 세상 아무것도 당신의 사랑을 저버리지 못하고

이 서글픈 가을철을 결코 버리기가 싫다. 그러기에 나에게서는 화려한 봄이며 무성한 여름철이 좋을리가 없다. 또한 그것은 내가 인간의 후독한 죄악과 치욕을 시인하면서도 공소(空疎)한 생활철학으로 생활을 영위하려는 나의 순정을 오직이 서글픈 계절에서만 맞출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만물이 찌는 듯한 삼복더위를 지나 새로운 계절에 맞는 옷으로 갈아 입을 때 나도 역시 인간속세의 어지러운 사념을 버리고 이 계절에 휩쓸려 보는 것이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흔히 말한다. 아침 저녁의 산산함이 좋고 유독히 높은 하늘도 좋지만 마련된「벤취」만 있으면 그저 독서하기엔 알맞는 계절이라고 본다.

나는 이 계절속에서 은연중 고독을 사랑

모성의 아늑한 품안에서 착하게 성숙했고
꾸밈을 모르는 당신의 환한 웃음은
살과 뼈와 혈액의 영원한 활소(活素)
당신의 모두는 전신에 역력히 흐르고 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먼 먼 하늘
그래도 향수를 쫓는 꺾기에
당신의 고요한 자장가는
강 건너 산을 넘고 하늘을 날아
거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어머니!

설사 하늘이 무너진대도
불멸을 모르는 그리운 그 이름

(제1초훈전대 정비대대)

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낭만을 느낀다면 오직이 서글픈 가을철에서 인것 같다. 흐릿한 안개에 가리워져 옛 전설이라도 스미어 있을것 같은 막막한 산들을 바라볼 때 나는 가끔 석정(夕汀) 선생님의『산으로 가는 마음』이란 시구를 외우면서 한없는 명상의 애기새를 날려 보내곤 한다. 나는 이렇게 외롭고 서글픈 계절 속에서만이 순수한 비애를 느끼고 또한 내 마음이 착해(善)진다는 것을 알았다. 이 착함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 말이다.

가을에는 빨간한 단풍잎이 지는가하면 노랗고 붉은 꽃을 피우는 것들도 있다. 국화가 그렇고 코스모스가 그렇다.

그들은 모두「텔레케이트」한 사연을 지녔다. 이렇게 찬이슬이 내리는 가을에 피는 꽃들은 어딘가 처량한 아름다움이

시(詩)

망향(望鄉)

박문웅(朴文雄)

서성대는 마음들일랑
머얼리 보내고
가까스로 서로의 마음을 모우자.
충혈된 눈매에
쏟아지는「네운」의 세례여!

우리
더럽혀진 옷이랑
벗어던지고
오늘
설날마냥
꼬까웃으로 단장하자.

있음을 우리는 본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나는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외로히 서있는 들국화를 찾아 향기맡이를 간다. 색깔은 흰빛이 약간 연분홍 색채로 물들어 있고 싱싱하고도 조촐한 화변(花瓣)이 보기 좋게 원형으로 나열되어 있어 심금을 뜯는 듯한 빠져린 추억의 미련이 이들 들국화를 찾을때마다 솟아오름을 주체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들은 가을이 아니면 맛볼수 없는 미묘한 정서인 것이다.

〈항공병학교 인사과 근무〉

그래서
허물어진 정원에다
꽃을 피우자.
이제

찬란한「네온」보다
다정한 촛불이
더욱 좋다.

시가지는
온통
불투명한채
삼경은 질어만 간다.

이래서
우리
손잡고 고향을 찾자.

(초훈전대 관리과근무)

〈북한동포는 나를 살렸다〉(8)

두번째 출동명령



이준수

죽음의 생환

흰하게 열려있는 방공호 문으로부터 들어오는 바람은 아직도 차다. 나는 그 밖을 걸어 보았다.

아이것이 며칠만에 몸을 세운 것이냐, 두발을 번갈아가며 몸의 체중을 옮겨 보았으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몇발자국 걷다가는 주저앉았다. 다시 훤한 냄새가 나는 방공호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후부터는 잠이든 세상을 틈타 밖으로 나와 몇발자국씩 움직이며 며칠후에는 그 주위를 몇번 돌아도 그다지 괴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때 남쪽에서 포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저 소리가 폭격하는 소리라도 좋고 함포사격이라도 좋다. 복진을 하며 육군이 쏘는 포성이라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복진하는 아군을 기다리며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다. 나는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후 며칠동안 출발준비를 했다.

길게 자란 머리를 가위로 깎고 턱에 늘어진 몇 개 되지않는 털도 잘라 버렸다. 산에서 원수같이 끌고 다니던 거칠고 녹슨 총도 아주까리 기름으로 닦아냈다. 그리고 피가 묻은 괴뢰군복도 손질하여 다시 입을수 있게 되었다. 주인 아저씨는 내 어깨에 쌀전대 하나를 지워주었다.

나는 주인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소리없는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그 집을 떠났다.

보름달이 구름에 덮힌 어스름 달밤이다. 나는 담을 끼고 산에서부터

내려온 도랑에 몸을 숨겨가며 서쪽에 있는 산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의 몸은 벌써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비로소 석달동안 땅속에서의 생활이 가져온 몸의 쇠약을 느꼈다.

밤에만 걷고 낮에는 쉬는 올빼미 행군이 계속되었다. 이틀동안 남쪽을 향해서 아픈 다리를 끌며 걸어 왔지만 어두운 밤에 실제 어디로 가는지 알수가 없다. 그저 확실한 것은 놈들에게 잡히지 않고 산길을 자유로이 걷고 있다는 것 뿐이다.

며칠이 지나 사리원으로 가는 철도를 발견한 후부터 그 철도를 좌측으로 보면서 걸었다.

밤에 비를 몰고 불어 오는 바람도 때로는 싫지 않았다. 달밤에 노출되는 몸과 움직이면 나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비 쏟아지고 바람부는 밤이면 좋은 길을 찾아 더 빨리 걸었다.

그러나 전대안에 얼마 남지 않은 콩가루와 밀가루는 비에 젖어 한덩어리로 뭉쳐지고 한주먹밖에 남지 않은 생쌀은 통통이 불어서 양은 많아졌으나 아끼고 아끼다보니 곰팡이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났다.

볶은 가루를 먹고 설사를 해가면서도 아끼던 쌀이 썩고보니 아끼다 찌로간다는 속담생각이 났다. 그러나 얼마후에는 그것마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루는 날이 밝아갈 무렵에 내눈 안에 부락이 들어왔다. 잠시 귀를 기우려 었드려 있으니 철(鐵)과 돌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놈들은 폭격에 흩어진 철도를 날이

새기전에 복구하려고 민간인들을 동원시켜 보수작업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곳을 벗어나서 은폐진 곳에 지구가 한바퀴 도는 동안 었드려 있느니 만사가 귀찮다.

그때 내 눈앞엔 준비하게 늘어선 군대의 행렬이 나타났다. 위장색 옷을 입어 잘 보이지 않을 텐데도 무의식중에 나는 송림속으로 들어갔다. 약 20분 후였다.

지축을 흔드는 듯한 폭음이 들렸다. 나는 다시 일어나 놈들이 늘어서 오던 행렬을 보았다. 이미 긴 행렬은 보이지 않고 마차를 끌고 뒤에 따라오던 말들만 멍에를 맨채로 뛰어다녔다.

곡선 폭음을 내며 달려드는 독수리떼!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와서 때려부시는지! 연달아 땅 드르륵하는 폭음과 번쩍이는 섬광을 직통으로 퍼붓고는 다시 올라간다. 독수리떼가 지나가자 놈들의 징그러운 행렬이 섰던 곳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다.

그것은 내가 처음 맞은 찬스였다. 나는 총을 들고 놈들이 가지않은 부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제일 작은 집으로 뛰어 들어가며 주인을 불렀다. 놀래 방공호에서 뛰어나오는 주인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며 메고있던 쌀전대를 내밀었다. 주인은 전대애다 좁쌀과 강냉이를 넣어서 갖다주며 이거「참 안됐읍니다. 조반이 상계안돼서」하고서 굶실거리며 뒷문으로 나가라고 뒷문을 열어주었다. 뒷문에서부터 계속되는 산림을 타고 올라가서 은폐진 곳에 몸을 숨기고 굳은 강냉이알을 먹었다. 그리고 출발준비를 하고 어두운 세상을 기다렸다.

나는 그곳을 떠난지 수일후에 황해도 재령군 상성면 청석두리라고 써붙인 작은 시장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

나는 다시 운달산으로 올라갔다.

이 산은 나무가 원시림을 이루고 있으며 야생음식물도 구하기가 쉬웠다. 다람쥐 또는 달팽이, 도롱뇽 신세를 저가면서 황해도 벽성군을 지나 연백군 땅을 밟았다. 연백군까지 오니까 왜 그런지 긴장이 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곳에서 약 50리쯤 남쪽으로 가면 아군이 있는「용매도」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발걸음이 빨라졌다.

빨리가면 이삼일후에는 아군이 있는 곳을 간다.

이러한 생각을 하며 혼자 웃어도

보고 한숨도 쉬어가며 남으로 걸어오는 도중에 웅성대는 소리가 났다. 도랑에 엎드려 자세히 들어보니 중공군놈들의 웅성대는 소리였다. 놀란 가슴은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곳을 피해 먼곳으로 달아났다. 그러다보니 내가 택한 길은 바뀌어지고 날은 밝아오기 시작하였다.

사방을 돌아보니 소나무와 아까시아 나무가 가득히 들어선 작으마한 산이 나를 부르는것 같아서 그곳으로 가서 좋은 장소라 생각하고 선택하고 보니 밑에는 부락, 산너머도 부락, 여기서 발각되면 갈 곳은 단 한 곳 밖에는 없었다. 할 수 없이 소나무를 꺾어 등에다 올려 놓고 조밀하게 들어선 나무 밑에 엎드렸다. 잠시후에 부락에서는 사람들의 오고 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죽여가며 떨고 있을 때다. 어디선가 방향도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스럭거리리는 소리가 나기에 소나무잎 사이로 보니 어떤 노인이 와서 바람에 불리어 한 곳에 모인 낙엽을 굽어 모으며 사방을 돌아보고 있었다.

그 노인은 낙엽을 굽어모으다가는 그대로 먼곳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그러더니 나무단속에서 무엇인지 끄내더니 다시 빠른 동작으로 사방을 살핀다. 저 노인이 내가 이곳에 온 것을 알고 나의 거동을 살피러 온 것이 아닌가? 나는 총을 바짝 움켜쥐고 동물을 기다리는 포수처럼 그 노인의 행동을 기다릴 수 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잠시후에 노인은 그 자리에 앉으며 동솔포기 밑에 낙엽을 헤치더니 나무를 번쩍들고 무엇인지 형겅에 쓴 머리덩어리만한 것을 그 속안에 넣고 다시 먼저대로 해 놓는다.

틀림없이 저속에 어떤 사람이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나는 포복을 하여 위장한 몸을 그곳으로 옮기었다.

나는 작은 소리로「할아버지 이곳 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하고 물었다. 노인은 창백한 얼굴로 한마디의 대답도 없이 서 있다.

「할아버지 저는 다 보았습니다. 이 나무 밑에 숨어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노인은 떨리는 작으마한 소리로「제 아들이외다.」「그런데 왜 이곳에 숨어있지요?」내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집안에서 오대째 내려오는 독자인데 폭격이 무서워 이곳에 숨어있습니다.」「잘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인민군대에서 탈출하여 국방군에 귀순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 주십시오. 저는 아들을 잡으려고 이곳에 온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노인은 속지 않는다는 듯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전신을 흔들고 서 있다.

나는 다시 일어나지도 못하고 엎드려 애원하듯 말했다.「할아버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고 사는 것은 할아버지 손에 달렸습니다.」할아버지는 그때야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떡 끄떡했다.

그러다가 잠시후에 사방을 돌아보더니 뚜껑을 들기에 나는 그안으로 들어갔다. 조그마한 구멍하나가 있으나 안은 캄캄했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분간할 수 없다. 나는 발이 닿는 자리에 엉덩이를 대고 앉는데 작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당신은 누구요?」「저-할아버지의 안내로 왔습니다.」그는 어떤 사람인지 의심스럽다는 듯이 말을 계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한마디의 말뿐 얼굴도 보지못하고 하루가 지나갔다.

하루중 어느때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뚜껑을 열고는 밖으로 나오라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역시 그 안이나 밖이나 마찬가지로 어둡다.

어두움속 나무밑에 아침에 본 그 노인이 앉아있기에「할아버지」하고 일어나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동무 잠깐 정지!」적은 소리로 수화를 한다. 나는 그 자리에 섰다. 주위에는 3명의 괴뢰군이 거총자세로 나의 좌우로 나타났다. 나는 그자리에 서서 그 노인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나온 구멍에서 또 한명의 젊은 청년이 나왔다. 그러자 그는 내앞에 둘러섰던 괴뢰군들과 반갑게 악수를 하며 잠시 말을 주고 받다가는 그들이 다시 나에게로 얼굴을 돌릴적에 그 노인은 나와 만난 경위를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총을 들어 어깨에 메고 나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러자 묘안에서 같이 숨어 있던 청년이, 이곳에 있는 세명의 귀순병들은 자기와 친척관계가 된다고 나에게 소개했다.

「동무가 소속하고 있던 부대는?」하고 귀순병이 나에게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고 싶지만 안내원이 요구하는 것이 나 같은것 보다는 귀순병을 바라고 있는것이 분명하여「965부대

자동총 소대에 있었읍니다.」하고 대답해 버렸다.「알겠소. 우리들도 귀순한 사람들이요.」그러면 당신이 갖고 있는 총을 나에게 주시요.」하고 묘안에서 나온 청년이 손을 내밀었다. 나는 배속에 꽂았던 권총만 남겨두고 다발총만을 내주었다.

그들은 희미하게 웃으며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서로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괴뢰군 아닌 나에게 이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였기 때문일 것이다. 안내원은 잠시후에 아군지역으로 나가는 길을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노인과 작별하고 나의 총을 멘 안내원의 뒤를 따라 걸었다. 얼마동안 걸다가 우리는 안내하는 청년을 중심으로 둥글게 둘러 앉았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중공군과 해안경비대가 주둔하여 경비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놀랐던 나의 가슴이 뭉클했다. 거기서부터 논두렁과 밭들로 약 두 시간만 더가면 제비고지가 닿는데 그 고지를 통과하여야만 바다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를 악물고 걸었으나 수십일 동안의 동굴생활과 상처를 입은 몸이 그들의 뒤를 따를 수가 없었다.

다시 복으로

나는 정보참모앞에 앉아서야 비로소 괴뢰군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나는 원대로 복귀하여 적지에서의 소망은 반도 성취 못하고 낙하산학교 창설과 동시 교관이 되었다.

그러나 전시에 교관으로 계속근무는 곤란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악화된 전선은 고랑포 북방에서 38도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을 때다.

한번의 생환(生還)도 고생끝에 이루어 졌으나 돌아온지 3개월이 못되어 또다시 출동명령을 받았다. 살아온 생각을 하면 아득하나 이번에는 임무수행후 가족을 데리고 나오겠다 결심하고 그 길을 또 가기로 했다.

정한 시간은 정확하게 내앞에 다가왔다. 나보다 먼곳으로 가는 대원들을 실은 육중한 은빛 몸이 더운 활주로를 미끄러져 나가더니 뿌연 하늘로 나의 과거처럼 사라져버린다.

나도 B기에 몸을 싣고 뒤를 따라

높이 올라갔다. 전선을 통과한 모양이다.

실내의 불도 꺼지고 작으마한 적색등만이 나의 눈을 부르고 있었다. 저것이 청색등으로 가면 나는 세찬 바람을 받으며 된다. 잠시후 요란한 벨소리와 같이 청색등이 보인다. 아무 잡념없이 비행기를 박차고 뛰어내린 곳이 황해도 재령군에 위치한「장수산」인가 보다. 나의 뒤를 따라 1초 간격도 못되게 뛰어내린 전우들은 전원 안전착륙하여 재집결에 성공했다.

착륙한지 8일만에 남한에 있는 사령부와의 연락이 되었다.

우리들은 남쪽으로 나오면서 임무 수행을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황해도 재령군과 벽성군을 경계하고 있는「백락산」까지갔다. 여름동안 그곳에서 임무수행할 것을 결심하고 전과를 보내기 시작했다.

우리들 7명중 2명이 재령군에 고향을 둔 사람이고 1명은 벽성군에 살던 대원이다.「백락산」에서의 임무수행은 상상외로 아무 장애 없이 잘 진행되었다. 그리고 대원 중 한사람의 친척이「백락산」근방에 살고 있어 그 친척을 연락원으로 포섭하는데 성공했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여름은 쓰라림 속에서 지나간 겨울철보다는 한가히 지낼 수 있었으며 식량도 식용(食用)할 수 있는 동식물(動植物)의 혜택으로 곡물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식량과 우리가 요구하는 정보는 우리가 활동하여야 되기 때문에 출동시에는 언제나 2명내지 3명이 활동하기로 했다. 그리고 동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통신장비와 중요서류를 가지고 출동한 대원들 모르게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다른곳으로 이동을 했다가는 정한「암호」,「음호」또는 신호를 받은 후 그곳으로 집결해야만 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출동한 대원들이 만약에 적에게 체포되어놈들에게 잘못 교화(敎化)되거나 또는 고문에 못이겨 우리들이 있는 곳을 가르켜 주거나 또는 너만을 살려준다는 적군들의 거짓말에 적군과 함께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올라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을 도와주는 연락원 아저씨와 신호연락을 정했다.

우리가 있는 산정에 올라가면 그 집이 잘 보였으며 산정에서부터 집뒤까지

나무가 울창하게 들어서고 집 주위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무성하여 비상시 임시 은신하기도 적합한 장소였다.

우리는 연락원에게 신호를 하지 못해도 연락원 아저씨는 집에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었다. 우리들에게 적이 될만한 사람이 없을 경우 내려와도 좋다는 신호는 흰빨래를 정한 곳에 널고 걱정이 불리하니 주의하라는 신호는 검정빨래를 너는 방법이었다. 우리는 수차에 걸쳐 이러한 신호연락을 하여 임무수행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던 어느날 좋다는 연락신호가 나의 눈에 보였다. 나는 그 신호를 본 순간부터 가슴에서 요동하는 것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출발전 생각했던 임무수행후에 부모를 만나보는 문제다.

그날밤 김군과 함께 그 집으로 내려가 처음으로 주인영감님을 만나 보았다. 나는 결심한대로 부모님들이 살고 계신 주소를 적어 영감님에게 주고 좋은 방법으로 부모님을 잠깐이나마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으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그리고 우리들이 수행하는 작전은 계속되었다.

우리들의 운을 예측할 수 없는 아슬아슬한 작전에서 2명의 내무서원을 체포했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이러한 작전도 아랑곳 하지않고 가족을 상면할 생각뿐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영감님이 나타나며 어머님과 누이동생을 데려왔으니 만나보라고 하면서 그 집에서 약 1키로나 떨어진 송림(松林)속으로 끌고갔다.

그곳에서 나는 기다리던 어머님과 동생의 손을 잡았다. 슬픔에서 나오는 눈물인지 반가워서 나오는 눈물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 아무말없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데 동생의 입이 열렸다.

「오빠 아버지는 가셨어요.」나는 이 한마디에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반동분자라고 하여 인민재판을 거쳐 신의주 수용소로 가셨다가 그 곳에서 놈들의 총탄에 쓰러지셨는데 시체조차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어머님께 같이 남한으로 가서 살자고 졸랐다. 그러나 어머님은 노기쁜 소리로 이 난리통에 어미를 데리고 나가다가는 너마져 죽을테니 너나 얼른 남한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군이 진격하여 이곳에 오면 그때는 이 어미를 찾아라. 죽지 않고 꼭 살아있을테니까. 내가 알다싶이 지금 남한으로 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전에 38선을 넘지 못해서 잡혔던 일이 있는데 더구나 지금의 전선을 뚫고 내가 어떻게 나가겠니?」

우리가죽은 밝아가는 북국(國)의 새벽을 어찌할 수 없어 굳은 마음으로 서로 울지않고 헤어졌다.

가족을 만난후부터는 인민재판을 하는 곳이라면 내몸이 열두동강이가 나도 찾아가 혈안이되어 날뛰는 원수놈들에게 내가 당한 쓰라림을 던져 주었다.

이럴때마다 같이 있는 전우들은 내가 정신이상이 된 것 같다는 말까지 돌게 되어 잠시동안은 출동을 하지말라고 요구했으나 나는 마구 돌아가는 총구를 마음대로 휘둘렀다.

이것이 결국 나라를 위한 행동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원수를 갚는 것이 애국하는것은 아니었다. 며칠후 연락원집엘 갔더니 뜻하지도 않았던 주인집 아들이 와서 쉬고 있었다. 나는 즉석에서 우리와 같이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입고 있는 복장 그대로 산으로 데리고 올라왔다. 그리고 전에 사용하던 신호연락방법은 장마기에는 적당치 않아서 다른 신호 방법도 전달하여 주었다.

드디어 지루했던 1952년도의 장마를「백락산」속에서 맞게되었다. 그러나 지루한 장마라 하여도 겨울철의 그 혹한보다는 낫다. 흐르는 우수(雨水)를 받아 미수가루를 타마시고 설사를 하는 전우들도 많았다.

왜그런지 며칠이 지나도 새로 정한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는 이유를 알수가 없다. 우리들은 그 신호를 받아야만 작전출동하게되어 날마다 기다렸는데 5일만에 정한 신호를 받았다.

나는 전우들이 내려가지 못하게 제지하는 손을 뿌리치고 연락원집에 가서 식량과 나무에 걸키어 찢어지고 바위들에 갈리어 떨어진 군복을 꼬매기 위해 바늘과 실도 필요하기 때문에 출동했다.

연락원 아저씨는 오래간만에 내려간 부춘군과 나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아들의 안부를 물었다.

주인 아저씨는 준비해 놓은 식량과 아들의 옷을 꺼내 놓으며 장마철에는 습진이 위험하니 자주 말려서 가라입으라고 하시면서 자기아들의

속옷을 꺼내 놓았다. 등화관제로 창과 문을 가리우고 접시에 들기름을 담아 심지를 넣고 불을 켜놓았다. 우리는 희미한 불빛아래에서 갖고 올라갈 물건을 준비하고 속옷을 가라입으려고 속말로 중얼거릴때에「손들었!」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총창과 총구가 문으로 들어왔다.

나는 재빨리 창문을 보았다. 역시 낮은 창문에도 총구가 들어와 있다. 나는 놓았던 총을 다시 잡으려고 하는데「뽕뽕말라! 움직이면 쏜다.」는 소리가 떨어지자 놈들의 총구에 불이 나왔다.

나는 빠른동작으로 등잔불을 차서 떠러뜨리고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했으나 가슴에 대고 미는 총구에 밀리어 어찌할 도리가 없어 놈들에게 체포당했다.

12명의 괴뢰군들이 모여들어 부춘군과 나에게 총을 옆구리에 대고 포승을 지었다. 그리고 주인아저씨에게도 포승이 지어졌다. 그리고 인민군에서 도망해 와서 숨어있는 아들을 내놓라고 하면서 총개머리판이 아저씨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쳤다. 주인집 가족 4명과 우리 두명은 놈들의 총뿌리 앞에서 결박되어 놈들이 가자는 좁은 신작로를 걸어갔다. 알고보니 주인집 아들이 인민군에서 탈출하여 집에 와서 숨어 있었던 것이다. 날이 흰하게 밝자 작으마한 부락이 눈에 보였다. 우리는 그 부락으로 끌려가서 산 밑에 있는 큰 집으로 들어갔다.

괴뢰군복을 입은 놈들이 경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두번째로 불리어 한간방에 들어 앉았다. 방안에는 작은 책상과 몇장의 종이, 바람벽을 보니 올개미줄이 늘어져 있고 책상밑에는 참나무로 깎아만든 세모진 방망이가 놓여있다. 그리고 내 앞에는 한통의 물과 냄새가 나는 주전자, 옆에는 이 빠진 컵이 하나 놓여있다. 무엇에 사용할 것인지 약 2메타정도의 로프와 30센치 가량의 가느다란 막대기 세개를 갖고 곤색민간복에 납작한 모자를 쓴 놈이 들어와 탕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한번치고는 책상에 의자를 비스듬이 기대 놓고 샷대질을 하며 앉았다.

〈다음호에 계속〉

망명객이 말하는 소련의 공포정치 (완)

-비밀경찰의 조사방법을 중심으로-

A·그리고레프



조작과 자유

이와같은 심문을 당하면 죄수들은 실제로 자기가 한 일 뿐 아니라 자기들에 관한 거짓 죄상(罪狀)을 시인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타인들까지 다치게 한다. 이렇게 해서 터무니 없는 작죄(作罪) 연쇄가 시작되는 것인데 필자 자신이 끌려들어간 그와 같은 사건의 예를 말하고자 한다.

1938년에 나는 코리마 하반(河畔)의 스테도나·코리무스크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로부야 수용소에서 복역하고 있었다. 그런데 8월 어느날 저녁에 나는 지방 경비대 본부로 불리어 갔다. 여기서 얼마전 모스크바에서 온 국가보안부소속의 모호브라는 하사관이 나에게 신상조서를 쓰라고 한 다음 반혁명활동에 관해서 말하라고 올려댔다. 그리하여 나는



「5년전에 조사 받을 때 말한대로입니다.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습니까?」라고 반문하였다.

「아니! 우리는 이 수용소 안에서의 너의 반혁명활동이 알고 싶은 거야!」

「여기서 저는 아무런 활동도 한 사실이 없는데요!」라고 나는 대답하였다.

「경을 치기전에 빨리 말하는 것이 좋을꺼야! 너와 너의 동료들의 반혁명활동을 말야!」

「당신이 말씀 하시는 것을 잘 못알아 듣겠습니다!」

「그래? 그렇지만 후회하지 말아. 이 심문기록에 싸인을 해!」라고 내뱉듯이 말하면서 간수에게 나를 끌고 가라고 명령하는 것이었다.

그날밤 다른 열다섯명도 모호브에게 불려가서 나의 경우와 비슷한 취조를 받았다. 우리들은 누구 한 사람도 이 수용소 안에서 반혁명활동에 관계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이와같은 사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통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내가 오직 하나 두려워 한것은 나의 도망계획이 혹시 발견되지나 않았나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누구에게도 그것을 말한 사실이 없으며 입수해 둔 식량과 지도는 은밀한 곳에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발견될 턱이 없었다.

얼마후에 모호브는 로부야를 떠나고 우리들도 그 수수께끼 심문에 관해서는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달쯤 후에 코리마강 관리국 제3부 대표로서 국가보안하사관인 치다렙코가 로부야에 도착하자 다시 밤 심문이 시작되었다. 2, 3일이 지나자 치다렙코 이외에 제3부의 부장으로 있는 휘요도로프 상급하사관도 나타났다. 이리하여 체키스트들이 그 무엇을 기도(企圖)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수가 없었다.

1938년 9월 8일 밤중 한시쯤해서 간수가 와서 나를 깨우면서「조용히 빨리 옷을 입어!」라고 명령하는 것이었다. 나와 같은 천막 안에 있던 다른 죄수들은 중노동에 지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내 옆에서 자고 있던 다니신이라는 친구를 제외하고는 누구 한 사람도 내가 끌려 나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간수는 수용소 문을 나설 때 기관단총을 겨누면서 예의 판에 박은 듯한 경구(警句)를 발하는 것이었다. 즉「도망을 치기만 하면 쏜다…」라는 것이다. 한 2분쯤 걸려 경비대 본부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거기있는 체키스트들은 그때까지 일들을 하고 있었다. 나는 어떤 방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에는 상의 단추도 끼지 않고 머리카락이 흩으러진 휘요도로프가 흥분된 표정으로 테이블을 향해서 앉아 있었다. 그의 말은 극히 간결한 것이었다.

「너는 네 자신의 반혁명활동을 자백하겠느냐?」

「자백할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수! 이놈을 세워 놔!」

이리하여 나는 격리실 복도로 끌려나가 벽을 향해서 부동자세로 서게 되었다. 벌써 옆자리에는 우리 수용소에서 온 죄수들이 몇사람 서 있었다. 우리들이 서 있는 등뒤에는 간수가 혹시 움직이거나 말을 주고 받거나 않나 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하여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시간은 지루하게 지나갔으며 점차로 새로 끌려오는 사람들로 해서 열(列)은 불어갔다. 견디다 못해서 벽에 기대거나 앉은 다리를 펴던지 하면 「꼼짝 말고 서 있어!」라는 욕짜거리와 함께 발길질이 날라들어 왔다.

이렇게 해서 한밤을 꼬박 새웠다. 아침이 되자 치다렙코가 나타나 복도끝에서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그는「자백할 때 까지 그대로 꼼짝말고 서 있는 것이다. 알았나? 그러나 만약 증언하고 싶은 놈은 누구라도 그 테이블에 앉아서 써라!」라고 말하면서 간수가 가져온 의자와 테이블을 손으로 가리켰다. 테이블 위에는 종이와 연필이 딱 준비되어 있었다.

점심때가 되자 놈들은 한공기의 멸건 국물과 빵 한 조각을 돌려 주면서 마루바닥 위에 앉아서 먹어도 좋다는 허가가 내려졌다. 그러나 국물이 채 목구멍에 넘어가기도 전에「기립!」이라는 호령과 함께 우리들은 또다시 열을 지어 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열에는 열여섯사람이 서 있었는데 나는 그중에서 지질학자라는 구린, 항공기사인 모루첸슈테룬, 그리고 전에 민경(民警)에 있었다는 샤킨이라는 사람의 이름정도 밖에는 기억할 수 없었다.

이튿날 밤이 찾아왔다. 간수의 올라대는

목소리는 점점 요란해졌다. 죄수들이 서 있는 것에 지쳐서 벽에 기대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였고 한 사람이 마루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는데 간수는 그 사나이의 등을 발길로 사정없이 차면서 다시 세워 놓았다. 60세쯤 되는 노인인 몰겐슈테른은 바로 내 옆에 서 있었는데 그는 …에게 귀속말로「이제는 도저히 견딜수가 없어……앉아서 써버릴려고 하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써야 하겠지……」이렇게 힘없이 말하는 것이었다. 그였고 그는 그 조그만 테이블을 향해서 앉아 간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간수는 끓인 물과 싸구려 담배를 조금 가져왔다. 몰겐슈테른은 떨리는 손으로 두서너장을 써서 간수를 주었으나 이것을 받아든 치다랭코는 한번 눈으로 훑어 보았을 뿐 지체없이 그를 다시 벽을 향해서 세워 놓았다.

그뒤 몇번이나 열중의 누군가가 진술서를 쓰겠다고 나섰으나 놈들은 그때마다 조그만 테이블에 앉히기만 할 뿐 물도 담배도 주지 않았다. 즉 체키스트들은 그가 쓴 것이 보상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확인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자백의 결과는 몰겐슈테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술서를 쓰고 있는 동안만 테이블 앞에 앉아있다가 다시 열로 되돌아왔다. 그들이 쓴 것은 체키스트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리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딜수가 없었으며 전신이 쭈시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때 잠시라도 좋으니 의자에 앉아 어떤「증언」이라도 써버리고 싶은 유혹을 느꼈으나 그러 한 생각을 없애기에 무진 애를 썼다. 하나의 욕망이 모든 것에 우선하였다. 누어서 자는것… 자는것…

창도 하나 없는 복도에는 천정에 매달린 조그만 전구 하나가 비칠 뿐이었다. 우리들은 하루에 한번 정오에 배급되는 급식으로 시간을 측정하였다. 짧은 휴식시간 뒤에 다시 부동자세로 선다는 것은 몇배나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간수가 잠시 복도를 떠나던지 하면 그동안 서로 조그만 목소리로 사태를 의논할 수는 있었지만 도대체 체키스트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차례로 한 사람씩 열에서 끌려나가 심문을 받고는 되돌아 왔다. 몰겐슈테른이 끌려나간채 돌아오지 않은 것은 확실히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다시 한번 휘요도로프에게 호출을 받아 그전에 심문을 받던 방으로 끌려갔다. 내가 방에 들어서도 그는 얼굴도 들지 않고 책상위에서 무엇을 쓰고 있었는데 그때 나는 벽에

몸을 기대인채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다. 얼마가 지났는지 알수 없으나 온 몸에 찬물을 뒤집어 쓰고서야 정신이 들었다.

여기서 나는 다시 수용소 안에서 반혁명활동을 하였음을 자백하라고 강요당하였는데 그자리에서 나는 이것을 거절함으로서 다시 복도로 끌려나갔다. 방을 나설때 휘요도로프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잘 생각해서 해! 시간은 충분하단 말야…… 모든것을 다 털어놓을 때까지 조용히 서 있으란 말야」

그 다음부터의「직립」시간은 희미하게 밖에는 생각나지 않는다. 몇번 주저앉았다가는 발길로 채였으며 누군가가 졸도하자 복도에서 끌려나갔다. 치다랭코는 철새없이 나타나 우리에게 욕찌거리를 퍼부었다.

어느때가 우리는 이상스럽게 웅성대는 소리를 들었다. 체키스트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문을 여닫는 소리가 나며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호령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누군가가복도로 와서 우리를 보고 방으로 돌아가라고 소리를 쳤다. 이렇게 해서 감방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비로소 나는 그때가 낮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감방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우리들은 마루바닥에 쓰러진채 그대로 잠이 들어 버렸다. (그뒤 음식을 날라온 죄수에게서 들은바에 의하면「직립」이 중단된 원인은 체키스트 요인을 태운 비행기가 로부아부두앞 코리마강에 추락하여 탑승했던 전원이 죽었기 때문에 휘요도로프와 그 밖에 체키스트들이 현장으로 달려간 것인데 그들이 가기 전에「직립」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간 것이다. 우리들이 따져본바에 의하면 꼬박 백시간을 서 있었던 것이다.)

사흘이 지난 후 우리 일행은 증강된 경비대 감시밑에 배에 실리워 코리마강 관리국본부가 있는 노뵤야지리앙카로 끌려갔다. 우리들은 그곳에 이르자 곧 바로 격리수용소에 수용되었는데 이때 나는 기리 일곱자에 폭이 여섯자 밖에 안되는 조그만 방에 수감되었다. 더구나 이 방은 바닥에서 한자쯤 위로 나무로 된 침상이 방안 가뜩이 쳐있고 문쪽 가까운 곳에만 한 사람이 겨우 서 있을 정도로 비어있었다. 그리고 다섯자 반 정도쯤 되는 머리위에도 2층 침상이 이것도 문쪽만을 남겨놓고 쳐있었으며 방에는 창문 하나 없이 신선한 공기가 고는 복도쪽 문이 열릴때만 들어왔다.

수용인원은 열두사람으로서 앉아 있거나 누어 있거나 할 수 밖에는 별 도리가 없었다. 밤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한쪽만을 향한채 잠을 청했다. 이때 만약 잠결에 한 사람이 반대쪽 쪽으로 돌아눕든지 하면 여섯사람 전부가 똑 같은 짓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침과 저녁,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운동과 세수를 위해서 감옥소 안 마당에 있는 옥외변소로 끌려 나갔다. 세면용 물은 주지 않기 때문에 모두 눈(雪)을 집어서 얼굴을 씻었다.

이와같이 지내던 중 나는 같이 있던 죄수 한 사람으로 부터 크레스티 폭동 사건을 듣고 나서 부터 우리들의 체포가 그것에 관련된 것이나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3주일이 지나서 나는 다시 제3부로 심문을 받으러 갔다. 역시 거기에는 휘요도로프가 버티고 앉아서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약속, 그리고 똑같은 협박을 하는 것이었다. 이때 나는 여전히 자백을 거부하자 휘요도로프는 나를 치다랭코 사무실로 끌고 가서 거기있는 체키스트에게 넘기자 두놈이 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서더니 끔찍한 발길질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체키스트들의 은어로써 이것을 혼뽀이라고 부른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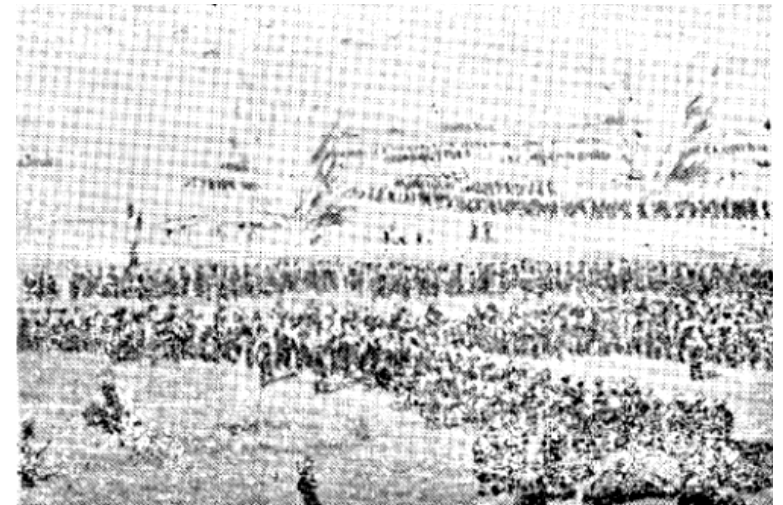
기절해 자빠진 나에게 감시원 하나가 냉수를 끼얹어 정신을 차리게 하더니 또다시 복도의 열로 데리고 갔다. 거기에는 그전과 다름없이 조그만 테이블에 연필과 종이가 놓여 있었다. 이렇게 얻어맞는 일과 자백을 받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에 변화가 있다면 있는 지겨운 나날이 몽롱한 가운데 지나갔다.

이런 가운데 드디어 몸서리 치는 매질에 못이겨 전에 민경원(民警員)으로 있었던 샤킨이 코리마에서 폭동을 계획하였다고 자백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간수가 자리를 뜬 사이에 그의 자백을 지지함으로서 조금이라도 빨리「직립」에서 벗어나려고 의논을 종합하였다.

그러나 체키스트들은 샤킨을 계획의 주모자로 삼을 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거의 자포자기에 빠졌던 필자 자신이 그 책임을 지고 나섰다. 이것으로 그들은 만족한 모양이었다.

이렇게 해서 소위「자백」이 타자(打字)되어 서명이 끝나자 우리들은 보다 엄중한 복역규정 밑에 보통 감방으로 옮겨졌다. 밖에 끌려나갈 때는 두 사람씩 짝을 짓게 마련이었으며 무장한 간수가 따랐다. 완전히 사형집행 예정자로 취급되었으며 먹을 것이라고는 굶어죽지만 않을 정도로 양이 줄었다. 이와같이 앞으로 닥쳐올 운명을 알게 된 일동은 이제는 아무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모름지기 소련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그때 이야기 한것 처럼 솔직하게 정치문제를 논의한 예를 나는 아직까지 듣지 못하였다.

어느날 물겐슈테룬이 거의 조죽음이 되어서 방으로 끌려왔다. 그는 어느정도 의식을 회복하자 그동안 계속해서 격리옥사에 간췌었던 사실을 이야기 하였는데 휘요도로프 군조(軍曹)가 심문을 받은 끝에 죽었다는 것이다.



〈사진설명〉

- ① 제2차 대전때의「탕케루크」전
- ② 「놀만디」에 나타난 「롬멜」장군
- ③ 1935년의 나치스 독일 탱크부대의 맹훈련
- ④ 1937년「히틀러」와「뫼소리니」가「로마」에서 회담하였다.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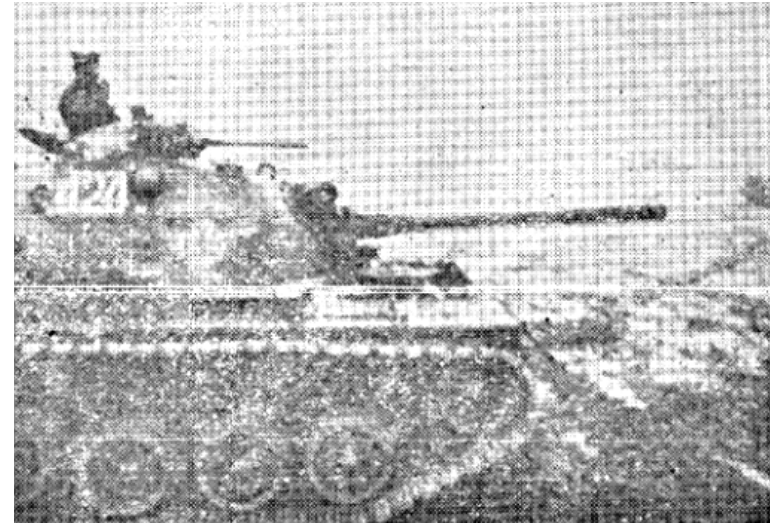
제3제국의 흥망 <3부> 전쟁에의 길

제1단계

표면으로는 평화를 부르짖으면서도 실상 속으로는 은밀히 전쟁을 준비하고 신중히 외교정책을 진행시킴으로써「베르사이유」조약을 체결한 열강 제국으로부터의「도이취」에 대한 일체의 예방군사행동을 피할 수 있도록 비밀리에 재무장하는 것. 이것이 곧 최초 2년간「히틀러」가



취한 전술이었다.「히틀러」는 군대의 건설과 그것을 위한 무기생산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육군은 1934년 10월까지 3배인 삼십만으로 늘릴것을 명령 받았고 해군에서는「베르사이유」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던만 공화제 시대부터 이미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었으며, 「게링」도 항공상(航空相)으로서 표면상으로는 민간항공을 가장하여 공군건설에 분망하였다. 제작업자들에게 군용기의 설계를 진행시키고 항공스포츠평의 이름으로 군조종사의 훈련을 실시했다. 그리하여 그해 연말경에는 재군비는 모든 면에서 팽대해졌고 그것을「베르사이유」열강들의 불안에 가득찬 눈으로 부터 이미 가리울 수는 없었다. 국민병역제도의 설정과 평시 육군병력을 오십만으로 규정하는 법령을 공포했다. 이것은「베르사이유」조약의 공공연한 침범이었으나 영(英)-불(佛)은「히틀러」가 예상한대로 항의하는데 그쳤으며 행동으로 나오지는 않았다.「히틀러」가 도박에서 이긴것이다. 그러나「히틀러」는 이에서 끝이지 않았다. 그는 적당한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1936년 겨울 영불(英佛)은「이탈리아」의「아비니시아」침략에 정신이 팔려 있었으며 국제연맹은 이미 침략자를 막을 능력이 없음을 실증하고 있었다. 1936년 3월 1일「히틀러」는 최후적인 결정에 도달했다. 3월 2일「라인란드」를 <기습작전>에 의해 점령할 것을 지시했다. 만약 불군(佛軍)에 대항할 경우에는



즉각「라인」강선까지 후퇴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프랑스」는 국내전쟁에 의해 마비되어 있었고 불과 3개 대대의 독일군이「라인」강을 건너 비무장지대에 들어갔을 때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침략행동이 있는지 두시간 후에「히틀러」는 평화에 대한 회구(希求)를 떠들어대고 있었다. 「이 역사적인 순간「도이취」의 서부지방에서 우리의 군대는 그 장래의 평화시의 주둔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이순간 우리는 두 가지 신성한 맹서 밑에 단결한다. 첫째로 우리들은 국민의 명예를 회복함에 있어서 여하한 폭력에도 호소하지 않을 것을 맹서한다. 둘째로 우리들은 이웃 여러나라 국민과의 이해에 도달할 것을 가일층 노력한다. 우리는 영토적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도이취」는 결단코 평화를 파괴하지 않는다.」당시 백여개 사단을 보유하던「프랑스」는 12개 사단을 동원해서「마지노」선을 강화한 것이 고작이었다.「프랑스」가 행동을 취했다라면「라인란드」에 진주한 독일군 3개 대대는 눈 깜짝할 사이도 없이 분쇄되었을 것이다. 사실상 독일군의 최고위층 간부들은「라인란드」에서 철퇴할 것을「히틀러」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강철같은 신경의「히틀러」는「프랑스」가 결코 행동으로 나오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철퇴제안을 모조리 각하해 버렸으며 결국 그는「라인란드」의 도박에서 성공했다. 이로써 국내적으로는「히틀러」의 인기와 권력을 강화시켰고



이것이 군사작전으로서는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았으나「라인강」을 건너「도이취」의 3개 대대가 행진함으로써 유럽의 전략정세가 뒤흔들렸을 뿐 아니라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다.「프랑스」에게는 이것은 그들 종말의 서곡(序曲)이었다. 동방의 동맹제국, 즉「쾰른」,「폴란드」,「체코」,「루마니아」와「유고슬라비아」등은 백개 사단을 가지고도「도이취」의 3개 대대를 물리칠 용기를 갖지 못한「프랑스」가 자국이「도이취」의 침략을 받는 경우 원조해 줄 수 없을 것이라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프랑스」가 먼저 주장했다, 그토록이나 힘써 쌓아올린 안전보장제도를 유지할 의사가「프랑스」에게 없음을 느꼈다.

「오스트리아」의 수상이던「슈슈니크」박사는 당시를 회상록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오스트리아」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화의 길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 「도이취」가 간섭할 구실을 줄만한 짓을 일체 피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어떻게든「히틀러」가 현상유지로 만족토록 하는 방법을 확보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그의 노력도 효험은 없었다.

1937년 한 해 만은「히틀러」에 의한 도발이 없었다.「기습」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한「히틀러」는 그 해를, 목표를 위하여 준비를 강화하는 해로서 보냈다. 군대

를 훈련하고 전쟁물자를 생산하고 영불(英佛) 및「오스트리아」의 약점을 감시하며 지냈던 것이다.

합방

1937년의 한 해를 통하여「오스트리아」각처에서는「히틀러」의 지령을 받은「나치」당원들이「슈슈니크」를 수반(首班)으로 하는「오스트리아」정부를 번복할 음모를 꾸미기에 바빴다. 1938년 2월에는「히틀러」가 회의를 위하여「오베르자르에르크」의 산장으로「슈슈니크」를 불렀다. 예의범절에 밝은「슈슈니크」는 그곳의 멋진 전망과 좋은 날씨 등 재치있는 인사말로써 그날의 회담을 시작하려 했다. 그러자「히틀러」가 갑자기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우리들은 아름다운 경치나 좋은 날씨에 관해 이야기하고저 이곳에 모인 것은 아닙니다」했다. 그 다음부터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했다.「오스트리아」는 우호적 정책을 회피하기에 온갖 수단을 다 썼으며,「오스트리아」의 전역사는 일관된 반역행위의 연속이다. 이런식으로「오스트리아」를 얼마동안 힐난하고 난「히틀러」는 설명도 없이 조건을 내놓고는 오후까지 이에 동의하도록「오스트리아」수상에게 강요했다. 그것은 실제 일주일내에「오스트리아」정부를「나치스」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이었다. 그러면서「히틀러」는 말했다. 「슈슈니크씨! 여기 문서의 초안이 있소. 나는 티끌만치도 이를 변경할 의사가 없소. 당신이 이에 서명하여 3일안에 나의 요구가 충족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오스트리아」에 군대의 진주를 명령하든지 둘중의 하나요」

「슈슈니크」는 속수무책이었으며 결국 항복했다.「슈슈니크」수상은 이에 서명했던 것이다. 그것은「오스트리아」의 사행집행영장(死刑執行令狀)이었다.「나치」는 이로부터 4주내에 군사적 위협선동 및 번복에 의하여「오스트리아」를 완전히 장악했던 것이다. 이렇듯 노골적인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하여「히틀러」는「오스트리아」합방에 대한 국민투표를 곧 실시하겠다고 했다. 사실상「히틀러」가 약속한 국민투표는 실시되었으나 그것은 완전한 공포의 분위기에서 행해졌으며「도이취」본국에서는 99.08%, 그리고「오스트리아」에서는 99.75%가 찬성 투표였다고 발표되었다. 이리하여「오스트리아」는 얼마동안 역사로부터 자취를 감추게 되었던 것이다.

「히틀러」는 한발의 탄환도 발사치 않고 영(英) 불(佛) 소(蘇) 등 열강의 간섭도 반응이 없이 칠백만 인구를「도이취」에 편입시키고 무한히 가치있는 전략적 지위를 손아귀에 넣었다. 「도이취」군대는「체코」를 3면에서 포위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튀엔나」를 제압하므로서 남동유럽에의 진출구를

가지게 되었다.「뵘엔나」는 구「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수도로서 오랫동안 중앙 및 남유럽의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다. 그런데 이러한 신경중추가「도이취」의 수중에 들어간 것이다. 이로써「체코」를 군사적으로 방위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히틀러」는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는데 머뭇거리지 않았다.

「문헨」에의 진격

〈녹색작전〉은 「체코」에 대한 기습공격계획의 암호였다. 이것은 1937년 8월에 기안(起案)된 것으로서「오스트리아」가 간단히 정복된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 긴급한 문제가 되었다. 계획을 새로운 사태에 적응토록 검토수정하여 이를 실천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히틀러」가 침략을 결심한 「체코」공화국은「도이취」의 증오의 대상인 여러가지 평화조약에 의해서 1918년에 성립된 나라이며 중앙유럽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개화한 변영의 나라였다. 그러나「체코」는 여러 민족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민족문제로서 국내적으로 고민하고 있었다.「체코」국내에는 백만의「헝가리」인, 오십만의「루테니아」인, 325만의「즈데텐·도이취」인이 살고 있었으며 그런대로「체코」국내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건만「히틀러」는 그들「즈데텐·도이취」인당을 선동하여「체코」정부를 괴롭혔다.

최초의 위기는 1938년 5월에 왔다. 훗날 〈5월의 위기〉로서 기억되었다.「체코」와 영국은「히틀러」의 의도를 감지했다.「체코」는 부분적이거나 동원을 시작하고 영불(英佛)은「체코」의 침략이 유럽전쟁을 뜻한다고 되풀이해서 경고했다. 지금은「오스트리아」의 경우처럼 쉽사리 침략을 해낼 수가 없음을 알자「히틀러」는 국경의 군대집결과 침략의도를 부인했다. 그러면서도「히틀러」는「도이취」의 군간부를 소집하고「체코」를 지구상에서 말살하는 것은 나의 부동의 결의이다」라 말하고 〈녹색작전〉계획을 다시 꺼내 수정했으며「녹색작전」의 실시는 늦어도 1938년 10월 1일까지에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시했다. 이것은「히틀러」가 제2차세계대전 직전에 이르기까지 만단을 무릅쓰고 집착하게 된 예정일자였다.

「x일에 즉시「체코」에 돌입할 것을 요구하는 〈녹색작전〉에 관한 새로운 지령을「히틀러」가 내리자 그것은 영(英) 불(佛) 소(蘇)와의 전쟁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며 실행된다면「도이취」를 파멸시킬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도이취」군부에서는 육군참모총장「벡크」장군을 중심으로한 반「히틀러」움직임이 있게 되었다.「히틀러」가 끝까지 전쟁을 고집한다면 장관들은 연대적인 사임을 한다. 그러면 육군을

지휘할 사람이 없어서 전쟁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날의 친「나치」였던「벡크」장군은 계속해서 말했다.「법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와 사회가 회복되어야 한다.」그러나「도이취」육군의 최상급 장성(將星)들은「히틀러」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용기를 가지지 못했다.「벡크」는 마침내 8월 18일에 그의 참모총장직을 사임하고 말았다.

전 유럽은 9월 12일「나치」당대회에서의「히틀러」의 연설을 기다렸다. 그의 발언은 난폭하고「체코」에 대한 비난으로 짙 차 있었으나 선전포고는 아니었다.「히틀러」의 발언에 대한 반향은 컸다.「즈데텐란드」에서는 반란의 도화선이 되었고「체코」정부는 진압을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계엄령을 선포했다.「히틀러」의 연설이 있던 다음날「프랑스」에서는 각의를 열고「도이취」가「체코」를 공격하는 경우「체코」에 대한 조약상의 의무를「프랑스」가 존중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에 대해 토의했으나 절망적으로 분열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달라디에」, 「프랑스」수상은 하는수 없이 그날 저녁「도이취」수상과 될 수 있는 대로 유리한 거래를 하도록 다시 한번 알선해 줄 것을「첼벌린」영국수상에게 간청했다. 그날밤 11시에「첼벌린」영수상은「히틀러」에게 지급「멧세지」를 보냈다.「위기가 증대하여가는 정세를 참작하여 평화적 해결에 대한 발견을 위해 노력할 목적으로 회담하고자 나는 즉시 귀하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내일 공로(空路)로 출발할 생각입니다.」이로써「문헨」에서「크라이막스」에 달하게 되는 굴복이 시작되었다.「첼벌린」의 멧세지를 읽고「히틀러」는 외쳤다. 「이건 참 놀랐다.」위대한 영국의 운명을 두 어깨에 걸머진 인물이 탄원하러 온다는 것은「히틀러」에게는 놀라운 일이고 또한 크게 만족스런 것이었다.「첼벌린」을 맞이한「히틀러」는「도이취」국민, 평화 및 영독(英獨)우호를 위해 한 일을 장광설로 털어놓으며 회담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어떻게든지 해결하려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체코」에 있는 삼백만의「도이취」인을「도이취」에 복귀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국은 이에 동의하는가 여부를 물었다. 복귀한다는 것은 물론 삼백만의「도이취」인이 살고 있는「즈데텐」지구의「도이취」편입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첼벌린」영수상은 개인적으로 찬성을 표시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태도를 정부가 승인하도록 영국에 돌아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월 18일, 영국에 돌아간 영수상이 그의 항복정책에 대한 각료 및「프랑스」의 찬성을 얻고져 노력하는 사이에「히틀러」와 그의 장관들은「체코」에 대한 군사적 및 정치적 침략계획을 진행시키기에 바빴다. 그러나「히틀러」가 진행시키던 군사행동을 주저케 할 만한 일이 몇가지 발생했다. 그 하나는「히틀러」가 국민의 전쟁열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장갑기계화부대(裝甲機械化部隊)의「파레이드」가 수도에서 크게 실패한 것이다.「베르린」의 선량한 시민은「파레이드」를 보기를 거절하고 지하도로 숨어들어 갔으며 그것은 누구의 눈에도 가장 심각한 반전(反戰)데모였다. 또 하나는「부다베스트」로부터의 전보였다. 그것은「항가리」가「체코」에 공격을 하면「유고슬라비아」및「루마니아」가「항가리」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것임을 통고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은「히틀러의 의사에 반(反)하여「발칸」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빠리」주재「도이취」대사관부무관(大使館附武官)으로부터의 지급전보였다. 그것은「프랑스」가 부분적인 동원을 하나 사실상의 규모는 마치 총동원과 같아서 동원 6일째는「도이취」국경에 65개 사단의 전개를 완료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도이취」는 겨우 12개 사단을 가졌을 뿐이며 그나마도 받은 예비부대였다. 영국의 함대도 동원되었다.

그 무렵,「히틀러」가 알고 있던 것은「프라그」가 싸울 태세라는 것,「빠리」가 급속히 동원하고 있다는 것, 영국의 태도가 굳어지고 있다는 것,「도이취」국민이 냉담하다는 것, 장군들 중의 간부들이 그에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최후통첩이 다음 날 하오 2시로 마감이라는 것이었다.

「히틀러」는「첼벌린」의 마음에 호소하듯이 꾸민 편지를 지급으로「런던」에 전달했다.「히틀러」의 서한을 받은「첼벌린」은 구원의 지푸라기처럼 미친듯이 움켜쥐고있는 즉시 회답했다.「귀하의 서한을 읽은 후 나는 귀하가 전쟁 없고 지체도 없이 기본적인 것을 모두 획득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9월28일 하오 2시 조금전, 바로 최후통첩의 기한이 끝나기 직전,「히틀러」는 결단을 내려 다음날 정오「문헨」에서「체코」문제해결을 위해 회담하도록 영(英), 불(佛), 이(伊)의 정부수반에게 대지급(大至急)으로 초청장을 냈다.「프라그」와「모스크바」에는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체코」는 자기의 사형선고에 입회하는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하원에서 연설중이던「첼벌린」수상이「히틀러」의 회담제의를 보고하자 의사당은 열광적인 환성으로 들끓었으며「수상 고맙소」하는 감동의 음성이 잇달았다.

「문헨」회담은 용두사미로 끝났다. 그것은「히틀러」가 요구하면 원하는 것을 송두리채 넘겨주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회의였다. 영불(英佛)이 의견상으로는 상당히 강경한듯 했으나「히틀러」는 그들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 어떤 양보라도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첼벌린」이 양보하면「히틀러」는 더욱 요구했고 또 그것을 얻었다. 이리하여「히틀러」,「첼벌린」,「뫼소리니」,「달라디에」는「도이취」군이

10월 1일에「체코」에 진주를 개시하고 10일에「즈데란텐드」의 점령을 완료할 것을 규정한「문헨」협정에 서명했다. 이로써「프랑스」의「마지노」선을 제외하고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규모의 방위선을 형성하던「체코」의 국경선이 붕괴되고 번영하던 공업생산국은 전반적인 공업시설을 빼앗긴 채 사분오열(四分五裂)로 하룻밤사이에 파산하고 말았다. 일부의 서구인은 서구의 2대민주국가「문헨」협정에 의해서 1년간의 재군비(再軍備)를 위한 기간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이것을「처칠」은 다음과 같이 부정하였다.

「「문헨」에서 얻었다고 하는 1년의 시간적 기간은 영불(英佛)을「히틀러」의「도이취」와 비교할 때「문헨」당시보다 훨씬 악화된 위치에 놓이게 했다.」사실상 1938년 10월 1일 「문헨」당시「도이취」는 소련을 계산에 넣지 않고도「체코」와 영불(英佛)에 대해 전쟁을 개시할 상태에 놓여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문헨」협정으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체코」와 영불(英佛)에 굴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히틀러」는「저너석(첼벌린)」이 나의「프라그」입성을 망쳐버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처음부터「히틀러」가 원한 것은 무력에 의한「프라그」입성이었던 것이다.

「문헨」협정후 몇일이 지나서「히틀러」는 그의 전면적인 해결책을 실행에 옮겼다.

「체코슬로바키아」의 말살

잔존(殘存)「체코」의 국경을 보장키로한 약속에도 불구하고「히틀러」는「질서회복」이라는 군사적 점령의 구실을 찾기 위해「체코」의 국내교란을 선동했다. 3월 14일,「도이취」군이「체코」국경에서 전면적인 진격태세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체코」의「허카」대통령은 외상(外相)을 대동하고「히틀러」에게 자기나라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위해「베르린」에 도착했다.「히틀러」는 그들을 정중히 맞아 들였으나 무조건 항복이외에는 받아드리지 않겠다고 하자「허카」와 외상은 항의했다. 그들의 항의는 소용없었다. 「도이취」측은 냉정했으며「허카」와 외상에 게 항복문서에서 조인할 것을 강요했고 조인치 않을 경우에는「체코」에 대한 폭격을 감행하겠노라고 위협했다. 심장병으로 기절까지 했던 「허카」대통령은「도이취」의사의 주사를 맞고 깨어나서 항복문서에 결국은 조인했으며 그날 발표된「콤폴루니케」는「체코」대통령이 궁극적인 평화달성을 위하여「체코」의 국민과 국토의 운명을「히틀러」에게 맡긴다는 것과「히틀러」는 이를 수락했다는 내용이었다.「히틀러」의 궤변도 이만하면 정점에 도달했다. 3월 15일 상오 6시「도이취」군은「체코」에 쳐들어갔으며 아무런 저항도 없이 수도「프라그」에 입성했다.

이리하여「체코」의 국토위에는「도이취」의 야만성의 길고 긴 어둠의 장막이 내려 덮이기 시작했다.

「나의 투쟁」을 읽고 유럽의 지도를 훑어보고,「도이취」군의 배치를 보고, 또 과거 12개월간「오스트리아」와「체코」를 무혈점령한「다이나믹」에 관해서 고찰한 사람이라면「히틀러」의 침략의 다음 차례가 어느 약소국가인가를 뚜렷이 알 수 있었다.

3월 31일,「히틀러」가「프라그」에 입성한지 16일이 되던 날「첸벌린」영수상은 크게 깨달은 바 있어 하원에서 이렇게 말했다.

「명백히「폴란드」의 독립을 위협하고 따라서「폴란드」정부가 그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 저항하는 것이 사할문제로 인정되는 어떤 행동이 취해진 경우 영국정부는 즉시, 가능한 일체의 지원을「폴란드」에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덧붙여 말하면「프랑스」정부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하여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을 명확히 하는 권한을 나에게 주었다.」

이리하여 다음은「폴란드」의 차례가 다가왔다.

「폴란드」의 운명

「이벌린」의「폴란드」에 대한 보장뉴스는「도이취」의 독재자를, 그만이 가지는 특유한 분격상태에 몰아넣었다.「히틀러」는 분노를 못이겨 방안을 헤메며 영국을 마구 욕했다.「놈들을 요리해서 솥통을 끓여버릴테다.」다음날인 4월 1일「히틀러」는 전함진수식(戰艦進水式)에서 연설을 했다. 그는 예전부터 그러했듯이 평화염불로 연설을 끝맺었다.

「「도이취」는 타국민을 공격할 의도는 없다.」그러면서도「히틀러」는 4월 3일 국방군에게〈백색의 경우(작전)〉의 발단을 이루는 극비의 지령을 내렸다. 1939년 9월 1일 이후 언제라도 작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히틀러」가「오스트리아」나「체코」의 경우처럼「폴란드」를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폴란드」가 저항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폴란드」는 그 국토가 침략 당하면 싸울 태세였다. 그러나 그들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참담한 상태였다. 공군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며 육군은 얼어 빠져 있고, 또 전략적으로는「도이취」에게 3면으로 포위당한 절망적인 상태였다.

이제 사건은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4월 7일「뮌헨」은「알바니아」에 군대를 보내 이를 정복했으며「에치오피아」정복에 덧붙였다. 이로써 그는「그리스」,「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도약대를 마련하였으며 지금까지 추축국(樞軸國)을 무시한 약소국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그로부터 두 진영,

추축국(樞軸國)과 연합국은 진형(陣形)을 정돈하기 시작했다.

「히틀러」는「뮌헨」이 체결을 주저하는 군사동맹의 체결을 서둘렀다. 강철조약으로 알려진 맹약(盟約)은 5월 22일「베르린」의 총통관저에서 성대한 의식 아래 조인되었다. 동조약의 핵심은 제3조에 있었다.

체결양국의 원불원(願不願)에 관계없이 체결국중의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교전적인 분규에 들어가면 다른 체결국은 육해공군의 전군사력을 동원하여 지원토록 되어있었다. 제5조는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어느 한 쪽 나라도 단독으로 휴전 또는 강화를 교전국과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후일 증명된 바로서는「뮌헨」은 개전초에 전자(前者)를 이행치 않았고 최후에 가서는「이탈리아」는 후자(後者)를 이행치 않았다.

강철조약 서명 다음 날인 5월 23일「히틀러」는 군의 최고간부를 소집하고 피를 흘리지 않고는 이 이상의 성공을 거둘 수 없으며 따라서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도이취」의 경제문제는 한 층 더 큰 생활권을 획득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폴란드」를 살려 둘 수는 없으며 적당한 시기를 선택해서 공격한다는 것이다. 「체코」의 재현(再現)은 불가능하며 전쟁이 될 것이라 했다. 「도이취」,「폴란드」전쟁이 서방과의 전쟁을 유발하는 경우 투쟁은 우선 영국과「프랑스」로 향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도이취」는 동방에 생활권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최초의 기회에「폴란드」를 공격한다. 영국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영국이야말로 반「도이취」세력의 핵심이다. 좋다, 영국과도 부딪쳐 보자. 또「프랑스」도 그것은 생사를 건 투쟁이 될 것이라고 했다.

1939년의 첫여름「도이취」의 군사력은 말할 수 없이 거대한 것으로 되어가고 있었으나 초가을을 목표로 하여 준비하고 있던 전쟁의 승패는 그 전쟁의 종류에 달려 있었다. 「프랑스」,「영국」,「폴란드」, 거기에 소련까지 덧붙여 상대하여 싸울 수는 없었다. 그 운명의 여름, 모든 것은 소련이 서방과 군사동맹을 맺는 것을 방지하는 성패에 달려 있었다.

7월 23일 영불(英佛)은 군사협정을 위해 군참모회담(軍參謀會談)을 즉시 개최하자는 소련의 제안에 동의했다. 군사협정의 목적은 3국이 어떻게「히틀러」군대에 대처하는가를 규정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적군을 과소평가한 영불(英佛)은 느리기 짝이 없는 기선편으로 군사사범단(軍事使範團)을 보냈으며 8월 11일까지 모스크바에 도착지 못했다. 그들이 천천히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히틀러」는 이미 독소불가침조약을 위한 외교적인 접촉을 시작하고 있었다. 독일측의 견해로는 어물거릴

시간이 없었다. 8월 19일은 결정적인 날이었다. 전쟁개시목표일인 9월 1일은 앞으로 13일밖에 안 남았으며 군함은 출동해야 했고「폴란드」습격의 임무를 맡게 될「도이취」육군은 전개를 시작해야만 했다. 그러나 영불(英佛)과의 군참모 회담(軍參謀會談)을 한편으로 계속하고 있던 소련은「히틀러」의 요구에 선뜻 응하지 않았으며「도이취」측은 점점 초조해졌다. 하는 수 없이「히틀러」는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도 욕을 퍼붓던「스타린」에게 개인적으로 간청하여「도이취」의 외상(外相)을 받아드려「모스크바」에서 즉각 불가침 조약을 맺을 것을 부탁했다.「히틀러」는 가을철 우기(雨期)전에 단기간에「폴란드」공격을 끝맺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9월 1일의 목표일을 지켜야만 했으며 그전에 독소불가침 조약을 체결해서 소련의 불개입을 보장받아야만 했던 것이다. 드디어 8월 23일「스타린」과「도이취」외상은 독소불가침조약에 서명했다. 새로운 협력자들은 무엇에 서명했는가? 공표된 조약은 어느쪽도 상대를 공격치 않는다는 약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당사국의 한편이 제3국과 교전상태에 들어가면 다른 당사국은 어떤 형태로도 제3국을 지지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또한 동조약의 비밀의 정서에는「폴란드」를 독소가 분할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숙적이었던「히틀러」와「스타린」은 둘도 없는 협력자가 되었다. 동조약이 조인되던 다음날 소련은 영불(英佛)의 군사절단(軍使節團)에게 이렇게 말했다.「정치정세의 변화에 의해 회담의 계속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소련과의 협상에 성공한「히틀러」는 이번에는 영국에 달려들었다. 소련이 변절한 지금에 와서 영불(英佛)도「폴란드」에 대한 원조를 주저하리라 생각한「히틀러」는 영국에게「도이취」에 관한 한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영국의 존속을 보장하며 또 영국이「도이취」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언제라도 영국을 원조할 것을 약속하는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히틀러」는 끝내 이 노력에서 실패하고 말았다. 이제「폴란드」에 대한 공격은 영불(英佛)과의 전쟁을 의미하게 되었다. 거기다가 8월 25일「뭇소리니」는「도이취」가 당장 전쟁에 돌입하는 경우「이탈리아」는 군사작전을 담당할 만큼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과 1942년에야 비로소「이탈리아」의 육해공군이「도이취」와 협의한대로 전쟁준비를 완료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히틀러」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흥분해서 신경질이 되어 방안을 왔다갔다하며「도이취」에는 저항할 수 없다고 했다. 뭇소리는 쉬어 있고 동작은 완전히 정신이상자 같았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유보트」와 비행기를 만들어 적을 무찌를 것이라고 소리쳤다. 그 모습은 현실에 살아있는 인간이라기 보다는 이야기책 속에 나오는 유평과 같았다. 다음날「히틀러」는 육군총사령관에게「준비를 갖추것과

공격개시는 9월 1일」이라는 지시를 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독일과 전 세계를 전면전쟁에 몰아 넣은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소련과의 불가침조약 체결후「히틀러」는 본래의「폴란드」공격 예정일자였던 9월 1일을 8월 26일 상오 4시반으로 변경했었으나 8월 25일「로마」와「런던」으로부터의 뉴스를 받고 무기연기했다가 다음날 다시 본래의 예정일이었던 9월 1일로「폴란드」공격개시를 정했던 것이다.

8월 30일 정오를 30분 지나서「히틀러」는 이 지구가 생긴 이래 처음보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시작한 결정적 명령을 내렸다.

국방군최고사령관(國防軍最高司令官)

〈極秘〉

「베르린」, 1939년 8월 31일 전쟁수행에 관한 지령 제1호

1.「도이취」에게 더 참을 수 없는 동부국경에서의 상황을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처리하려는 정치적 가능성이 절망적인 지금 본관은 실력에 의한 해결을 결정했다.

2.「폴란드」공격은 백색의 경우에 대비하여 갖추어진 준비에 따라 실시한다.

공격일, 1939년 9월 1일

공격시간, 상오 4시 45분

「히틀러」의 국경관 〈「나의투쟁」에서〉

국경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단순히 1914년의 독일 국경의 재획득을 목표 삼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 구 국경은 부자연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적 국경이며 민족적 국경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구(舊)국경 재획득의 결과는 좌우간에 이익이 매우 적고 단연코 그 때문에 피의 희생을 지불할 가치는 없을 것이다.

1914년의 국경은 독일 장래에 있어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것은 과거에 있어 독일 방위에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장래에 있어서도 독일의 힘은 되지 않을 것이다. 즉, 영국에의 거래가 단축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과 같은 대국으로 되는 것도 아니며, 혹은 불란서의 정치적 세력을 탈취하는 결과가 되는 것도 아닌 것이다.

1914년의 국경을 재건하려는 계획은 다만 무익하게 우리 국민의 피를 흘리게 할 뿐일 것이다. 더욱이 이 작은 목표가 달성되었을 경우 독일인은

최초의 지령을 보면「히틀러」가 그때까지도 영불(英佛)이 어떤 행동으로 나올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스스로 먼저 양국을 공격하는 것을 삼가했다. 상대방이 적대행위를 취하면 감연히 싸울 각오였다.

1939년 8월 31일, 암흑의 장막이 전 유럽을 뒤덮고 150만의「도이취」군대가 새벽의 돌진을 위해「폴란드」국경 최후의 진지를 향해 전진하기 시작할 무렵「히틀러」는 전쟁에 대한「도이취」국민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공격의 책임을「폴란드」에 뒤집어 씌우기 위해「도이취」인에게「폴란드」군복을 입혀「도이취」국경을 습격케 했다.「히틀러」는 전쟁을 주저하는 장군들에게 말했다.「전쟁을 시작하는 선전적인 이유는 타당성 여부를 물을 것이 못된다. 전쟁을 시작하고 개시하는데는 그것의 정당성 여부는 문제가 못되며 승리만이 문제인 것이다」

1939년 9월 1일, 즉「히틀러」가 4개월전의 최초의 지령에서 지정한 바로 그날, 「도이취」군은 서, 남, 북의 3방면에서「폴란드」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했다.「도이취」국민들은 잠이 깨자마자 전쟁에 휩쓸려 들어간 것을 발견하고 모두 일이 빠진듯 했다.

이제 돌아설 수는 없다. 9월 3일에는 영불(英佛)이 대독선전포고(對獨宣戰布告)를 했다. 바로 그날 하오 9시「도이취」의 잠수함은 영국기선을 무경고로 격침했으며 1400명의 승객중 112명이 존귀한 생명을 잃었다.

이리하여 제2차 세계대전은 드디어 시작되었다.

승리에 취하여 보다 큰 목표에의 관심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우리들 나치당은 항상 우리 독일의 대외정책의 목표 즉 독일국민을 위해 지상에 있어서 당연히 부여된 토지를 획득한다는 이 목표를 잊어서는 아니된다.

나는 그와 같은 토지의 획득은「성스런 인권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는「민족주의자」에 단연 반대한다. 이러한 도배들은 독일국민의 적에게만 도움이 되는 혼란을 양성(養成)하는 자들이다.

어떠한 국가라 할지라도 달리 우월한 권리를 가지고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경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 의해 변경될 수가 있다.

우리들 선조는 하늘로부터 독일의 토지를 부여 받은 것은 아니다. 오늘 의 우리들 독일인이 살고 있는 토지 역시 그러한 것이다. 장래 우리들에게 영토를 가져다 주는자가 있다면 그것은 정복(征服)과 검(劍)뿐인 것이다.

편집후기

◇…편집을 끝내고 보니 반공일색의 <반공지(反共誌)>가 된 느낌이 없지 않다. 그러나 불과 백여리 안밖에서 악착스런 공산주의자들과 코를 맞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 볼때 정말 반공관계는 아무리 많이 다루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고 믿는다.

◇…김팔봉(金八峰)님의「반공하는 마음」은 특히 20전후의 장병들에게 좋은 약이 될 줄 믿으며, 공산지옥을 실제로 겪어보신 강영원, 백면진, 박재후님들이 직접 <메스>를 드신」는 인간지옥의 붉은 장막을 그대로 헤쳐 나갈 것이다.

◇…이제 제법 선선한 산들바람이 옷깃을 스친다. 다 같이 차분한 마음으로 책을 들고 불빛을 찾아야 할 계절이 온 것이다. (현)

◇…9월부터는 이제 시원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좋은 독서「씨즌」에 접어들기 때문에 장병 여러분의 독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부드러운 수필집을 한 묶음 엮어 보았다. 독서는 우리의 교양과 인격을 다듬어서 고상한 인격을 쌓아 준다는 점을 명심하고 시간있는 대로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 보도록 하자.

◇…또 우리의 건강과 심신연마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취미나 오락을 위해서 몇가지의 간단한 오락집을 꾸며 보았지만 장병 여러분에게 얼마나 뒷바침이 될 지 궁금하다.

앞으로는 여러분의 심신연마와 위안이 될 수 있는 부드러운 원고를 되도록 많이 실어 보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연재로서 게재되는「한국의 자랑」을 이번에는 우리의 고유한 건축을 소개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외국의 아름다운 건축이나 훌륭한 빌딩은 잘알고 있으면서도「등잔밑이 어둡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고유한 건축예술에는 상당히 어둡다. 우리 것을 먼저 알고 남의 것을 아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훈)

표지

온 국민이 손을 들어 공군을 신뢰하고 환영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특히 고사리같은 손으로 종이 비행기를 날리며 공군을 동경하는 어린이들을 표현해 보았다. 그리고 온 겨레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뭉쳐 국토통일과 국가부흥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였다.

민철홍



항공의료원(航空醫療院)새로 건립

8월20일 본부건물뒤 신축부지에서 항공의료원신축기공식을 올림으로써 년내에 새로운 의술의 보금자리가 마련되게 되었다.

<사진:동기공식에서 훈시하는 장(張)참모총장>

공군과학자문위원(空軍科學諮問委員)일행 항공본창(航空本廠)시찰

공군과학자문위원 일행이 8월 22일 항공본창을 시찰하고 날로 발전하는 공군의 이모저모를 두루 돌아보았다.





명단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